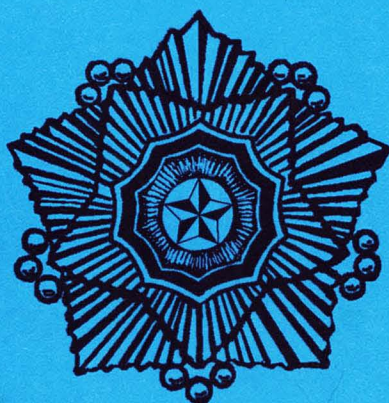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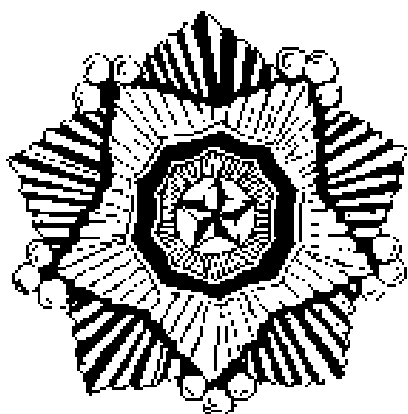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조선문학



7

주체 92 (200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2(2003)년 제7호

(루계 제 669 호)

◇◇◇◇◇◇◇◇◇◇

차례

◇◇◇◇◇◇◇◇◇◇

태양은 누리를 비친다.....	4
이 순간에 살자	4
타격	5
최고사령부에 보관된 《조선봉건왕조실록》	13
성인과 그리움.....	14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문학령도주요일지.....	17
수령님과 문학.....	18
명언해설	21
취재를 하지 않고 취재를 끝낸 외국기자	22
우리의 7.27	22
선군의 위력을 심오하고 진실하게 형상한 시대의 명작	23
《얼음땀》	29
전쟁과 생활	30
공병의 궁지(외 1 편).....	30
조총 세발.....	31

축포가 오르는 밤.....	31
로병의 심장	32
포화속에 울리던 발갈이노래	32
등고선	33
나의 아버지는 전쟁로병이다	42
전쟁과 시.....	43
이사집 가득실은 차들이 간다.....	45
눈이 내린다	46
전쟁과 승리	49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50
이땅의 아들	51
《<대학>을 가르칠라》	61
민족성과 우리 시, 생각되는 몇가지	62
상차림 풍습	64
돌격선의 기발이 되어.....	65
정충신과 그의 안해	67
나의 시여 우뢰치라	68
50년대 할머니.....	70
최명익의 생애와 창작을 더듬어	71
조국결사수호정신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	74
더 높이 나래치라, 1950년대 총대서정이여!.....	76

태양은 누리를 비친다

홍현양

이 땅에 숨쉬며 사는 모든것
빛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그 모든것
열을 지너 심장이 뛰고
심장이 뛰여 붉은 피가 끓는
이 세상은 태양이 준 하나의 생명

사람마다
그 생명을 지너
태양과 인간은 언제나
순간도 떨어져 살지 못할
한 운명체!

태양이 없는
이 세상을 그려볼수 없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아버이수령님을 떠나
이 세상을 생각한적 없는
아 태양과 인간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

이 땅의 보통사람들이 태어난
그런 수수한 초가집차마아래서
조선의 태양은 솟아올랐다
가난의 눈물과 땅없는 설음을 안은
그 위대한 심장만이
만민에게 사랑을 열과 빛으로
만민에게 영원한 생으로 주었다

비물에 질적이는 달구지길에도
이삭속에 묻혀있는 두렁길에도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자욱이 있어
조선은 태양이 비치는 누리
그이의 다심한 손길이 가꾸신

가사

조선은 태양의 세계

병사들이 오르내리는 산밭
이슬맺힌 철갑모우에도
해빛은 뜨겁고
수령님 오르셨던 감시소에
태양의 시간은 지금도 흐른다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는
위대한 수령님은
인류가 맞이한 주체의 태양
그 빛발속에 인민이 산다
그 빛발속에 인민의 봄이 꽃핀다

수풀처럼 번쩍이는 총대도
압제의 사슬끊어 모루우에 버린
백두의 총대다
그 총창우에 태양의 불이 탄다
영생의 빛이 별처럼 흘러간다

아, 태양이 비치는 누리를 밟으며
우리 인민은 어제도 오늘도
강성대국 래일로 간다
어둠을 모르는 저 하늘에
태양의 미소가 가득차
이 땅은 영생의 봄날로 설레인다

길이길이 따스한 열과 함께
길이길이 간절한 그리움속에
태양은 뜨고 또 솟으며
세기와 세기를 이어
인류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으로 빛나리라

이 순간에 살자

김재룡

우러르면 오늘도 그 감격 사무치는
장군님 높이 모신 영광의 기념사진
동무여 언제나 이 순간에 우리 살자
태양결에 가까이 선 이 순간에 살자

꿈결에도 그리던 우리의 소원 안고
장군님 찍어주신 사랑의 기념사진

동무여 언제나 이 순간에 우리 살자
그이품에 생을 맡긴 이 순간에 살자

한생을 살아도 이 모습 안고사는
장군님두리에 선 영원한 기념사진
동무여 언제나 이 순간에 우리 살자
결사옹위 성벽이 된 이 순간에 살자

라격

1

남일대장은 자기의 한생에 이런 류다른 싸움, 온 정신력과 지성, 내부의 힘을 깡그리 뿜어 침묵의 대결, 눈과 눈의 결전을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상상해 본적이 없었다.

불타는 눈길의 치열한 격전은 벌써 두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었다. 눈부리에 불이 달린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분노와 질책, 타매와 증오, 의무와 윤리로 하여 그것은 거의 고통에 가까운 초긴장으로 이어 졌다.

이 색다른 대결은 정전담판회의가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릴 때 이미 시작되었다. 《련합군군》 측 수석대표인 미육군 중장 윌리엄 케이 해리슨은 자기들이 이 전쟁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만큼 분계선을 현재 쌍방이 차지하고 있는 계선이 아니라 썩 북으로 옮겨 평양-함흥을 동서로 굽는 가상적인 선으로 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세웠다.

물론 우리 조선인민군측이 그 강압적인 주장을 받아들일것을 타산한것은 아닐것이었다. 중간중정을 바라는 적들의 상투적인 장사군격기질이 이력사에 전례없는 준엄한 정전담판마당에서까지로골적으로 드러난것이다.

남일대장은 현재 쌍방이 차지하고 있는 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는 우리측의 정당한 견해를 확정적으로 한마디 언급한후 준절한 눈길로 상대를 쏘아보았다. 바위도 녹일것 같은 불타는 질책의 눈길이었다.

별안간 해리슨중장도 입을 다물더니 날카로운 눈길에 더 모를 세워 남일대장을 마주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 심상치 않은 《눈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인간은 자기의 사색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다. 지어 혼자 조용히 책을 읽을때조차 혀는 입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착실히 수행한다고 한다. 눈의 싸움속에서도 그 눈길이 침묵속에서 각자의 사상을 내뿜을진대 공개적인 언어투쟁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아니 그것은 일종의 국제적 판례와 허례허식을 동반한 외교적담판이라는 틀을 벗어났기에 내심속에서 더 격렬하게, 로골적으로, 조금도 재는것이 없이 상대방에게 준엄한 《알》의 줄폭탄을 퍼붓는것인지도 모른다.

《!...》

《?...》

《?!...》

《...》

박운

회의장밖에서는 을씨년스러운 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설건물의 지붕을 두드리는 비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릴뿐 회의장안은 고요하였다. 쌍방 수석대표들의 눈싸움이 시작되자 보조탁의 공작인원, 참모성원들은 물론 회의장밖을 겹으로 둘러싼 기자들까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촬영기와 사진기만 조심스레 휘두른다.

남일대장은 두팔굽을 회담탁에 올려놓고 손을 깎지긴채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해리슨의 랭랭한 얼굴을 쏘아보았다.

회숙한 아마빛머리가 성글고 창백한 낮빛에 눈이 불면으로 충혈진 해리슨의 기름한 얼굴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야외였다면 비물과 착각할 수도 있을것이다.

해리슨의 눈빛은 아니, 눈길은 이상한것이였다.

그것은 이미 남일의 얼굴에 집착된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너머로 분산된 모호한것이였다. 눈의 싸움에 이미 지친 그의 눈길은 아마도 자기의 상념속으로 되돌아가 박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일의 눈초리는 오직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거의 번쩍이는 마른 번개와도 같은것이였다.

그에게는 물러설곳이 없었다.

이 보이지 않는 결전에서 벗어나 추억이나 상상을 해볼 정신적여유를 가질수도 바랄수도 없는 그의 량심의 눈이 내부에서 또 전쟁을 하고 있었기때문이었다.

《!...》

《?...》

《...》

《...》

시간이 굵뜨게, 아니 살같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별안간 해리슨이 군복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급히 이마의 땀을 씻었다. 그는 허둥거리는데, 거의 애원에 가까운 눈길로 남일을 지켜보다가 별안간 일어섰다. 눈길을 급히 떨구었다. 뒤에서 참모장교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는 볼품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해리슨중장은 급히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남일은 그냥 청동상처럼 굳어져 있었다. 비소리가 커진것 같다. 사람들의 웨침이 들리고 주변은 소란스럽다.

회의장밖을 나서서 속소로 가는 차에 오르려는 데 오스트랄리아기자 버체트가 급히 다가왔다.

《수석대표각하, 오늘의 침묵의 전쟁에서는 당 신들이 승리했습니다. 이젠 대단히 설득력있는, 진리의 승리입니다.》

버체트는 격동되어 한손을 휘저었다.

비에 젖은 사진기가 우람찬 그의 몸에 매달려 흔들거렸다.

《하지만 그것이 전쟁의 결속은 아니지요.》

남일은 무거운 어조로 말하며 차에 들어가 앉았다. 우리측 대표인 신장령이 그의 서류가방을 받아들였다.

버체트는 경련이 온것 같은 퍼런 얼굴의 비물을 손으로 뺨 훔쳤다.

《...예, 옳은 분석입니다. 정전담판회의는 벌써 이래째 계속되는데 <련합국군>측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는 이상 정전이 언제 될지, 몇해후나 될지 정말 묘연합니다.》

버체트는 갑자기 몸의 탄력이 풀려버린듯 두팔을 늘어뜨렸다. 어깨가 처지고 메고있던 사진지가 툭툭 떨어져 진창에 박혔다. 버체트는 그냥 서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기다리시는데...)

결국 모든것은 공회전에 불과하지 않은가.

방도는 무엇인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고 그토록 마음을 쓰시고 전승의 그날을 앞당기시려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는 장군님께 어떤 타결책을 보고드려야 하는가....

남일은 차창너머 비내리는 흐릿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음산한 구름들이 겹겹이 깔린 침침한 하늘이 확 안겨든다.

남일의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운 하늘이었다.

2

김일성 동지께서는 비가뎀자 집무실밖으로 나오시었다.

구름장들이 황급히 서쪽으로 밀려가고 하늘끝이 점차 들리고 있다. 희미한 해빛이 힘들게 그 틈사리로 비쳐내리자 지겨운 장마에 지칠대로 지친 초목들이 저마끔 몸을 털며 머리를 곧추 쳐들었다.

최고사령부옆 언덕길을 따라 한참 걸으시었다.

풀숲을 헤치시다나니 장화가 방금 닦은듯 비물에 번들번들해졌다.

야산기슭의 들판에 나서시자 해가 잠깐 그 눈부신 얼굴을 내민듯 싶다. 바람이 잦아들고 풀잎들에 평온한 이슬이 맺혀 반짝거린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야전복허리에 한손을 짚으시고 주위를 둘러보시었다.

군데군데 험상하게 패인 폭탄구덩이를 따라 비를 머금은 파란 잔디들이 눈을 아프게 찌른다.

그 잔디밭이 끝나는 애솔숲사이로 군복색 같은 것이 얼씬거리다가 사라져버린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부지중 미소를 지으시었다.

책임부관과 공정수가 끝내 몰래 따라나선것이 다. 사색에 방해된다고 짐짓 엄하게 돌려세우셨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다. 사실은 며칠째 빠져든 사색도 사색이려니와 두사람이 어제밤 비사태에 패인 저수지제방보수장에 나가 주변 인민들과 친위중대성원들과 함께 교박 밭헐기에 휴식을 주려던것이었는데 그 충직성은 어쩔수가 없다. 이 고장은 예로부터 비가 적게 내려 이름도 건지리이다. 하지만 이해 여름은 줄곧 무더기 비다. 어제 밤에는 바람질도 심했다. 부근 사람들은 살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고 놀라와들 했다.

산천도 전쟁과 자연재해의 시달림을 받는다.

마음이 아프졌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눈길을 돌려 밭밧을 내려다보시었다.

허리가 잘룩한 흑진주빛의 작은 개미들이 부지런히 비에 묻힌 개미굴을 《수리》하고 있었다.

벌써 보들보들한 수수알 같은 찰흙이 굴주변에 무뎠해졌다. 성실한 개미들의 인내성이 쌓아올린 아담한 《개미성》이었다. 제 몸집만한 흙을 입에 문 이악한 개미떼들은 그 누구의 독촉도 없이 가는 다리에 자개바람이 일도록 성급하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앞개미의 뒤를 바투 따라선 뒤개미는 무슨 장애물이 생겨 지체되면 숨쉴이게 살짝 빠져 달아나 도무지 교통마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문득 허를 차시었다.

(허, 그것들이 꽤 질서있는걸...)

김일성 동지께서는 사색을 이어가시며 개미굴을 내려다보시었다.

개바닥쪽에 서 허리가 길고 대가리가 뾰족한 말개미떼가 날과람있게 나타났다. 불청객들은 잠시 개미굴가까이에 멈춰서서 주뿔거리더니 부리나케 굴쪽으로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 형세가 자못 어마어마했다. 아마 저지대의 제굴이 비에 엉망진창이 되자 새 보금자리를 찾던 모양인지도 모른다.

싸움은 눈깜짝할사이에 벌어졌다. 보금자리를 침범당한 개미들이 가만 있을리가 없었다.

이악한 작은 개미들은 제 몸의 거의 두배가 넘는 말개미떼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했다. 《개미성》 주변에는 어느새 말개미들이 무수히 죽어 넘어졌다.

《여, 강덕수, 공정수! 뒤에서 술래잡이 그만하고 이리 오라구.》

김일성 동지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신채 유쾌하게 말씀하시었다.

얼굴이 벌개진 부관들이 관목숲에서 나와 머뭇머뭇 다가왔다.

《여길 보오. 개미들이 <전쟁>이 붙었소.》

키가 작고 다부진 공정수가 넉넉 달려와 무릎

을 꿇고 개미굴을 들여다본다.

《야, 요 작은 개미들이 보통이 아닌데…》

책임부관은 주변을 두릿거리다가 곳곳한 자세로 서서 말씀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 방금 연락이 왔는데 남일총참모장이 개성을 출발했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허리를 펴시였다.

《남일동무가 떠났단말이지? 그래 내가 어제 임무준것은 어찌됐소?》

《평고기완자를 푼푼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 공정수동무가 엉큼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지시를 어기고 다른 평을 세마리나 가져왔거든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짐짓 엄한 눈길로 공정수를 내려다 보시였다.

《공정수! 어떻게 된거요?》

공정수가 얼굴을 붉히며 엉거주춤 일어서서 자기 직속상관을 민망스레 올려다보았다.

《사실은 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우시는 평들이 아까와서… 그런데 최용건보위상동지가 사연을 듣고 우정 세마리나 가져왔습니다.》

《분명 우리 공정수가 떼를 썼겠지?》

《아닙니다. 장군님, 보위상동지는 지난해 장군님께서 평알 세알을 주시면서 한번 키워보라고 하실때 자신이 없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젠 열마리가 넘는다면서…》

《허허허, 보위상동무가 그 우물우물하는 성미에 수고했을거요. 실은 말이요. 저 남일동무가 속달이 좀 있는데 평고기가 약이거든. 보름전에 보니 몸이 축갔소. 적들과의 정면대결이 간단칠 않아!》

김일성 동지께서는 검은 구름이 밀려가는 서남쪽 하늘가에 눈길을 주시였다. 전선 어디선가 포성이 울리는듯 싶다. 벌써 이래째 계속되고 있는 정전담판, 공격과 방어, 역습과 대결은 전선에서만이 아니라 회담탁에서도 벌어졌다. 전쟁사에 류례없는 이 마라손회담에서 어쩌면 쌍방은 다 지쳤을수도 있다. 천연스레 얼굴을 맞댄 회담탁 뒤에서는 실재없이 작전도가 펼쳐지고 배비변경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한치의 땅을 위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였다. 장시간 계속되는 딱딱한 론조에 이제는 목소리들마저 쉬어버렸다. 그러니 마지막제선인가?… 다시 사색의 불꽃이 일었다. 남일동무가 수고할테지…

적들이 떠드는 제공권우위설과 《영예로운 정전》… 남일도 최용건도 이 암초앞에서 주저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건 벌써 정신력에서의 후퇴나 담보를 의미하고 있다. 전쟁의 결속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남의 집에 뛰여든 강도배들이 오히려 제련에서 뻘뻘스러운 요구를 들고 나오는 판이다.… 어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있는 회창으로 떠나던 최용건의 모습이 떠오르시였다. 그의 얼굴빛은 어두웠다. 눈밑의 검버섯이

더 진해진것 같았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깊은 고뇌에 잠기시여 눈길을 돌리시였다.

잔디밭과 애솔사이의 좁은 길로 누군가 급히 달려 왔다. 정충정충 뛰는 급한 달림새가 부관장 리을설이 분명하였다.

리을설이 다가와 정중히 보고를 하였다.

《무슨 일이요?》

리을설의 앞가슴과 어깨가 세차게 오르내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전선군단장들과 최사부사령관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사령부에 갔던 최용건민족보위상도 방금 들어섰습니다.》

《숨을 돌리오. 뭘 그리 덤벼치면서 그러오.》

김일성 동지께서는 손수건을 꺼내시여 땀에 젖은 그의 목덜미를 훑쳐주시였다.

리을설의 몸의 탄력이 풀려버렸다.

《저… 사실은 장군님, 오늘은 일요일이여서 최사통신결속소 녀성군인들과 직속구분대 군관들사이의 배구결승경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더러 심판을 서달라기에…》

리을설이 난처해하자 **김일성** 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허허허, 을설동무가 산에서부터 경기심판이야 잘 썼지. 빨찌산들이 심판에선 공정성이 기본이라면서 동물 놀 들볶았지. 그래 통신동무들이 이번엔 자신 있다오?》 전번 경기에선 여지없이 패했던 그들이였다. 그때부터 찹찹이 이악하게 혼련하더니 당당하게 결승의 마당에까지 올라온것이다.

공정수가 벅글거리며 대답올렸다.

《장군님, 보름전부터 부관장동지와 보위상동지가 협동해서 녀성군인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허, 그렇다? 이거 심판의 공정성이 보장될가?… 그래서 을설동무가 열성이됐구만…》

《장군님, 직속구분대 선수들속엔 전쟁전 전문선수단경력을 가진 군관이 둘씩이나 있습니다. 진짜 공정성을 위해서…》

리을설이 얼굴을 붉히자 **김일성** 동지께서는 폭소를 터뜨리시였다.

《…하하하, 동무네 경기의 공정성은 내가 직접 보겠소. 배구장으로 가시오. 그리고 최사성원들과 전선지휘관들도 다 데려오시오. 남일동무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있으니 머리로 쉬일걸 말이요.》

얼굴이 환해진 리을설이 공정수에게 무슨 지시를 주는것 같다.

해가 퍼지자 매새들의 지저귂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아주 상냥해진 여름날의 정오답다.

3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야전차창이 드륵드륵 울

었다.

남일은 이마에 메산자를 그린채 지긋게 시창앞을 쏘아보며 사색에 잠겼다.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정전협정의 세부조항들이 기본적으로 합의되고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들에 적이 힘들게 동의를 표하면서 결승선으로 육박하던 담판은 결국 커다란 암초에 부딪치고 말았다. 군사분계선이라는 전쟁의 시작이자 종말이기도 한 근본문제에서 숨가빠 멈춰선것이다.

남일은 가는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그 어떤 외교적수완이나 의지, 결단성, 분석판단과 논리적 주장 등 적극적인 회담자세로만 돌파할 성격의 난점이 아니었다. 용서없는 두 세계의 심각한 정치군사적대결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쟁의지를 철저히 반영한 해결책이 없겠는가. 적들도 이젠 거덜이 날대로 났다. 최근 아이젠하워의 연설들과 렬강들간의 잦은 으르렁거림은 조선전쟁의 시급한 종결을 서두르고 다그치려는 어쩔수 없는 론조들로 채색되어있다.

력사의 흐름은 멈추어 세울수 없다. 하지만 적들은 체면을 잃지 않으려 억지를 부리고 큰 어부지리를 얻어 정전이라는 참패에 월계관은 못되더라도 그 무슨 색다른 영예의 병거지를 씌우려 하고 있다.

서방통신들은 말한다. 북조선의 한걸음 물러섬은 미국의 두걸음, 세걸음의 양보를 가져올것이며 그 즉시로 전쟁의 마차는 멎을것이라고... 여기에는 쏘련의 군사문제전문가들이 앞장서고 있다.

《양보라...》

남일이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자 뒤자리에 앉은 신장령이 한숨을 내쉬었다.

《수석대표동지, 어쨌든 우리가 최고사령부앞에 현실성 있는 타결책을 가지고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중국측대표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만난 쏘련대사동무는 지금의 회담정황에서 일종의 약간의 양보제스츄어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암시하더군요.》

신장령은 힘들게 말을 내뱉더니 눈길을 떨구었다.

남일은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나직이 말했다.

《여보 신동무, 그게 생각해보고 하는 소리요? 단순한 지역적양보로 끝날줄 아는가? 이젠... 전쟁에 대한 조선혁명가들의 관점문제란 말이요. 나아가선 적에 대해 굴욕적인것으로 인식될수도 있소. 우리에게 절대로 한걸음도 물러설 길이 없소!》

《그렇다면...》

남일은 차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비발이 설퍼지고 있었다. 성급한 여름소나기가 한숨 쉬려고 물러서려는것이다.

황주를 지나 대동강기슭까지 오자 비는 그만 멎어버렸다.

《운전사동무, 차를 좀 세워주요.》

남일은 무뚝뚝하게 내뱉고나서 차에서 내렸다. 강변에는 뿌연 안개가 낮게 떠돌고 있다.

강언덕의 고사총진지들이 부산스레 움직이는것 이 눈에 뜨인다. 비가 멎었으니 미제침략군폭격기들이 젖은 활주로를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할것이다.

남일은 강기슭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이곳은 이태전 그가 정전담판개최를 위하여 개성래봉장으로 떠나던 자리이다.

그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유리창이 번쩍이는 육중한 리무진차에 그를 태우시면서 호탕하게 말씀하시였다.

《이건 우리가 로획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초가 타고다니던 차요. 전쟁전에 무초가 이 차를 타고 서울거리를 지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측 수석대표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가 타던 차를 타고 정전담판장에 나가는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측 수석대표가 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벌써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자이며 미제침략자들은 패배자라는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혁명군대의 높은 존엄과 신심, 드센 배짱이 있어야 승리할수 있소.》

(승리자와 패배자!)

장군님께서는 그때 벌써 정전담판의 기본성격과 사명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실사 전쟁이 우리 대에 끝나지 않는다해도 이 원칙에서 한치도 물러설수 없다.

승리자에게는 양보가 없다...)

남일은 껍 돌아서서 야전차쪽으로 다가갔다.

그냥 차안에 앉아있던 신장령이 달라진 남일의 굳은 얼굴표정을 놀라서 올려다보았다.

《전속으로! 최고사령부로 멈춤이 없이 달리기요.》

야전차가 질풍같이 달리자 강바람이 훅훅 밀려들어 차창을 때렸다.

남일은 눈을 감았다.

그래 이 전쟁의 승리적전진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전승은 오직 우리 수령님을 믿을 때 이 땅에 다가올것이다. 우리 수령님의 사색과 불멸의 자욱우에 전승과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멀리 북쪽하늘끝에서 구름사이로 강렬한 해빛이 눈부시게 비쳐내렸다.

4

《봉쇄하라! 7번, 왜 못거러!》

《3번, 공간! 공간을 메꾸라!》

《제길. 야, 왜 강타할 틈을 주는가!》

리울설이 풀기없이 호각을 불 때마다 공정수가 길길이 뛰면서 여자선수들을 되게 다그어댄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배구장에 눈길을 주고계시었으나 자주 생각에 잠겨드시었다.

모든 사물현상에는 상대적인 의미가 담기기 마련이다. 평화시기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행정도 자기의 고유한 시대적법칙을 가지고 있다.

전선은 방어로 넘어가 벌써 두해를 넘겼다.

《마라손선수》들은 이미 어쩔수 없이 들어선 주행길에서 지쳐버려 속도를 덜지도 높이지도 못하고 상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아니, 점점 떨어지는 기력을 거의 운명적으로 감수하고 있다.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결승선을 향하여 폭발적인 속도를 내어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할 힘은 어디에 있는가.

육체, 물리적한계점, 전쟁도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인간의 사상과 의지, 정신력의 문제다.

오직 강한 정신력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또 리울설의 호각소리가 들려온다.

지금, 저 여자배구선수들은 벌써 그 정신력에서 지고 있다. 열정적인 공정수가 아무리 소래기를 질러도 소용없다.

최용건동무는 경기조직을 어떻게 했는가. 썰을 키우는걸 보나 《썰는 썰》이라는 필명으로 시를 짓는걸 보면 역시 같은 털통스러워도 속은 세심하고 웅심깊은 인간이다. 하지만 전선형편과 전쟁결속문제를 두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둡다.

이마에서 메산자가 사라지지 않는다.

아마도 그 영향이 관문점에 나가 살고있는 남 일에게까지 미친듯 싶다.

전쟁전 선수경력을 가진 군관이 둘씩이나 끼여 있다는 직속팀선수들은 시물시물 웃으며 재치있게 경기를 운영해나간다. 결국 첫회전에서는 통선병팀이 어방없이 패하고 말았다.

락심한 리울설에게로 직속팀주장인 그 《전쟁전 선수》-키찍다리 대위가 느릿느릿 다가갔다.

《심판원동지, 한가지 제기할것이 있습니다.》

《뭐요?》

리울설이 잔뜩 이마살을 찌프리고 킁찍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이거 경기가 너무 싱거운데 우리팀은 열다섯 알이 아니라 열알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뭐? 열알로?》

리울설이 어처구니 없는듯 종잡을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여자팀속에서 대뜸 항의가 일어났다.

김일성 동지결에 앉아 찌뿌둥한 안색으로 경기

를 지켜보던 최용건이 불쑥 일어섰다.

사색에 잠기었던 **김일성** 동지께서 그를 쳐다보시었다.

《보위상동무, 왜 그러오?》

《장군님, 아무래도 제가 좀 비쳐야 될것 같습니다.》

《됐소. 그 문제 공정한 리울설심판원이 해결할 거요. 그보다도... 감독적인 보위상동문 녀성팀에게 새 전술안을 제기해야겠소... 내가 직접 말하면 남성팀이 의견을 가질수 있소. 허허, 이자 가만히 보니 남성팀에도 전형적인 공격수는 없소. 녀성군인팀 주장에게 귀뜸하오. 7번수와 3번수를 돌려가며 무조건 강타를 하라고, 공격만이 진짜 방어로 될수 있소. 신심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라고 하시오. 공격을 하다가저도 탓하지 않겠다고 전하시오.》

최용건의 얼굴이 검붉어졌다.

《알았습니다, 장군님!》

《최고사령관이 이르더라고 하오.》

《해볼만합니다. 사실 저 7번수는 공격에 실수가 없었는데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김일성 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저 공정수는 들어와 왔으라고 하오. 오히려 방해만 하누만. 허허허, 대담하게 공격하게 하시오.》

최용건이 녀성팀쪽으로 씩씩 씩씩 다가갔다.

한참만에 녀성팀쪽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또다시 사색에 잠겨드시었다.

전선의 하늘, 불그레한 화광속으로 재빛연기가 타래쳐 오른다. 새들이, 폭우에 놀란 새들이 때없이 그 하늘에 날아올라 향방없이 불안스레 떠돈다. 그 애처로운 새들사이로 검은 폭격기들이 날개를 번쩍이며 끼여든다. 새들은 작아지고 검은 날개들은 점점 커진다.

작전지도가 느닷없이 머리속에 그려지었다.

그것은 세심하고 생동한 화폭이었다. 날카롭고 명백한 정경이었다.

부호들속에 숨은 방어선들, 군단들과 포병구분대들, 어떤 전선은 깊은 만처럼 우리쪽으로 길게 구부러 들어온것도 있다. 저걸 쫓수는 없는가?...

저걸 쫓때 우리 지휘성원들의 얼굴의 메산자도 퍼질테지... 땅크의 무한궤도소리, 아츠러운 비행기동음, 예광탄의 불줄기... 문득 날카로운 탄성이 들린다. 호각소리가 때 머물게 들린다.

그 호각소리에서 리울설의 흥분이 느껴진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시 눈길을 배구장으로 돌리시었다.

두번째회전의 분위기가 달라진것이 대뜸 알린다.

녀성군인들이 이악을 부렸다. 자기들의 여유있

는 제의가 기각된때문인지 남자팀은 상대의 강타를 아랑있게 받는다. 어쩌면 몇점은 너그럽게 먹여주려는 심산같다.

두팀이 나란히 열알계선을 넘어서자 문득 형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격에 점차 숙련이 되고 정확한 타격에 신심이 생긴 녀성팀이 기세좋게 런속 조려대자 직속팀속에서 은연중 혼란이 일어났다. 두번째회전은 아슬아슬하게 녀성팀이 이겼다.

마지막회전이 시작되었다. 직속팀은 흥분하여 방어로부터 공격으로 이전하였으나 실수가 많았다.

키작다리의 몇번의 강타가 실패하자 급기야 다시 방어로 되돌아갔다.

《조기라! 쌍순간타격! 7번, 야, 공간으로 타격하라!》

최용건에게 끌려들어왔던 공정수가 어느새 경기장결에 또 다가가 목에 피대를 둔구었다.

《보위상동무, 저걸보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옆을 돌아보며 말씀하시다 허구프게 웃으시였다.

열이 오른 최용건도 경기장쪽에 다가가 웅크리고 앉은채 무슨 손짓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 다시 사색에 잠기시려는데 경기장에서 또 탄성이 터졌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뒤를 돌아보시다가 전선지휘관들의 옆에 서있는 남일을 발견하시였다.

《남일동무, 왔구만. 뭘 그리 꺾은 보리자루처럼 서있소. 여기 와 앉소.》

김일성 동지께서는 남일의 인사를 받으시고나서 옆에 앉히시였다.

《얼굴색이 왜 그 모양이요.》

남일의 눈주위에는 무엇인가 미묘한 마음속불안 같은것이 내비쳐있다.

《최고사령관동지, 이렇게 배구경기를 보시리라고는 생각못했습니다.》

남일은 눈길을 내리깔며 몸돌바를 몰라했다.

(남일이가 어깨에 무거운 별을 한줄 달고도 전선문제때문에 웅색해하고 있구나. 대적과 맞선 우리 일군들의 자세, 아니 신념이 문제다.

이건 우리 혁명가들의 인생관문제와 직결된다. 인생관!...)

김일성 동지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우리 통신병처녀들이 대단하지 않소? 보오. 저 드센 공격앞에 상대팀이 꼼짝을 못하누만.》

《저도 아까부터 지켜보았는데 마감에 와서 형세가 꽤 달라졌습니다. 전혀 상상밖입니다.》

충격을 받은듯 남일의 얼굴에 류다른 빛같이 일른 거렸다.

《허허, 차라리 남일총참모장에게 심판을 맡길걸 그랬소.》

김일성 동지께서는 책임부관을 부르시였다.

《강동무, 남일 총참모장이 아직 식사전이겠는데 빨리 식당으로 안내하십시오.》

《아닙니다. 장군님... 우린...》

《빨리 점심을 하고 전선문제를 토의하지요. 동무가 좋아하는 평고기완자도 있습니다.》

《장군님!》

남일은 얼굴이 상혈되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기전망이 확고해 지자 안색이 조금 환해 진 최용건이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장군님, 이젠 됐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를 쳐다보시였다. 어쩐지 최용건의 푹한 얼굴에서 자신심 같은것이 새롭게 엿보인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보위상동무가 훈련지도를 준 녀성팀이 지면 되겠소? 문제는 경기에 나선 선수들의 배심이거든. 하하하...》

최용건이 무안한듯 술진 눈섭을 꿈틀거리며 입맛을 다셨다.

《정말 이 일을 두고 새삼스럽게 용기와 신심이 생깁니다. 사실은 장군님, 저 7번을 단 통신군관이 1차남진때 우리 담당간호원이였습니다. 어쩌나 승벽이 센지...》

《그러니 이거 편역을 들지 않을수 없구만. 우리 녀성군인들이 대단해. 무조건 이기려는 그 정신이 얼마나 귀중한가. 나는 저런 강타정신이 마음에 듭니다.》

경기가 녀성군인들의 승리로 끝나자 주변군인들과 전선군단장들이 앉은 관중석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락심한 키작다리대위가 애매한 리울설을 붙잡고 못살게 굴었다. 물주전자를 든 공정수가 신바람이 나서 녀성군인들속에 묻혀 돌아갔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선지휘관들과 함께 최고사령부 집무실로 향하시였다.

5

벽을 반나마 가리운 커다란 작전지도를 등지고 앉으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사색에 잠기시여 군사지휘관들을 둘러보시였다.

《이자 남일동무의 정황보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격식을 차릴것도 없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봅시다.》

김일성 동지의 눈가에는 한순간 피로가 물린듯 싶었다.

한 군단장이 최고사령부성원들을 던지시 살피고 나서 눈길을 번쩍 들었다.

《장군님, 전쟁을 지금상태로 수백년을 더 한대도 미국놈들의 제안에 귀기울일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놈들도 이 전쟁에 맥이 빠질대로 빠졌는데 이제 머리를 수그릴겁니다.》

군단장이 결결하게 말씀올리자 **김일성** 동지께서

는 너그럽게 웃으시었다.

《52군단장동무야 산에서 수십년을 백설속에 싸웠는데 먼저 물러설리 있나. 그 락천주의는 마음에 들지만 전쟁은… 빨리 결속해야 하오. 이견력과 시대의 성숙된 요구이기도 합니다. 동무들도 지금 평양에서 전승열병식준비를 하고 있는 줄은 다 알고 있지 않소.》

최용건이 결연한 눈길로 얼굴을 들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지금 미제가 막판에 와서 강도적론리를 세우는것은 이통에 제 안속을 채우려는 검은 속심이 깔려있기때문입니다. 우리 측의 배심있는 강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자는걸 제기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은 여러가지 정치경제적사정으로 성과없는 전쟁이 지속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도 양보없는 강한 인내성이 필요합니다.》

《참을 인자라…》

집무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들 눈길을 떨구고 생각을 더듬었다. 최고사령부 일군이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쟁의 종결은 미룰수 없는 역사의 주객관적조건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갈수 없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물리적, 아니 정치적효과나 충격을 주면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 효과라는게 도대체 뭐요?》

최용건이 못마땅한듯 똑하게 물었다.

《?!…》

일군이 머뭇거리자 **김일성** 동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부사령관동무, 갑자기 말고 툭 터놓고 이야기해보시오.》

일군은 용기를 얻은듯 남일쪽을 얼핏 스쳐보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슨은 결국 아이젠하워의 립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속에 대해서는 서방만이 아니라 형제나라들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리야를 숙청한 쏘련당지도부도 우리에게 상징적인 양보분위기를 보인다면 미국지배층을 조정할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위신쓰끼가 그걸 통보해왔습니다.》

《…》

집무실안에 다시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그것은 종전과 질이 다른 류다른 침묵이었다.

《남일동무, 중국동무들의 의견은 어떻소?》

김일성 동지께서 물으시었다.

남일이 경건한 자세로 조용히 일어섰다.

《보위상동무가 련합군대표로서 양득지부사령원을 만나 함께 왔지만 그들도 사실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착할 중국측대표동무네가 중국지도부의 소식을 가지고 올것입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움쭉 몸을 일으키

시었다. 그이께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작전지도쪽을 스쳐보시었다.

문가에 리올설이 굳어진 얼굴로 나타났다.

《최고사령관동지, 오늘 오전 미제침략군 비행대가 함주군과 홍남일대를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승호리일대와 수안포로수용소에도 또 무차별 폭격을 했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군들쪽으로 돌아서시었다.

그이의 눈가에서 푸른 섬광같은것이 번쩍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저들의 오만한 제공권을 인식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소. 오죽하면 제놈들의 포로가 있는 수용소까지 몇차례나 폭격하겠는가.》

문제는 이 전쟁을 대하는 우리 일군들의 신념입니다. 주도권을 툴튼히 틀어쥐는 혁명가의 자세입니다. 동무들, 놈들이 제공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배짱있게 제지권을 주장해야겠소. 무엇이 두려워 침묵하겠소. 땅에 경계선이 생기면 자연히 하늘도 분리되는 법이요. 하늘의 선이 땅을 규제하진 못하거든.

전쟁의 승리를 안아오는데서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김일성 동지께서는 작전대에서 물러서시었다.

몹시 더우신듯 목단추를 풀어놓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최용건을 돌아보시었다.

《최용건동무, 우리가 빨찌산 때 오늘과 같은 난관을 한두번만 겪었는가? 눈보라 우는 광야에서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적도 한두번이 아니였고 혁명이 준엄한 시련에 부딪쳐 앞이 캄캄한 때도 있었소. 그래 그런 시련과 좌절속에서 우리 빨찌산들이 어떻게 결심했고 어떻게 행동했소?》

김일성 동지의 음성은 점차 격해지였다.

《장군님, 우린 그때마다… 장군님만을 믿고 사생결단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최용건이 눈빛을 빛내이며 젖은 목소리로 말을 더듬거렸다.

《웁소. 군장인 최용건동무가 적의 포위를 뚫고 찾아와 우리밑에서 평전사로라도 싸우겠다고 눈물을 흘리던 일이 어제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백두산에서 고난과 시련앞에 동요하거나 주저앉아 적의 눈치를 본적이 있는가. 억천만번 죽더라도 붉은기를 들고 원쑤를 치자는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대담하게 뚫고나갔지. 적들이 발악할수록 드센 공격으로 내밀어 돌파구를 냈거든. 역경에 처할수록 대담하게 공격전으로 맞받아나간것은 우리 혁명가들의 투쟁방식이고 나의 인생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격정에 젖은 눈길로 지휘관들을 둘러보시었다.

최고사령부 집무실에는 엄숙한 고요가 깃들었다.

최용건과 남일의 얼굴에 감동과 걱정의 뜨거운

빛이 실려 넘실거렸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먹을 틀어쥐시고 두사람을 믿음어린 시선으로 일별하시고나서 조용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지휘성원동무들, 전쟁의 승리는 오직 정의의 힘, 강력한 혁명무력의 의지와 담력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이젠 이 전쟁을 대하는 우리 일군들의 투쟁관, 혁명관문제입니다.

나의 결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지난번의 두차례의 타격전에 이어 전 전선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강력한 타격을 가하자는 것을 제기합니다. 미친개는 몽둥이를 휘둘러야 짓던 입도 다물고 내뺄는 법이요. 미제침략자들에게 영웅적조선인민의 본때를 보여야겠소!》

김일성 동지께서는 작전지시봉을 드시고 지도쪽으로 돌아서시였다.

《우리가 며칠전부터 구상한것인데 우선 정전후 유리한 지대를 장악하려면 적어도 이곳과 이곳, 금성남쪽 우리측으로 만곡된 적의 돌출부를 장악해야 합니다. 적은 지금 금화와 북한강좌안의 수키로메터 전선에 6개 사단을 1체대로, 피뢰 11보 병사단을 기본으로 하는 2군단을 예비대로 배치하고 있소. 강력한 타격을 진행하고 공격성파를 확대하여 적의 중심인 백암산, 흑운토령까지 진격해야 합니다. 이 대규모 공격작전은 전승을 안아오는 마지막 전쟁서사시로 될것이요.》

홍분한 군사지휘관들이 격동된 눈길로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 보았다.

지금의 정세하에서 너무나도 비상한 작전계획이였다.

52군단장이 눈길을 번쩍였다.

《장군님, 이제야 가슴이 후련합니다. 우리 군단은 방금 지적해주신 방향에서 351고지 남쪽 339고지와 811.7고지남쪽 <대대장고지>까지 전파를 확대하겠습니다.》

주타격방향에 서려는 로병의 기대가 력력히 담긴 제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동무의 제의를 모든 전선지휘관들의 결의로 믿겠습니다. 동무들! 타격시간은 7월 13일 21시입니다. 이 타격전이 결속되면 정전담판회의에도 극적인 변화가 생기리라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전선을 앞으로 더 내밀어야 합니다. 나의 정신은 공격정신입니다!》

김일성 동지를 우러르는 남일이 큰 호흡으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전선사령부산하 군단장들과 최고사령부 지휘성원들이 격동에 젖은 눈빛들을 주고 받았다.

최용건이 옆에 앉은 남일의 손목을 으스스리게 틀어쥐였다.

그는 석심한 목소리로 옆에 떠서 중얼거렸다.

《여보 남일동무, 이젠 됐소, 됐단 말이요. 해가

쏘았소. 우리 해뜨기전의 어둠속에서 헤맸단말이요. 한생을 받들면서도 그 뜻을, 그 정신을 다 따르지도 배우지도 못했거든. 인생을 헛산것 같아. 하지만 이젠 됐소!...》

《시인》은 눈물이 글썽해서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보았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시계를 들여다보시고나서 리을설을 부르시였다.

《부관장동무, 벌써 저녁이 다 되었구만. 모두들 출출할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본때있게 싸우자면 속이 든든해야지. 거 시원한 국수나 말도록 하오.》

《알았습니다.》

리을설이 씩씩하게 대답하고 방을 나섰다.

밖에서 공정수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뒤따른다.

전쟁의 마지막타격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6

전선이, 전선이... 몸부림쳤다. 전진했다.

7

그것은 분명 기적이었다. 인간이 창조한 신비한 전쟁의 서사시였다.

1953년 7월 13일 밤, 전선에서는 아군연합부대들이 일제히 불의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14일 오후 16시현재 공격계선에서 행동하는 인민군연합부대들은 적의 방어선에 거대한 돌과 구를 내고 10키로메터이상 전진하였다. 15일에는 적의 중심인 백암산, 흑운토령계선까지 진출한 연합부대들이 계속 남쪽으로 공격성파를 확대하였다.

인민군연합부대들의 강력한 타격에 질겁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와 8군사령관 테일러, 피뢰 《룩군참모총장》 백선엽이 군용기를 타고 전선에 날아 들어 방어대책을 강구했으나 이미 물먹은 흙벽신세였다.

열흘간의 강력한 타격으로 적은 7만 8천명이 살상포로되었고 엄청난 수의 탱크와 수백대의 비행기를 잃었다.

이 빛나는 타격작전으로 아군은 192.9평방키로메터 지역을 전진했다.

1953년 7월 24일 미제침략군측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불의에 진행된 정전담판회의에서는 쌍방이 차지한 현전선을 그대로 군사분계선으로 최종 확정하는 력사적인 문건이 급속도로 채택되었다.

이날 전선은... 고요하였다.

해리슨중장의 눈길은 시종 회담탁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아마도 여기저기서 들이대는 촬영기의 렌즈를 피하려는것인지도 몰랐다.

최종문건을 교환하는 순간 해리슨은 문득 눈길

을 들어 남일장령을 쏘아보았다.

그것은 한참나의 예리한 불줄기같이 날카롭고 섬찍한 것이었다.

《?...》

《!...》

《?!...》

《!...》

해리슨의 눈가에 고통스러운 회심과 좌절의 어두운 빛갈이 얼른거리더니 급기야 그것마저 꺼지고 말았다.

해리슨증장은 황급히 몸을 돌려 추운듯 웅충그리고 출입문으로 다가갔다.

회담이 끝나고 정전협정조인식과 관련한 실무급회담이 이어지자 남일도 회의장밖으로 나왔다.

해빛에 눈이 부셨다. 장마도 이제는 건히려는 것인가. 그는 몸을 비칠거렸다.

정신적긴장때문인지 빈혈이 온것 같다. 누군가의 팔을 부축했다. 신장령과 버체트기자였다.

홍분한 버체트의 가느다란 눈가에서 물기가 번

쩍이었다.

《수석대표각하, 이런 기적이, 이런 신비가 어디서 온겁니까?...》

남일은 신장령의 팔을 물리치고 곳곳이 서서 빙그레 웃었다.

《이건 우리 혁명무력이 틀어진 정의의 힘의 결과요. 알겠소? 기자선생.》

《예? 정의의 힘이요?...》

《그렇소. 우리 장군님의 정의의 힘, 위대한 공격정신이 낳은 력사의 산아란 말이요. 이걸 세계에 진실하게 격조높이 전하시오!》

남일대장은 머리를 쳐들고 소리내어 웃었다.

만 이태만에 터치는 큰 웃음이었다.

그의 청높은 웃음소리에 기자들이 별뿔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남일대장은 불쑥 웃음을 거두더니 엄격한 낯색으로 되돌아가 승용차쪽으로 급히 다가갔다.

전승의 그날까지는 이제 72시간이 남아있었다.

수령님과 전승일화(1)

최고사령부에 보관된

인민군대의 노도와 같은 진격으로 서울이 해방된지 며칠 안되던 주체39(1950)년 7월 초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육부문 일군들이 최고사령부에 도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지 열흘도 채 안되던때였다. 비록 군인들은 아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군사임무도 반드시 해내리라는 각오를 단단히 하며 달려온 걸음이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군사임무》는 참으로 예상밖이었다.

《...<조선봉건왕조실록>을 구출하기 위하여 동무들을 서울로 파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귀를 의심하였다.

519년간의 조선봉건왕조의 《정부일지》라고 할수 있는 《조선봉건왕조실록》이 아무리 귀중한것이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문화재일뿐이었다. 항차 전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국은 시련을 겪고 있으며 우리 민

《조선봉건왕조실록》

족이 이룩한 모든 귀중한것들이 위협에 처해있다고, 민족의 귀중한 재보를 조국과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혁명가들이 구원하지 않고 누가 구원하겠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구출해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부의 작전도에 《조선봉건왕조실록》구출로정이힘있게 그어졌고 전선으로 내달리던 군용차가 수송기재로 돌려졌다. 해당 기관, 군부대들에 《조선봉건왕조실록》구출작전을 잘 보장해줄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서가 하달되었다.

그리하여 전쟁의 동란속에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먼지 쓰고 나딩굴던 《조선봉건왕조실록》은 드디어 구출되었다.

그 보고를 받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부에 다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시오.》

하여 《조선봉건왕조실록》은 최고사령부 《문서고》에 보관되었고 3년간 극비작전문건들과 함께 무장경호를 받게 되었다.

력사에 류례가 없는 희한한 일이었다.

평론

성인과 그리움

최길상

그리움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감정, 아름다운 정서이다.

지금까지 인류문학은 무수한 그리움의 세계를 형상의 갈피에 새겼다. 인간생활의 모든 소중한 것에 대한 그리움의 크고작은 감정이 못 인생의 수많은 생활이 깔려있는 작품에서 중요한 정서적 색조로 되어왔다.

그러나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에 반영된 그리움의 서정은 지향의 숭고성과 확고성, 정서적울림과 여운에 있어서 다른 모든것과 대비할수 없는 성스럽고 고결한것이다.

그것은 그리움의 발현에서나 세기와 열도에서, 그리움이 안아오는 위대한 변혁과 창조에 있어서 그 심원한 미학적의미를 새롭게 안겨주는 혁명의 성인에 대한 미증유의 그리움이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는 민족의 아버지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뜻밖에 잃은것이 너무도 절통하여 온 겨레가 땅을 치며 몸부림치고 세계 수십억인민들이 우리와 함께 슬픔에 잠겼던 그날로부터 1돛과 2돛이 되는 때에 시인 김만영이 불타는 충정으로 창작한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절통한 7월을 맞으며 혁명의 성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뜻을 달고 서사시들의 서정세계를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1. 김일성민족의 민족적감정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에 굽이치고 있는 그리움의 서정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에 원천을 둔 김일성민족의 고결한 민족적감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령을 흠모하고 받드는 사상감정과 정신도덕적품고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들과도 대비할수 없이 고상한 인민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민족의 충성심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오랜 역사적과정에 실지 체험을 통하여 신념과 의리, 량심과 도덕으로 굳어진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싸워 온 현대조선의 력사는 격동하는 20세기의 풍운속에서도 가장 험난한 길을 거처온 투쟁의 기록이었다.

우리 인민은 남들같으면 몇번이고 다 망하고 말았을 그 파란만장의 길에서 나라의 존망, 민족의 생사가 판가름되는 위기와 혁명의 승패가 좌우되는 난국을 수없이 이겨내고 재생의 길, 번영의 활로를 열어 제겼으니 이 위대한 기적을 이룩하여주신분이 바로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서사시들에서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성업에 모든 예지와 담력, 정력과 애정을 다 쏟아부으시여 우리 인민을 망국민족의 참화에서 구원하시교 룡성번영의 상상봉에 이끌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의 로고를 뜨겁게 더듬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에서 흘러넘치는 그리움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그리움의 감정과 정서적통일속에서 새로운 형상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만경대의 사립문을 나서시여 얼어붙은 강물은 어떻게 건느시였고 낯설은 이국땅 거치른 들판에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동생을 다 묻고 솟구치는 오열은 어떻게 참으시였으며 백두설령의 눈보라속과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비속을 어떻게 헤쳐오시였는가. 우리의 손에 운명개척의 열쇠를 쥐여주시고 인류의 가슴에 지구를 움직이는 지레대를 안겨주시고 력사의 궤도에 혁명의 기관차를 올려 세우시는 세계사적업적을 쌓으시고도 언제나 우리들과 다름이 없이, 아니 우리들보다 천만배 더 어렵고 힘든 로고와 심혈의 나날을 보내신 우리 수령님, 진정 수령님께서 한생에 이룩하신 위업이 너무도 크고 위대한 것이기에 그리도 조용히 우리에게 오시여서는 세계를 한꺼번에 울게 하고 떠나가신 성인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아버지수령님을 더더욱 잊지 못하고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심장을 불태우는것이다.

서사시들이 분출하는 그리움의 격정은 수령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 수령에 대한 령도자의 그리움이 하나로 융합되어 혼연일체의 감정으로 승화된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서정을 김일성민족의 주도적인 감정으로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

운 서사시들의 특출한 형상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성의 세계에 대한 형상에서 최대한으로 발양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 누구나가 사무치게 안고 있는 전 민족적감정으로서의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최고대표자, 최고체현자는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다. 장군님께서 지니신 그리움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장군님의 비범한 사색과 행동의 기초에 놓여있는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이 땅위에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찬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거대한 력사의 추동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는 자신께서 말하자는 모든 것을 다 반영한 만점짜리 최대의 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두 서사시는 혁명적수령관의 최고높이, 그 누구도 오를수 없는 인간미의 아득한 메부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그리움의 세계를 거대한 폭과 깊이, 최절정의 화폭으로 창조하면서 그이의 내면세계를 웅심깊게 펼쳐보이고 있다.

감당해내기 어려운 슬픔속에서도 불철주야의 사업으로 위대한 령도의 나날을 수놓아오신 몽상기간, 새해 설날이나 뜻 깊은 명절날이나 사연깊은 나날이나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찾고 또 찾으시며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나가실 숭고한 뜻을 거듭거듭 굳히시고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에 겨워 꿈속에서도 수령님과 나란히 험한 초소길, 공장길, 포전길을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이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면 지금 이 시각에도 수령님께서 현지도의 길우에 서계시는것만 같고 전화기에 눈이 가면 금시라도 우렁우렁하신 수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으시여 수령님의 집무실을 찾아 전화기를 드신적이 그 얼마였든지, 수령님을 찾으시는 장군님께 아무 말씀도 못올리고 목메여 흐느끼는 교환수처녀에게 무너져내리는 억장을 다시금 누르시며 안됐소. 교환수동무, 정말 안됐소 하고 오히려 교환수처녀를 위로하시는 장군님의 숭엄한 영상을 우리르며 격정의 눈물속에서 우리가 받아 안은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숭배의 감정은 아직 수천년 인류문화이 대상하고 형상해보지 못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경모의 감정이며 고결한 인류도덕의 전혀 새로운 인간세계이며 무한한 세월과 더불어 인간미의 최고높이로 영원히 칭송되리라 하는 확고한 신념이다.

여기에 바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에 구현된 그리움의 서정의 새로운 미학적의미가 있다.

2. 그리움과 영생의 신념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의 그리움의 서정은 수령영생의 신념을 안겨주는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서정은 감정과 사상적인 지향을 결합시킨 형상적사유의 산물이다.

서사시들에서 팽배하게 굽이치는 그리움의 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영생의 철리를 밝히는데로 줄기차게 지향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리움속에 영생하신다. 이것이 그리움의 서정이 안겨주는 새로운 미학적의미고 본질적특징이다.

사상도 인민을 위한 사상, 령도도 인민을 위한 령도, 품모도 인민을 위한 품모를 그대로 지니고계시고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여 수령님은 오늘도 인민의 심장에 고통을 주시며새 세기를 향해 걸어가신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를줄 모르는 충성의 샘으로 하여 영생하신다는것이 서사시들을 관통하고 있는 그리움의 정서가 울려주는 신념의 메아리이다.

이 강렬한 서정의 여운과 함께 우리에게는 하나의 감동적인 화폭이 뜨거운 걱정속에 숨엄히 떠오른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절정부분의 중앙추모대회 장면.

우리 장군님께서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시였으나 위대한 령도자의 심장은 수령에 대한 뜨겁고 격렬한 정서의 박동으로 고동치면서 시대와 력사, 민족과 엄숙한 교감을 하신다.

《모든것을 수령님식대로,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세계가 우리 장군님께서 어떤 정치를 펴시겠는가를 주시하고 있던 때에 수령님의 위업을 100% 계승하고 100% 고수해나가시려는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의지를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듣고 있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그리움속에 영생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심장에 새겨안았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하루일을 시작하시고 천리 먼 전선길을 시찰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서도 푸름푸름 밝아오는 저기 저 언덕 봄빛이 비치는 저만치에 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달렸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생각하시고 평양역의 시계탑을 바라보시고는 밤은 깊었지만 거리를 한바퀴 돌아보자고 하시던 수령님의 모습을 그려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개선문앞에서는 평양은 꽃의 평양이라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수령님의 그 미소를 경건한 마음으로 안

아보시고 향산도로가 완공된 그날에는 선뜻 도로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며 한평생 언제나 험한 길 걸어오신 수령님께 편한 길을 드리자고 했는데 수령님을 모시지 못하니 가슴이 저리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서사시들에서 웅심깊게 일렁이는 그리움의 서정세계에 심취될수록 우리의 심벽을 두드리는 그것은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어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불패의 진리성과 생명력을 지니고 필승의 한길로 전진하고 있으며 그이께서 계시어 수령님은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류와 함께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신념이다. 이것이 바로 서사시들에 구현된 그리움의 서정의 총화, 그 귀결이고 총적지향이며 그로 하여 발휘되는 서정의 생명력이다.

3. 그리움은 대를 이어

혁명의 성인에 대한 그리움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시대와 인민의 사상의지의 발현이다.

우리 인민이 소중히 안고 있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결코 수령님의 한생에 대한 감동깊은 추억만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숭고한 모습에 대한 자애깊은 표상만이 아니다. 그것은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러 모시고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불같은 맹세이고 굳센 의지이며 드림없는 실천이었다.

이러한 시대와 인민의 사상의지가 경대하는 장군님의 그리움속에 응축되어 있다. 오직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우리 인민을 이끌고 우리 조국을 빛내이시려는 철석의 의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일관하게 굽이치고 있는 사상감정이다. 그것은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였고 담력과 기상이었고 비범한 예지와 원대한 구상이었으며 혁명적변혁을 가져온 위대한 실천이었고 랑만의 장엄한 굽이침이었다.

사람들이여, 우리 서사시의 감동적인 화폭을 다시 펼치자.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가슴저린 새해의 그 아침에 신년사를 하시는 수령님의 영상과 육성을 방송과 텔레비존으로 다시 내보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으며, 내가 잠을 덜 자고 내가 휴식을 덜 해야 우리 수령님께서 영생하신다고 하시며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장군님께서 낮과 밤을 이어가시던 그 나날에 세계는 무엇을 보았던가.

그 나날속에 금수산기념궁전이 세상을 경탄시키며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러지고 영원히 변색을

모르는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상이 밝게 빛났고 수령님 생전에 구상하신 또 하나의 금릉동굴과 청류다리, 향산도로와 룡문대굴, 안변청년발전소의 물길에 새로 열리고 당창건기념탑이 웅장하게 솟아났거늘.

수령님께서 생전에 구상하신 그 모든것을 위하여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 밟으셨던 이 나라의 발이랑들과 구내길을 다 밟으시고 수령님께서 오르셨던 이 나라 고지들을 다 오르시고 수령님께서 만나셨던 이 나라 인민들을 다 만나시여 나라일을 의논하시고 마음을 나누시거니, 우리는 사상도 령도력도 인덕도 위대한 **김일성** 동지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뵈었던것이다.

이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나라들의 사회주의가 무너진 정치지진속에서 원수들이 패재를 올리고 자주적인류가 비판에 잠겨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00일 추모를 마치신지 얼마 안되는 상실의 크나큰 아픔속에 계시면서도 수령님의 최대의 유산이며 필생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해야 할 시대의 엄숙한 요구를 안으시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라는 불멸의 로작을 집필하시여 이 땅에 영원한 태양의 역사를 즐기치게 굽이치게 하실 위대한 선언을 하시었다.

그렇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성스러운 혁명실록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과 실천활동속에 수령님의 역사는 즐기치게 계속되고 새 세기에 빛나는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도 밝아오는것이다.

이것이 서사시들이 시대와 역사앞에 토로하는 사상정서적주장이다.

두편의 작품은 수령형상서사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김정일** 시대 선군혁명문학의 산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는 다른 시들보다 단수가 높고 철학성이 있으며 구성자체가 폭이 넓고 주체적대가 확고히 섰다고 하시면서 작가가 **《금수산기념궁전앞에 섰노라》**, **《책장 번지시는 소리도 들릴 듯》**이라는 시구를 쓴것을 보면 시적환상이 대단하다는 최대의 평가를 주시었다.

서사시들은 혁명의 성인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선을 기본줄거리로 하여 형상의 범위가 넓고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구도밀에 창작되었으며 중형무진의 시적환상으로 수령과 령도자의 심중에 대담하게 들어 서서 그 내면세계를 웅심깊게 개방하고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감동 깊게 펼쳐 보이고 있다.

시적정황과 강한 극성, 심오한 철학성의 구현과 정론적분석의 추구, 정서적고조의 매 계기들마다에서 분출하는 시적격조의 예리성 등 구사된

모든 형상수법들이 수령에 대한 그리움의 미학적 서적본질을 밝히는데로 지향되면서 그것을 열화같은 숭배와 충성심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성인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위대한 태양에 대한 념원이며 사랑과 경모, 매혹과 순정, 숭배와 신념, 가장 고결한 인간미의 총체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주의민족문학의 영원한 서정의 원천이며 선군시대 강성대국의 풍만한 사상정서적 자양분이다.

시대의 감각체이며 시대정신의 축수인 우리 작가들은 **김일성**민족의 최고전형인 위대한 장군님의 정서를 자기의 모든 세포로 만듦으로써 그것이 21세기 우리 문학의 사상감정으로 더욱 줄기차게 흘러넘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군시대 우리 작가들에게 시대의 긴절한 요청으로 부과되는 가장 영예롭고 무거운 임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자.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문학령도주요일지

○ 주체39(1950)년 6월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작가들의 전선종군에 대한 강력교시를 주시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친필존함이 모셔진 신임장을 받아안고 소설가, 시인, 극작가 등 49명의 작가들이 종군의 길에 올랐다.

○ 주체39(1950)년 8월 5일,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고 전시문학예술창작에 대한 강력적가르치심을 주시었다.

○ 주체39(1950)년 8월 9일 화선천리 불비속을 헤치고 전선사령부에 나가신 수령님께서서는 전선사령부 군사위원에게 전선부대들에 많은 출판물을 보내주며 특히 전사들을 위한 시집을 만들어 보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시인 박팔양을 비롯한 종군작가들로 시집 편집조가 무어졌고 서울《경향신문사》인쇄공장에서 첫 시집이 출판되었다.

○ 주체39(1950)년 10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과학자, 기술자, 문학예술인들을 보호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그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나날에 그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었다.

○ 주체39(1950)년 11월 11일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전체인민을 전쟁승리로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 주체39(1950)년 12월 24일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고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담화를 하시었다.

○ 주체40(1951)년 2월 7일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이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기념일을 경축하는 예술공연을 지도하여 주시었다.

○ 주체40(1951)년 3월 11일~1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와 남조선문화단체총련맹 중앙위원회 연합회의를 열고 두 단체를 전조선적인 단일한 조직으로 합동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새로 내오도록 하시었다.

○ 주체40(1951)년 6월 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편서사시 《강철청년부대》를 지도하여 주시었다.

○ 주체40(1951)년 6월 30일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들과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력사적담화를 하시었다.

○ 주체40(1951)년 12월 1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계청년학생예술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예술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우리 예술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강력적연설을 하시었다.

○ 주체40(1951)년 12월 12일.

수령님께서서는 준엄한 시기에 문학의 새싹들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키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 주체41(1952)년 1월 1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총정치국에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의 협의밑에 작가들을 동원하여 영웅들의 전투기를 쓰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웅전투기집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심오히 밝혀주시었다.

조국해방전쟁기간에 《영웅들의 전투기》 16집을 발간하였다.

○ 주체41(1952)년 8월 1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동군 송학리에서 작가들을 만나주시었다.

○ 주체42(1953)년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내각결정 제6호로 조선인민군창건기념 문학예술상을 제정하여 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수령님과 문학

리진철

7월의 하늘가에 해빛이 눈부시다.
대지는 뜨겁게 달아 오르고 산천초목은 푸르려 설레인다.

뜨거움과 푸르름으로 충만된 강산에 영생축원의 대하 굵이쳐 흐르는 7월의 이 아침.

심장속에 가득차오르는 그리움으로 책상우에 하얀 종이를 펼쳐놓고 태양칭송의 붓을 삼가 든 우리 작가들의 가슴에도 7월의 햇빛은 따스히 흘러들어 추억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수령님과 문학!

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말인가.

시대마다 위인이 있고 나라마다 령도자가 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문학이란 말이 그리도 친근하게, 그리도 가깝게 어울리는 그런 정치가를 우리는 모른다.

한생을 서재에 앉으시여 원고지우에 붓을 달리신 분도 아니시건만...

오히려 붓이 아닌 총대를 드시고 아늑한 서재가 아니라 만주광야의 눈보라 만리, 전화의 불길 만리를 헤쳐오신분, 재가루만 날리는 폐허우에 락원을 일떠세우시려 겨울에는 보풀이 인 한겹외 투에, 여름에는 수수한 농립모에 세월의 모진 눈비와 폭양을 다 맞으신분이시다.

했건만 수령님의 한생에 문학이란 말이 그토록 잘 어울리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한갈피, 두갈피 추억의 폐지를 번지여 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의 노래가 울린다.

감감한 조선의 밤하늘가에 한줄기의 밝은 빛발로 퍼져갔던 **《조선의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아침해빛 아름답고 은금보화 넘치는 삼천리금수강산 내 나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내 조국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가슴 부풀어지고 하루빨리 강도일제를 이 땅에서 내쫓고 인민의 새세상을 기어이 일떠세울 각오와 의지로 심장이 끓게 하는 **《조선의 노래》**.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첫 노래이다.

민족의 운명이 바람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던 절망의 그 세월 그 누구보다 애국열이 높고 민족사랑, 혈육사랑이 뜨거운 이 나라의 작가들마저 가버린 님을 애타게 부르고 부르다 끝내 붓대마저 꺾을 때, 그래도 한때는 문장가로 애국자로 자처하던자들이 수난의 길을 걷는 조국을 두고 조선이여, 너는 왜 남들보다 크질 못했느냐, 너는 왜 남들보다 튼튼질 못했느냐, 아, 너는 왜 남들보다 잘나질 못했느냐고 한탄만을 퍼붓다 못해 수치와

비굴의 먹물에 붓을 찍어 제 조국마저 팔아버릴 때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꺼져가는 조국의 숨결에 활력을 부어주시며 애국의 첫 송가를 지어 부르신것이다.

조국송가는 아무나 짓는것이 아니다.

하나의 애뜻한 자장가에도 영웅동, 해방동의 큰 뜻을 담았고 한그루의 소나무에도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을 억센 인간의 의지와 절개를 담았던 만경대가문.

만경대가문의 그 유명한 《자장가》가 우리 수령님의 숨결이 되었고 찬 눈을 무겁게 떠이고도 양춘을 불러 그 기상 굳세던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우리 수령님의 의지로 자랐으며 영웅남아의 웅건한 뜻이 력력히 맥박치던 《진전가》가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심장의 박동이 되었다.

애국애족으로 열렬한 만경대가문의 냇을 천품으로 타고 나신 수령님이시기에 10대의 나이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려 손에 총을 잡으시였고 총을 잡은 열혈의 그 심장은 5천년력사가 알지 못하는 **《조선의 노래》**를 격조높이 터칠 수 있었다.

《조선의 노래》!-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신 위대한 애국자의 선서와도 같은것이였다.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쳐부시자면 총을 잡아야 했고 그 총대의 총성은 애국의 냇이여야 했던것이다.

이렇게 문학과 인연을 맺으신 수령님이시고 총대와 함께 문학은 수령님의 투쟁의 길동무였다.

혁명의 씨앗도 수령님의 문학에서 뿌려졌고 항일대전의 불길도 수령님의 문학에서 타올랐으며 해방의 새 아침도 수령님의 문학에서 밝아왔다.

설움의 꽃바구니를 혁명의 꽃바구니로 바꾸어 안은 꽃분이가 가는 곳마다에서 혁명의 꽃씨앗을 뿌리며 설움많은 사람들에게 투쟁만이 살길임을 가르쳤고 단신으로 적장 이등박문을 쇠죽이고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련사 안중근이 피의 교훈을 안고 길림과 고유수, 카툰의 무대들에 뛰어올라 민족의 참된 령수를 목메여 불렀다.

룡상 하나를 놓고 서로 물고 뜯으며 개싸움을 벌리다가 하나밖에 없는 그 룡상마저 끝내 마사 먹은 세 정승의 역겨운 몰골앞에 분렬과 파쟁으로 력사에 피칠을 하던 수치스러운 세월이 얼굴을 붉혔고 국권을 회복하러 남의 나라땅에까지 찾아갔다가 끝내는 약자의 설움에 칼을 박아 자결한 리준이 창자가 터진 몸으로 수천만리를 다시 달려 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임을 피터지게

교훈했다.

무지와 몽매로 세상에 속히워 살던 한 아버지에게 온 딸의 편지가 이 나라 천만 아버지들에게 무식은 암흑이요, 지식은 광명임을 가르쳤고 지 지리도 천대 받는 그 신세 팔자탓이라 그 팔자를 고쳐 달라고 썩어 빠진 장승앞에서 빌고 또 빌고 그렇게 빈덕에 외동딸을 팔아야 했던 불쌍한 어머니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돌쇠의 손에 이끌려 머리속의 성황당을 깨버리고 자기자신과 자식의 운명을 제손에 틀어쥔 억센 어머니들로 자라났다.

숨져가던 민족의 심장이 다시 높뛰기 시작했고 사라져가던 조선의 낮이 머리를 쳐들었다.

수령님의 문학이 이들을 깨운것이다.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을 일궈 세워 그 어깨 위에 총을 메워주신 수령님앞에 아직도 시련의 가시밭길은 그 얼마나 멀고 험했으며 고난의 언덕은 또 얼마나 높고 가파로왔던가.

우리의 추억속에 하나의 화면이 흘러간다.

눈보라 사나운 천교령의 엄혹한 눈길로 한대의 발구와 몇몇의 총엔 사람들이 흘러 간다.

곤질진 놈들의 추격과 덮쳐드는 기아와 추위...

그 무슨 불행을 안았는가, 얼마전까지도 무섭게 불을 뿜던 총대들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고...

가슴저린 흐느낌을 끌고 힘겹게 걸음 내짚는 발구우에 의식을 잃으신분은 아, 민족이 운명의 기둥으로 떠받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무심쿠나, 력사여!

어떻게 일어난 조선이길래 이렇게 쓰러진단 말인가!...

흐르니 눈물인가, 피방울인가.

《장군님... 눈을 뜨십시오!... 이대로 쓰러지면 조선이... 조선이 죽습니다... 장군님!...》

피터지는 부름소리에 눈보라도 목메여 푸-푸-서리발 한숨을 내쉬며 후두두- 백설을 쥐어뿌린다.

했건만 우리 수령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조금이라도 편히 누워 계시고 싶으셨다. 그런데 그 누군가들이 자꾸만 흔들어 깨운다. 수령님의 안팎에 눈물에 젖은 빨찌산대원들의 모습이 안겨온다. 수령님 흐려지는 의식을 가다듬으시며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자 요란스레 들려오는 일체의 말발굽소리, 그 말발굽소리가 지나간 곳마다에 불길이 치솟고 총칼에 찢리운 사람들의 비명소리 가슴을 에인다.

나의 부모 너의 형제 그대의 처자를 도살하는 저 불길, 나의 집과 너의 발을 황무지로 만드는 저 불길, 그 불길을 자신께서 막으셔야 했다.

일어나야 한다! 기어이, 기어이!

수령님의 심장이 뚫어올랐고 뜨거워진 심장의

박동은 노래로 울려나왔다.

혁명에 다진 굳은 맹세 변치 않을 심장의 목소리에 대원들이 눈물을 거두었고 붉은기아래 백색테로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부르자는 수령님의 선창에 대오가 합창하며 따라섰다.

쓰러졌던 혁명이 노래를 부르며 다시 일떠섰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결사적인 책임감이 병마를 이기게 했고 불굴의 심장이 터친 《반일전가》가 천만인민을 일제와의 판가리대결전에 일떠세운것이다.

《반일전가》의 피끓이는 선율속에 항일혁명문학의 새 시대가 펼쳐졌고 항일혁명문학의 열풍속에 수천수만의 혁명가들이 자라나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반일전가》의 우렁찬 합성속에 수많은 혁명가 요들이 태어나 빨찌산대오는 혁명군가의 대오로 자라났으며 혁명가요는 총탄과 함께 적진에 날아들어 원수들을 전율케 했다.

대가리를 쳐들면 날아오는 총탄에 《학춤》을 취야 했고 대가리를 치박으면 혁명군가의 메아리에 사지가 뻗뻗해져야 했던 왜놈들이다.

뒤걸음질을 치려니 《야마도정신》이 사정없이 군도를 휘둘러댄다. 악이 오른 놈들은 사타구니에 대가리를 치박은채 무작정 총질을 해대더니 《도쓰께끼》의 악창속에 최후발악전을 벌린다.

허나 그 발악전에 녹아난것은 《천황폐하 만세》뿐이요, 하늘로 올라나, 땅으로 잤으나, 빨찌산이 부르는 《아리랑》만이 긴 여운을 남기며 저 멀리 산봉우리로 넘어간다. 이 모두를 통쾌하게 굶어보시는 수령님의 사색속에는 벌써 풍자극의 줄거리가 뻗어갔고 그 대본의 주역을 맡은 《패전장군》들이 《열성》을 부르며 성시에 《경축대회》를 요란스레 벌려놓는다.

했건만 《공산군》소탕전에서 용감하게 《전사》한 경찰서장너편네의 곡성만이 커가는속에 이 일을 어찌하랴, 죽었다던 경찰서장이 살아서 돌아오고 《토벌대》의 포탄세례에 녹아난것은 《공산군》이 아니고 경찰대라는 사실이 드러나 놈들사이에 개싸움이 벌어진다....

연극은 성과적으로 막을 내렸다. 관중은 연극의 《주역》들에게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진짜 경축대회를 본것이다.

개싸움을 벌리는 《토벌장군》들의 물결이 곧 《무적황군》의 비참한 신세요, 왜년의 곡성이 곧 관속에 누운 《야마도정신》을 조상하는 사무라이들의 처참한 비명이라. 기가 막힌 풍자였다.

풍자는 강한 심장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황군》의 기세는 《창해》이고 빨찌산의 존재는 《일숙》이었지만 수령님의 문학으로 하여 《일숙》이 《창해》를 뒤흔들며 멸망의 그날을 앞당겨왔으며 인민들은 해방의 그날을 눈앞에 바라볼 수 있었다.

조국해방의 총대에 총성처럼 울리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폭풍쳐 달려온 수령님의 문학!

노예로 숨겨가던 인민에게 자주적인간의 참된 길을 가르쳐주고 가버린 님을 찾는 애달픈 노래만이 흐르던 이 땅에 혁명의 거세찬 열풍을 몰아온 백두산문학!

위대한 문학의 그 세계에 뜨겁게 흐른 주제가는 무엇이었던가.

오늘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생의 마지막시기 80고령의 우리 수령님 작가들 앞에서 열정에 넘쳐 부르시던 **《사향가》**를!

달밝은 밀영의 그 밤엔 심장과 심장들을 뜨거운 조국애로 끓게 한 그리움의 노래였고 시련과 고난의 첩첩산악을 넘어 한치한치 진군해가던 행군길에서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행진곡이었으며 적탄이 비발치는 격전장에선 용맹과 필승의 기세높은 전승가로 울리었던 **《사향가》**.

애국애족의 념이 굽이치는 이 **《사향가》**를 부르며 조선혁명군은 걸음걸음 승리를 떨쳤고 이 **《사향가》**를 부르며 피의 만리, 사선의 만리길을 헤쳐온 이 나라의 장한 아들딸들이 드디어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그리운 산천에 돌아왔다!

아, 얼마나 밝고 깊었던 땅이었고 얼마나 안기고 싶었던 조국이던가...

허나 해방의 그 밤. 우리 수령님 백두의 풀물오른 배낭을 목침처럼 베시고 잠자리에 누우시였던만 도저히 잠을 이루실수가 없었다.

눈물을 짹짹 흘리며 해방만세를 부르는 민족의 가슴은 얼마나 앙상하였고 결친 옷자락은 또 얼마나 람루하였던가. 만시름놓고 깊은 잠에 든 조국의 모습도 온통 상처투성이였다.

일제를 내쫓은 이 땅에 인민의 새 세상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 해도, 붉은기 높이 제국주의의 숭통을 영영 끊어놓고 승리의 만세 높이 부르려 해도 문학정신은 더 강해져야 했고 문학의 세계는 더욱 넓어져야 했으며 문학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야 했다.

해방된 땅에서 또다시 **《사향가》**를 부르시며 잠 못이루신 수령님.

새 조국건설의 거창한 위업수행에 앞장서야 할, 시대의 선각자, 건국의 기수가 되여야 할 작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더듬어보시던 그 밤.

우리 수령님의 감회는 몹시도 깊으시였다.

항일전의 그 나날 우등불가에서 신문과 잡지들을 번지시며, 또 조국땅을 넘나드는 공작원들로

부터 조국의 소식을 들으시며 하나하나 새겨두신 이름들이다.

노래 하나 쓰시고 연극대본 하나씩 끝맺으실 때마다 무릎을 마주하고 조언도 듣고 싶으셨고 문학의 세계를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이름들이다.

어둠속에 빛을 찾아 등불에도 서슴없이 날아들며 그토록 험악한 세상에서도 넓어지지 않은 량심을 지키려 몸부림치던 이름들.

그 이름들이 일제의 발길에 채우며 포승을 지고 감옥으로 끌려갈 때, 그 이름들이 침략자의 더러운 손에서 먹칠을 당할 때 누구보다 가슴아파 잠못드시던 수령님이시였다.

그래서 조국진군의 신들미를 바싹 조이시고 해방에로의 길을 재촉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고 해방의 그날에는 빨찌산감발을 푸실새없이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걸으시며 길가의 락엽갈던 작가들을 한사람 한사람 품에 안아 언문을 녹여주신 우리 수령님 아니시였던가.

그처럼 문학을 사랑하시고 중시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나라 작가들은 한갓 문인이 아니라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벗이 되었고 혁명의 길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로 되었다.

그처럼 작가들을 믿고 아끼는분이시기에 작가들이 뜻밖에 오유를 범했을 때에는 그 작가보다 더 가슴아파하시며 밤을 지새우시였고 잘못된 작품은 버릴수 있어도 작가는 절대로 버릴수 없다시며 정치적생명과 함께 작가적생명까지도 다 지켜주신것이다.

어이 다 말하랴. 《애국가》로 시작된 수천편의 노래들과 《내 고향》과 《땅》으로 시작된 수백편의 영화와 소설들에 바쳐진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의 역사를!

지금도 눈앞에 삼삼히 어려오고 귀가에 쟁쟁히 들려온다.

해방후 이처럼 어려운 때 우리 수령님 작가들에게 손수 배정해주신 살림집들과 그 대문을 열고 들어서던 사랑의 옥백미가.

그 나날에 새삶을 받아안은 작가들의 첫 얼굴인 《문화전선》창간호를 맨 선참으로 보아주시던 수령님의 그 영상이.

작가들을 자주 몸가까이 부르시어 빨찌산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심장과 혁명에 대한 충성의 념을 키워 주시고 때로는 자신께서 아시는 투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보이시며 참된 인간의 전형들로 기억 해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친근한 그 음성이!

정녕 수령님의 품에 안겼기에 이 나라 작가들은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눈속에서도 얼지 않는 열의인, 정의인, 신념인이 되여 건국의 터전과 전화의 불비속, 재가루 날리는 건설의 기초우에 우뚝 서 수령찬가, 애국송가, 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우리는 혁명시인, 애국작가로 자랄수 있었으며 수령님의 품에서 문학의 세계를 배우고 인생의 참된 리치를 터득한 우리 작가들이기에 인민들은 작가들의 목소리를 투쟁의 길동무, 생활의 교과서로 받아들이며 이땅의 존엄높은 주인으로 자랄수 있었다.

그렇다! 노예로부터 자주적인간으로 자라나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영웅인민이 바로 우리 수령님 한평생 쓰신 대장편소설의 주인공이었고 두번이나 채더미를 털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솟아난 내 나라의 력사가 그대로 우리 수령님 이 땅에 쓰신 대장편서사시였다!

붓을 놓을수 없는것이 작가이고 더더욱 끊어오르는것이 위인의 심장이다.

오늘도 높이 울리고 있다.

천하제일명승 묘향산에 세상의 가장 뜨거운 마음들이 쌓아올린 국제친선전람관의 로대에서 태어나 로동당시대의 존엄과 례찬으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진 《묘향산가을날에》!

강산에 넘치는 축원의 마음들과 인류의 마음속에 굽이치는 위인칭송의 열하에 붓을 찍어 태양민족의 영원무궁함과 21세기의 장엄한 탄생을 세상의 하늘가에 아로 새긴 《광명성찬가》!

정녕 승리에서 승리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력사는 그대로 우리 수령님의 문학의 력사이며 내 조국의 존엄과 긍지의 높이는 우리 수령님의 문학의 높이이며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숭고한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는 바로 우리 수령님의 문학의 세계이다.

세상에 문학의 방조로 력사와 혁명의 한결음을 전진시킨 정치가는 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직접적인 문학창작으로 인간해방, 민족해방이라는 성스러운 력사를 창조하신 그런 정치가를 우리는 모른다.

종류와 양상에 있어서 끝없이 다양하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무한히 감동적이고 혁신적이며 흐

르고 있는 정신세계와 진리의 높이에 있어서 가장 눈부신 수령님의 문학.

환희와 기쁨으로 씩씩하고 해학과 풍자로 랑만에 넘치고 사랑과 증오로 열렬한 수령님의 문학.

이 문학으로 인민을 키우고 조국을 이끌어 장엄한 주체시대를 창조하신 아버지수령님이시야말로 진정 작가들의 세계를 다 합쳐도 그 높이에 이르지 못할 대가중의 대가, 문호중의 문호, 성인중의 대성인이시다!

태양문학의 력사는 오늘도 줄기차게 흐른다.

아버지수령님의 문학사상과 세계를 가장 완벽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문학예술의 영재 **김정일**장군님!

《남산의 푸른 소나무》로 시작되어 《조선의 노래》로 숨결 뜨거운 만경대가문의 문학력사는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웅장한 메아리로 세상의 하늘가를 가득 채우며 강성대국의 붉은 노롤로 펼쳐진다.

항일의 혈전만리길에서 태어난 혁명가요들이 오늘은 최고사령부의 야전차에서 선군시대의 우렁찬 진군가로 더욱 장엄하게 울려나오고 있으며 수령님의 문학이 키운 20세기의 주인공들이 오늘은 선군문학의 열풍속에서 21세기의 선군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태양민족의 영원무궁으로 줄달음쳐가고 있다.

선군령장의 슬하에서 우리 작가들도 붓대로 선군위업을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기수, 종군작가로 성장하였으며 우리 작가대오는 그 어떤 폭풍과 퇴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예부대로 되었다.

영광이여라! 대대로 문학의 영재를 모시여 복받은 이 나라 작가들의 행운이여!

7월의 강산에 해빛이 눈부시다.

태양의 빛발속에 더더욱 창창할 래일을 굽어보는 우리 작가들의 심장 세차게 뛴다.

명언해설

《재능보다 더 귀중한것은 정열적인 노력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재능이 있어도 정열적인 노력이 없으면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재능은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밑천이다. 그러나 재능으로 만사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정열적인 노력이다.

피타는 노력이 재능을 낳고 천재를 낳는다. 그래서 예로부터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선천적인 재능보다 꾸준한 노력이 더 귀중하며 더 큰 은을 낸다는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력해서 안되는 일이 없고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일이란 없다.

취재를 하지 않고 취재를 끝낸 외국기자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한 외국기자가 최고사령부에 찾아왔다.

《김일성 동지를 만나게 해주시오.》

미제의 대규모적인 《신공세》와 관련하여 금후 전쟁의 전망은 어떠하겠는가.

그의 관심사는 이것이었다.

《미안하지만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우리 일군의 말에 그는 혼연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이께서 얼마나 바쁘신가를 자기도 잘 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았다.

은연중 서려드는 긴장감을 누르며 그이께서 계시는 방안에 들어선 그는 예상외로 조용한데 놀랐다. 넓은 방 한쪽에 놓인 작전대앞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시어 무엇인가 보고 계시였다.

그런데 그이의 옆에 한 병사(전장을 보니 분명

한줄배기 병사였다.)가 서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안내일군이 지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의 학습정형을 검열하고 계신다고 속삭이듯 알려 주었다.

기자는 땀해 졌다. 학습검열이라니?...

《앞으로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공부하러 떠나 보낼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학습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렇다면, 그이께서는 이미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계신다는것이 아닌가!

편뜻 정신이 든 그는 곧 발소리를 죽여 가며 조용히 되돌아 나왔다.

뒤따라 나온 우리 일군이 왜 그러느냐고 묻자 그는 웨치듯 말했다.

《됐습니다. 나는 이미 취재를 끝냈습니다!》

우리의 7.27

권오준

7.27

이날은 비발치는 탄우에
두팔 두다리를 잃은 불사신영웅이
수류탄을 입에 물고 맞이한 날이여라

또 나어린 간호원처녀가
단발머리 날리며
달려드는 적땅크밑에서
한치한치 당겨온 승리의 날이여라

정녕 세월이 싣고 온 7.27이 아니거니
우리의 7.27은
포화속의 영웅들이
걸음걸음 피로써
오늘에로 밀고 온 승리의 날이여라

영웅의 봉우리
1211고지가 머리우에 떠이고 있는 이날을
원수들은 제일 두려워 하거니
보아라
6.25 그날의 순박한 사람들이
7.27의 대돌우에
영웅의 군상으로 서있지 않는가

로병들의 훈장으로
눈부신 날이여라
7.27 이날은 정녕

그 훈장들로 지켜낸
이 땅의 웃음들이
봄빛처럼 흐르는 날이거니

총대로 받들어 올린 7.27이 아니라면
드넓은 이 행성은
핵구름에 덮였을것이리니
6.25의 검은 구름속에
인류는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랴

7.27
이날은 승리한 조선의 날만이 아니여라
평화로운 세계의 하늘가에 날아드는
전쟁의 불구름을
우리의 영웅들이 목숨걸고
산산이 조각낸
인류의 명절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기에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7.27은
만대에 승리를 전하는
영원한 조선의 날,
하기에 이날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승기념탑의 영웅들과
삼가 눈빛을 맞추는 날이여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공화국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위대한 선군사상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중에서

평론

선군의 위력을 심오하고 진실하게 형상한 시대의 명작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총대》에 대하여-

장형준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총대》(박윤작)는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되고 그 선군위력에 의하여 미제의 무력압살기도가 산산이 깃부셔지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 선군시대가 어떻게 동터왔는가를 깊이있고 폭넓게 보여준 작품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병사들을 찾아 전선길에 오르시여 인민군대를 무적강군으로 키우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는 선군령장의 위대한 품모와 선군령도의 그 자욱자욱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펼쳐보이는 선군시대의 장엄한 영웅서사시!

오늘 이 장편소설이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것은 최고사령관동지의 형상과 선군령도의 화폭이 심오하고 진실하며 작품의 종자와 성격, 생활묘사에서 새로운것이 강하게 느껴지기때문일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 심오성과 함께 작가의 새로운 시도, 형상의 독창성에 대하여 주되는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

△ 선군령도의 묘사와 작품의 종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무력을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야말로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며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우리 시대, 우리 혁명의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작가는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인 선군사상과 다박술초소에 대한 력사적인 현시지찰로부터 시작된 선군력사에 대한 깊은 연구에 기초하여 장편소설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폭넓고 심오하게 형상하였다.

작품에는 강행군의 해로 력사에 기록된 주체87(1998)년의 력사적사변들과 사건들이 주로 그려져있다.

작가는 선군령도의 생활력이 높이 발휘된 이해

의 력사적사변들과 생활을 폭넓게 묘사하면서 군력강화에 주력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령도를 기본으로 형상하였다. 작품의 사상미학적가치는 무엇이 그려졌는가 하는 그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종자를 쥐고 어떻게 형상으로 꽃피웠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이 장편소설의 종자는 우리 장군님의 총대는 바로 병사들이라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 그 격동적인 현실에서 찾아온 이 새롭고 독창적인 종자는 철학적으로 매우 심오하다. 그것은 거기에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이며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철학인 주체사상과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리론실천적총화에 기초하여 창시된 탁월한 선군사상이 구현되어있기때문이다.

총대이자 군인대중이라는 이 철학적인 종자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수호되고 있는가 하는 무게있는 주제가 세워 지고 그에 대한 예술적해명으로서의 작품의 철학적인 기본사상이 밝혀졌다. 그것은 선군령도야말로 사회주의수호와 혁명의 승리,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번영,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힘 있고 가장 올바른 혁명령도라는것이다. 철학적인 종자에 기초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로선, 선군령도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 민족사적 세계사적의의를 형상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한 바로 여기에 이 장편소설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미학적리상이 나래치는 생명력이 있다.

△ 최고사령관의 형상, 선군령장의 위대한 품모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은 어느것을 막론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주인공으로 형상하고 있다.

장편소설 《총대》는 최고사령관을 주인공으로 하여 선군령장의 위대한 품모를 심오하게 정면으로 형상한 혁명소설이다.

7장 53절로 엮어진 이 장편소설에서 최고사령관동지를 직접 형상한 절은 그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그이를 직접 형상하지 않은 절에서도

모든 인물들이 다 최고사령관동지와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그려지고 그의 위대성형상에 바쳐지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수령형상작품의 생리에 맞게 최고사령관을 주인공의 위치에 확고히 내세우고 그이를 중심으로 이야기줄거리와 인간관계를 엮었으며 선군령장의 위대한 품모와 선군령도의 위력을 형상하는데 모를 박았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에 이어 강행군길에 오른 그때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대두한 미제는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고 발악하며 경제붕쇄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앞에는 현실적인 전쟁위협이 닥쳐왔다. 이 준엄한 정세속에서 어떻게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하며 무슨 힘으로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승리할수 있겠는가?

최고사령관동지앞에 나선 이 심각한 역사적과제는 이렇듯 혁명의 승패, 조국과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였다.

작가는 혁명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특출한 지위와 역할에 어울리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최고사령관동지의 형상과제로 정중히 제기하고 그의 선군혁명령도를 심도있게 묘사함으로써 선군령장의 위대한 품모를 격이 높게 형상할수 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형상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는 우선 작가가 선군령장의 위대한 성격을 종자의 각도에서 깊이 파고든것과 중요하게 관련된 다.

작품의 종자는 형상을 기초지으며 그 생명을 담보하는것만큼 그것은 등장인물들, 그중에서도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밝혀진다.

총대이자 병사라는 이 새롭고 심오한 종자는 원래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정신적특질에서 받게 된 사상적알맹이이다. 그런것만큼 작가는 이 종자를 튼튼히 틀어쥐고 최고사령관동지를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선군령장으로 형상하면서 병사중시, 병사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 여기에 그의 성격적핵이 내재되어있음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세상에 이름을 떨친 령장과 사령관은 많지만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와 같이 혁명에서 차지하는 군인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을 자신과 같이 믿으며 친혈육처럼 뜨겁게 사랑한 그런 령장, 그런 사령관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뿔레옹은 병사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나도 당신들을 믿겠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나는 병사들을 믿는다, 최고사령관도 병사들을 위해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총대이자 병사이며 총대의 위력은 무장장비의 량이나 질보다도 그것을 다루는 병사들의 사상과 의지, 정치사상적, 군사적준비에 결

정적으로 달려있다고 보신다.

혁명의 승패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총대에, 병사에게 달려있다고 보시는것이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의 투철한 총대관, 병사관이다.

우리에게 선군정치라는 만능의 보검이 있고 그것을 받드는 천만의 병사들이 있는 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러기에 그의 모든 사색과 지향, 사상, 감정이 다 병사들과 잇닿아 있고 그이께서 내놓으신 선군혁명로선도 병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선시찰의 목적도 병사들을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는데 있었고 선군장정의 그 수만리길도 병사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수놓아져 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총대관, 병사관은 그이께서 우리 식의 《현대무기》를 찾아가자고 하시며 병사들을 찾아가시고 동행한 일군들에게 나의 현대무기는 병사들이라고, 그들은 원자탄보다도 강하며 그 어떤 특수무기보다도 더 위력하다고 하신 그 뜻 깊은 말씀과 소형발전소건설에 앞장선 중사 최명진을 대견하게 여기시며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힘, 그것은 바로 우리 병사들이다, 이 병사들이 우리의 힘이며 무기이며 행복이라고 격정을 터치시는 그의 내면심리에서 잘 밝혀지고 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중시, 병사사랑의 사상정신적품모는 그이께서 군사훈련의 성과적보장만을 실무적으로 타산한데로부터 본의아니게 병사들과 인민들의 리익을 침범한 최남호장령을 엄하게 처벌하는데 동의를 주시는데서와 아버지문제로 고민하며 군사복무를 잘하지 못하고 제대된 한 녀병사의 운명을 외면하였던 한 일군에게 설사 그의 아버지가 역적의 죄를 지었다 해도 최고사령관의 슬하에서 자라난 병사는 떼어버릴수 없다고 준절히 타이르시며 제대병사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데서 뜨겁게 안겨온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군부대에 오시면 잠시라도 편히 쉬시라고 지은 집을 군인도서관으로 쓰도록 하여주신 이야기, 그이께서 만두를 몸소 빚으시며 하시는 만두에 대한 사연 깊은 이야기, 그이께서 병사들을 믿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이런 일화들과 생활세부들을 들자면 끝이 없다.

굴간안의 어둠속에서 식사하는 군인들에게 달리던 야전승용차를 세우시고 전조등을 비쳐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 그것을 뒤늦게 안 전사들이 온통 떨쳐나서 목매여 부르는 만세의 합성, 그 소리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멀리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병사들의 혼연일체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화폭이다.

우리 병사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최고사령관이시기전에 자기들의 운명을 보살펴주는 천아버지이시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위인적품모를 형상하는데서 작품이 거둔 중요한 성과는 또한 최고사령관동지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위대한 정치가로, 인민군대를 무적강군으로 키우시고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는 탁월한 선군령장으로 빛나게 형상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인민군장령들, 최고주권기관의 책임일군과 도당책임비서들을 만나시는 장면만이라도 상기해보시라.

그러면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펼치시는 선군정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깊이 느끼게 될것이다. 령도자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사상의 위대성이다. 그 뜻 깊은 자리에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선군후로의 원칙에서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며 선군정치는 우리 혁명의 전략적로선이라고 말씀하신다.

선군후로, 이것은 선행한 혁명리론의 제한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혁명의 주력군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날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선군정치를 우리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규정하시고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국방위원회를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등 총체를 통솔지휘하며 우리의 사회주의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나라의 방위력과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전반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새롭게 법화하도록 하시였다.

여기에서 보는데와 같이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는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선군정치를 펼쳐나가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작품은 또한 최고사령관동지를 비범한 군사적지략과 뛰어난 령군술, 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천하제일명장으로 빛나게 형상하고 있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제의 악명높은 《독수리》전쟁연습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에 대한 지도에서 지휘관들에게 훈련의 주인은 군인대중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병사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고 그들을 따듯이 돌봐주시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과 함께 군부대장들이 작성한 2개의 작전방안을 세심히 료해하시고 제2작전방안이 창조적이라고 지지해 주시며 비범한 군사적예지로 그 부족점을 보충할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사실상 불의의 정황에 대처한 대응전술인 제3작전방안이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작전방안을 세우도록 가르쳐주시고 작전이 성과적으로 수행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종래의 기존공격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당의 주체전법을 관철하는데서 돌파구를 열었다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지휘관들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실지전쟁이 시작된다면 오늘처럼 전격적으로 넘어가야 하며 장갑부대들을 결정적인 돌파단계에 리용하여 전선이 고착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그 작전전술적의의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는 정력적인 전선지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어떤 대적도 물리칠수 있는 강군으로 키워주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천재적인 전략가, 선군령장의 위대한 품모는 반미대결전에 대한 진실하고 개성적인 묘사를 통하여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주체87(1998)년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기도는 절정에 달하였다.

놈들은 전쟁의 발발과 작전단계, 전쟁의 종결과 전후처리문제까지 예상한 《작전계획 5027-98》을 짜놓고 출판물에 공개까지 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미제의 이 위험하고 엄중한 전쟁문제가 세상에 공개되게 된 그 정치적리면부터 명철하게 분석하여주시며 이것은 침략과 전쟁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는 현대제국주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온 필연적결과라고 하시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조선이라는 공격목표는 같고 그 최종적선택도 군사적타격인것만큼 강력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일군들이 제기한 정부대변인성명이나 위무성성명이 아니라 우리의 강경한 립장을 반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선언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그것은 사실상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같은것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의 도전에 추호도 용서없이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것이라는 우리 인민군대의 폭탄선언에 질겁한 미국의 우두머리들은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이 자랑스런 승리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령도의 위력과 대미강경전략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었다.

조미군부회담에서 우리측 대표단이 적측을 되게 다불려낼수 있는것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당이 평화에도 전쟁에도 당당히 맞설수 있다는 립장, 이것이 미제와의 군사외교적대결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종자라고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기때문이었다.

미제는 천출명장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앞에 드디어 머리를 숙이고 그 이듬해인 주체88(1999)년 5월 27일 미하원에

서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이 수표한 미국의 대북조선전략에 관한 외교관계협의회 12개 권고안이라는것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의 정치체제인정, 대북조선완화조치, 북조선의 외교관계 확대지지를 포함한 이 12개 권고안이 미국회에서 통과된 사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존엄을 반증하여주는것이다.

그후 유럽동맹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승리로 막을 내린 이 반미대결전은 20세기의 마지막 사회주의수호전으로서 선군력사에 찬란히 기록되어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성은 유진성대장과 봉명주소장을 비롯한 측근인물들의 형상을 통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유진성대장은 봉명주소장이 보내온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 위인상의 한 대목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위대한 장군님을 령도자로 모신 조선의 영광과 행복으로 차념친다.

《그대, 조국, 나의 조국, 너는 비록 광활한 땅은 아니여도 어떻게 되어 지구를 눈아래로 굽어보는 위대한 조국으로 솟았느냐. 수령이 위대하여 군대가 강력하고 수령이 위대하여 인민이 위력한것 아니냐.

선군정치-그것은 위인이 이 행성에 드리는 총대의 축복이었다.

위대한 령장을 모신 조선의 행복! 그렇다. 병사들을 위해 바치시는 위인의 헌신적인 복무의 순간순간들은 이 땅의 력사가 새길것이다. 아니 그 순간들이 모여 이 조선의 력사를 만들것이다!...》

봉명주소장도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그이의 의도대로 대미군사외교활동을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던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성격형상에서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는것은 또한 섬세하고 깊이고 개성적이며 지성적인 심리묘사이다.

작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심오한 사색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심리묘사를 자유분방하게 펼치고 있다.

심리묘사로 그려진 그이의 사색의 세계는 추상적이고 상념적인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기에서 환기되는 구체적이며 생활적인것이며 그 내용도 세속적이고 범상한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혁명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정치적으로 심각하고 정서적으로 강렬한것이다.

그 한 레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강땅의 바람거친 언덕에 돌아난 애어린 보리썩을 보시고 사색에 잠기시는 그 내면세계에 대한 심리묘사만이

라도 보자.

그 파란 보리썩은 그이에게 붉은기를 따라 사생결단으로 일떠선 자강도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시였고 혁명적군인정신이 우리 혁명의 광야에 퍼져 세찬 불길로 타고르고 있는것으로 느껴지시였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선군의 길이 옳았으며 군대와 함께 인민이 이 길을 따라서고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선군의 길에 사회주의승리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고 락관하고 있다고, 그래서 배심이 든든해 짐을 의식하시였으며 첫째도 둘째도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강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올해를 인민군대강화의 대전환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마음 다지시며 총대만 강하면 무서울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것이다.

이 보리썩에 대한 사색은 다음장면에서도 이어진다.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선길로 달리는 야전승용차안에서 미제의 《5027작전계획》과 놈들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에서 나라의 위험을 느끼시고 그 위험을 뚫고나갈 방안을 모색하시며 깊은 사색에 잠기시여 그 푸른 보리썩을 다시 상기하신다.

《그렇다. 인민들은 언제나 붉은기가 나뭇기게 하려고 달리고 있다. 이 강행군길에 분연히 떨쳐 일어섰다. 이 세계와 인간을 새롭게 깨우치는 정신-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우리 식의 삶을 선택했다.

그것이였다. 군대만 강하면, 총대를 틀어쥔 주먹만 억세면 된다.

군대만 강하면 붉은 기폭이 나뭇기고 인민이 따라 서고 이 강행군이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질것이다. 미제가 또다시 강요하는 오늘의 전쟁위협을 백승의 무죄주먹으로 짓부셔 버릴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선군의 길로 군인들과 인민들을 이끄시는 그이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하며 인민군대의 그 억센 힘으로 적을 타승할 신심과 의지가 얼마나 굳세고 확고한가 하는것을 뜨겁게 감득하게 된다.

작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색의 세계에는 자주 백두산에 대한 추억이 비껴진다.

백두밀림우에 솟아오르는 아침해, 불타는 태양, 광풍이 휘몰아치는 백두산의 눈보라, 그 사나운 눈보라에 끄떡도 하지 않는 밀림, 밀림을 뒤흔드는 백두산의 눈보라소리... 장엄하고 거창한 이화폭들은 심리묘사와 결합되어 빨찌산의 아들, 백두산의 아들이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억세고 담대한 거인적풍모와 영웅남아다운 호방한 성격,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곳곳이 싸워 나갈 선군령장의 철석의 신념과 백두의 기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선군혁명의 기수-인민군장병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특질

선군시대혁명의 주력군은 인민군대이며 반제반미대결, 사회주의수호의 앞장에 서있는것도 인민군장병들이다. 그러므로 선군혁명문학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들로 훌륭히 형상하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대》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그이의 믿음과 사랑속에 인민군장병들이 어떻게 선군시대의 영웅으로, 무적필승의 강자로 자라나며 그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고상하고 혁명적인가 하는것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이 력사적과제해결에 새롭고 무게있게 기여하였다.

작가는 선군령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인민군장병들의 고상한 정신세계, 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통하여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작품에는 모든 구분대원들이 험난한 지형과 불리한 기후조건을 극복하고 제정된 시간에 어김없이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하며 작전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는 군사훈련과정이 생동하게 묘사되어있다. 그 감동적인 화폭들과 생활세부들은 인민군장병들이야말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의 체현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고상한 성격적특징은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에 기초하고 있다.

풍랑을 만나 적진에 떠내려 간 김강인병사가 적들의 온갖 회유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천하제일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전사다》라고 당당히 웨치며 끝내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것은 그가 선군령장에 대한 열렬한 숭배자, 절대불변의 신념의 강자이기때문이었다.

작품은 이 형상을 통하여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

합선이 암초에 부딪쳐 발동기가 파손되어 적측 수역으로 표류되었을 때 최남호, 김한경을 비롯한 장병들은 적들과 힘겨운 결사전을 벌리며 죽을지언정 꺾이지 않는 조선인민군의 영웅적기상을 파시한다. 그 최후의 순간에 그들의 심장에 차넘친 생각은 오로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었다. 그러기에 그들 모두는 **김정일**장군님만세를 높이 부르며 자폭으로 영웅적최후를 마치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치는데서 삶의 목적과 전사의 행복을 찾은 수령결사옹위의 영웅전사들이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은 자폭을 결심한 그 최후의 시각에 최남호부국장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신 서류함을 《극비문건》이라고 하며 박신철소좌

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물에 가져가야 한다는 어려운 임무를 주는데서도 감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박신철소좌가 그 비밀문건함을 안고 망망한 바다에서 거치른 파도와 싸우며 100여리 헤엄쳐 오면서 힘이 진하여 정신이 가물가물해진 순간에 그에게 힘을 준것도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심장속으로 부른 불멸의 혁명송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이겨내고 기어이 부대에 찾아와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에 안길수 있었던것이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혁명적군인정신은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는 사생결단의 투쟁정신이며 그 어떤 대적도 맞받아 물리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과감히 뚫고 나아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정신이다.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해서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라는 삶의 철학과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철의 진리를 보여주는 여기에 그 형상들이 가지는 심오한 사상미학적의의가 있다.

작가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인민군장병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을 숭고하게 형상하면서도 그들의 성격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군무생활과정에 단련되고 성장하는 인간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있다.

타고난 혁명가는 없다. 김강인만 보더라도 그가 처음부터 군인다운 풍모를 원만히 갖추고 있는것은 아니었다. 그는 행군시에 갈증도 참아내지 못하였고 위급한 순간에 선참으로 뛰어들어 그 위험을 몸으로 막아내지도 못한 미숙한 병사였다. 그러한 그가 동지들의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육탄정신을 따라배워 적들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는 불굴의 혁명전사로 자라나는 과정이 사상의식의 발전과정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져 있다.

작가는 병사들과 군관들은 물론 장령까지도 사상정신적으로 발전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남호부국장이다. 그는 조선인민군소장이고 공화국영웅이며 이미전에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백두산런총을 선물받기까지 한 일군이였다. 누구보다도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를 잘 받들어야 할 그가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어긋나게 행동하였으니 그 파오는 참으로 엄중한 것이였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파오를 범한 최남호장령의 고민과 뉘우침도 심각하거나 최고사령관동지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에서 힘을 얻고 병사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자신을 혁명화해나가는것은 또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한 것인가!

이런 사상수양, 사상단련과정을 거쳐 그는 그

처럼 자폭영웅, 공화국2중영웅으로서 최고사령관 동지의 품에 영생할수 있는것이다.

최남호장령의 형상은 완성된 혁명가는 없으며 자신을 꾸준히 혁명화하는 사람이라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선군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날수 있다는것을 설득력있게 가르쳐준다.

인민군장병들을 군인이면서도 인간으로 그려야 하는것만큼 작가는 그들을 군무생활 일면으로 그리지 않고 사생활도 폭넓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들의 사랑관계와 가정생활을 깊이 파고 들고 있다. 작품에는 우리 군인들의 애정관계만 해도 4쌍이나 그려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군관 박신철과 제대병사인 무용수 최단아, 군관 한철준과 제대군관 김혜정의 애정선이 극적으로 깊이있게 형상되어 있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여 비록 곡절을 겪지만 서로가 상대를 열렬히 사랑한다.

여기에서 밝혀진 군인들의 사랑관은 시대적사명과 군인정신을 떠난 순수한 사랑이란 있을수 없으며 참되게 사랑할줄 아는 군인만이 군무에도 충실할수 있다는것이다.

군인들의 불길처럼 열렬한 사랑과 바다와 같은 넓은 도량으로써도 풀리지 않던 사랑의 곡절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세심한 보살핌과 관심속에 원만히 풀려간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대》는 군인들의 고상한 인간적면모를 매력있게 형상하면서 최고사령관동지이시야말로 그들의 행복을 가꾸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심을 감명깊게 보여 주었다.

△ 적측인물형상의 진실성과 혁신성

형상의 견인력은 진실성에 있다. 긍정인물형상은 물론 부정인물형상도 진실하지 않으면 예술적 생명력을 가질수 없다. 적측인물 특히 거물급의 적대적인물일수록 그 형상이 실재한 인물에 맞게 진실하게 그려야 하며 살아있는 인물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작가는 장편소설 《총대》에서 미국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적대인물들을 원형과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그러면 먼저 미국대통령 클린톤의 형상부터 보기로 하자. 작품에는 그의 출신환경과 성장경력, 힐라리와와의 연애과정과 성추문으로 미국사회계와 정계를 떠들썩하게 한 모니카와의 지정관계 등 사생활과 함께 정치가로서의 사색과 활동이 폭넓게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묘사된것은 그의 대조선정책과 군사적압력책동이다.

그는 30나이에 비둘기가 아니라 창공높이 나는 억센 독수리가 되려는 꿈을 품고 정계에 나섰다. 마침내 대통령의 권력을 틀어쥔 《독수리》가 되었다. 그에게는 미제의 독수리다운 리상과 정

치적리념이 있었으니 그것은 군사적우위에 의하여 세계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이였다.

작품에 형상되어있는바와 같이 클린톤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미제의 사나운 《독수리》였다. 하면서도 그는 강경과공화당패거리들과 같이 상대의 힘을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덮쳐야 한다고 발광하는 그런 우둔하고 성급한 《독수리》인것이 아니라 상대의 막강한 힘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시간을 얻어 자기의 힘을 키워 적당한 기회를 타서 일격에 덮치려는 《온전파》의 너울을 쓴 강경파보다는 더 냉리하고 음흉한 《독수리》였다.

작품에서는 이런 클린톤의 《포용정책》과 군사적압력책동이 우리의 선군위력에 의해 파산되는 과정을 작가의 예리한 분석과 형상에 의하여 진실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실재한 인물이었던 대조선정책조정관 페리의 형상도 진실하다. 페리는 국방장관시절인 1993년 행위기때 북조선의 군사대상물들을 폭격하겠다고 성명한바 있는 강경파이며 성격이 팽창하고 침착한 사나이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클린톤에 의해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되자 누구보다도 환영한것은 공화당패거리였다. 그런데 대통령의 비공식 특사로서 평양을 두번 방문하고 돌아 간 페리는 방북보고서에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군사경제적압력을 가해 북조선이 붕괴될것으로 가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공화당패거리들에게 있어서 전혀 뜻밖이였다.

하지만 페리는 두차례의 평양방문과정에 북조선을 깊이 들여다 보면서 이 나라야말로 아주 강력한 단결력을 가진 세계라는것을 똑똑히 알았던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자회견석상에서 공화당계 정객에게 북조선은 비상히 세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수뇌부에 의해 아주 강력하게 지도되고 있다고, 북조선이 우리의 고립강경책에 의해 스스로 붕괴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대단히 경솔한 판단이라고, 북조선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되리라는 판단하에서 협상할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 그대로의 그들과 협상해야 한다고, 북조선의 사회주의정치체제를 대담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앞에 현실적으로 서있는 거목을 풀대라고 우겨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얻어질것이 없으며 관찰의 착오는 판단의 오류를 낳고 결국 정치의 파멸을 가져올수 있다고 말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매파였던 페리는 선군조선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자신의 정치적견해에서 전환을 가져 온 리성적인 인물로 형상되고 있다. 이 인물의 정치적견해와 성격이 원형과 사실에 맞게 그려진 여기에 이 형상의 예술적진실성이 있다.

대통령의 안전담당보좌관 릴씨는 클린톤의 오른팔격의 인물이며 다음번의 대통령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미정계의 거물이다.

작품은 두뇌가 명석하고 장래가 기대되던 이러한 인물도 황금만능의 미국,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맥을 추지 못하며 종당에는 파멸되고 만다는것을 깊이있고 진지하게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적축 인물가운데서 특히 독자들의 주목을 끄는 류다른 인물은 지프리 밀튼대좌이다.

그것은 그가 우리 군대와 우리 인민을 이해하고 동경하며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뜨겁게 흠모하는 인물이기때문이다.

그는 미8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으로 있는 다년간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하였으며 그리하여 어느해 2월에는 그이께 축하의 꽃다발까지 올리는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문학에서는 이런 적축인물을 형상한적이 없었다.

이 새로운 적축인물형상은 적대적관계에 있는 사람들가운데도 진실을 알리고 하며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인류의 평화를 모색하고 지향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는것만큼 충분히 타당한 형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작가가 이 인물형상에서 성공할수 있는것은 원형의 생활자료를 깊이 연구하여 그의 생활체험과 심리세계, 사상의식의 발전과정을 믿음이 가게,

설득력있게, 진실하게 묘사한것과 관련된다.

이 인물의 형상적의의는 그가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격정에 넘쳐 격찬하고 있는데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기의 존엄한 폭풍을 길들여 새 시대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인류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맞은 정도의 거장, 덕행의 태양이 높이 추켜든 신성한 총대의 의미를 터득해야 한다. 이것은 이 지구우에 생존하는 모두의 의무로 될것이다.

그래, 모두의! 그가 적이든 벗이든 자비하신 하느님은 우리 인류를 모두 그 위대한 령장의 품안으로 인도하시기때문이다. 그 위대한 령장은 이 지상의 하느님이시다...

나의 삶, 나의 길... 만약 력사의 그 과제를 인식할 때 나는 비로소 행복을 알게 될것이다...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는 적축인물들속에서까지 이처럼 높이 칭송되는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세계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선군사상의열렬한 신봉자, 선군정치의 견결한 옹호자, 선군혁명로선의 철저한 관철자가 되도록 고무하여주는데 힘차게 이바지할것이다.

《얼음땀》

한창우

하늘에서 날아내리는 무쇠통마인가
휘뿌리는 눈갈기 날개인양 펼치고
땅크대오 산을 내리는데
아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용감한 땅크병들 어서 만나보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마중가신다

산기슭에 정렬하는 땅크들에서
철갑문이 일시에 열리자
선두땅크의 무한궤도우에 몸소 오르시여
나어린 운전수를 한품에 안으시네

미처 훈련보고도 올리기전에
수고했다고 정말 장하다고
땀인지 물인지 아직도 흘러 내리는
얼굴도 몸소 닦아 주시며
모자를 다정히 벗겨 주실 때
그이앞에 떨어 지는 얼음덩이
깊이 오르는 주먹만 한 얼음덩이

아 얼음덩이
땅크병의 모자안에서 떨어진 얼음덩이
그 얼음덩이 천천히 집어드시며
말없이 병사의 얼굴만 바라보시는
우리의 장군님

어찌하여 얼음덩이를 모자안에 넣고
흑한의 눈보라를 헤쳐왔단 말인가
밤 새워 내닫는 명령관철의 길에
몰려오는 줄음을 이겨내자고...

그래서 모자안에 얼음을 채워 넣고 온
그 불같은 열정을 헤아리신 장군님
너무도 기록하여
땅크병들을 대견히 바라보시며
손에 드신 얼음덩이를
소중한 보물처럼 쓸어 만지실 때
그이의 손에서 녹아내리는 물방울, 물방울

이런 정신 이런 열정이면
적의 아성도 다 녹일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장군님
병사들 흘린 《얼음땀》의 열기를
한가슴 후덥게 느끼시며
땅크병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실 때

아 훈련장에 솟아 오른 태양
천만가닥 해빛을 뿌리니
장군님품에 안긴 무쇠철갑병사들 눈가마다에
행복의 구슬이 방울방울 녹아내리고 있었다

세월은 빠르기도 하다.

미국놈들을 끌어 앉히고 전승의 축포를 쏘올린 이땅의 젊은이들 머리에 어느덧 50년이라는 세월이
없어졌다.

전승 50돐!

생각 많고 감회 깊은 이날에 우리 로병시인들이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제는 전쟁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우리 곁에 많지 못하다.

우리 로병시인들은 떠나간 이들의 몫까지 합쳐 그날의 포연속에 붓을 적시어 추억의 갈피갈피를 한장
한장 번지였다.

시뒤편

전쟁과 생활

한진보

산천이 포화에 불타던

준엄한 그날에

강철의 령장 **김일성** 장군님

건지리 여기에 계시던 때

싸움의 날이라고

불만 있었던가

집앞의 꽃밭엔

빨간 봉선화가 얼굴 내밀고

백일홍도 방긋이 웃고 있었다

양어장 맑은 물엔

살진 칠색송어들이

떼를 지어 조용히

헤엄치며 노닐고

닭우리에선 새벽마다

이 땅이 겪는 전쟁을 모르는듯

평화로운 닭울음소리가

숲속에 울려갔다

저기 병사들이 있는 병실에선

날마다 저녁 군중문화시간이면

《돈돌라리》, 《어랑타령》

랑만의 노래가 메아리쳤다

하지만 **김일성** 장군님 마주하신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엔

조국의 운명을 두고

최후결전의 엄숙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최고사령관을 지켜선

근위병들은 알고 있었다

꽃이며 꼬리치는 물고기며 닭울음소리

병사들의 노래가 왜 있어야 했는가를

불속의 랑만

그것은

승리를 확신할 때

가슴속 깊은곳에서 움트는 것이거니

전화의 날에

여기선 벌써

승리한 래일에 있을

밝은 생활이 깃들고 있었다

공병의 금지 외 1 편

권태여

전사들 병종을 닮았다면

누가 골라 골라

공병이 되랴

서서 간 길보다

기여한 언덕이 더 많아

무릎창이 더 나고

정찰병들 《허》잡이 갈 때
철조망을 열어주며
뒤시중을 하고

그렇다고 탕한적 있던가
결전의 함성높이 내달리는
군기의 펄럭임을 부러워는 했어도

부러워는 했어도

부끄러워 하지는 않았다
전사의 위훈은 자리셈을 하지 않기에

고향땅에 심은 감자알보다도
더 많은 지뢰를 전장에 묻으며
원수들의 발목을 무리로 꺾었거니

공방전의 진지마다에
날개되고 방패된 공병의 궁지
언제나 척후의 발자욱 먼저 찍어라

조총 세발

말 그대로
전쟁은 전쟁인 까닭에
어찌 희생이 없으랴
눈물이 없으랴

그러나
가슴 찢어지는 아픔
부드러운 흙 한줌 없이
적후의 언땅에 전우를 묻어야 했던 일

잊지 못할 습격전의 그 밤
오열을 깨물어삼키며

소리없는 조총 세발을
나는 빈 방아쇠로 대신했거니

백천발의 총성을 터치며
전우의 넋을 깨우고 싶었던만
꽃 한송이 놓지 못한채
눈물로 적신 빈 격발기어

한방 또 한방
나는 빈 방아쇠를 떨구며
소리없는 그 조총 세발에
천만발의 복수탄을 재웠네

축포가 오르는 밤

축포가 오른다 축포가 오른다...
수도의 밤하늘에 꽃불이 날아 퍼진다...
이 밤엔 아 명절의 이 밤엔
더더욱 어려오누나
화선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의 얼굴이

우리 얼마나 먼길을 걸어 왔던가!
얼마나 처절한 싸움의 언덕 넘어 왔던가?...
분대의 동갑이
나의 잊지 못할 전우여!

그대 이날을
그렇게 자주 그려보았건만
이날을 보지 못하고
승리를 위한 마지막싸움에

나아가다 쓰러졌거니...

하지만 오늘은
우리 전호가에서 그려보던
그 모든것
꿈처럼 기적처럼 솟아나
행복의 불빛되어 흐르고
그대 더운 피 흘리며 안아지킨 조국이
영광의 언덕에서 축포를 울려
락원의 강우에 하늘가에
금별의 꽃보라 찬란히 아로새기나니

승리를 경축하는 이런 기쁜날에조차
나의 마음의 한구석
허전함을 덜길 없는것

박래설

슬픔도 시련도 불바다도 함께 웃으며 넘은
다정한 그대 생각에...

아 그대 없이 나 혼자
이 밤을 보내기엔 정녕 죄스러워라
불구름속에서도 언제나

승리를 믿어 웃던 그 얼굴
이제 금시라도 곁에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자네 보는가...
-그렇네 우리 전호가에서 그러보던

바로 그것일세!...

그날처럼
얼싸 껴안고 불을 비빌수는 없는가
화선시절을 더듬으며
이 아름다운 강기슭을 걸을수는 없는가
밤이 새도록...

아 축포가 오른다 하늘가에 꽃보라 날아퍼진다
꽃불인가 그대의 미소인가
경축의 이 밤
전우의 추억으로 잠 못드는 밤아...

로병의 심장

리영백

나는 바라노라
청춘시절은 아득히 흘러갔어도
심장은 언제나 그때처럼 펄펄 뛰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머리엔 흰서리 성성히 내려도
심장엔 열정의 불길 꺼지지 말기를
전화의 그날
몸에 박힌 파편은 뽑을수 있었지만
어이하라 로씨의 파편 심장에 박힌다면

락동강에 흘린 그 붉은 피
태백산발을 함께 넘은 전우들의 숨결이
내 피줄속에 오늘도 맥박치거늘

불 뿜는 적화구를 몸으로 막아
중대의 돌격로를 열어준
그 심장도 내 가슴에 살아 숨쉬고

습격전 마치고 돌아오던 그 밤
내 등에 업혀 고통을 멈춘

전우의 심장도 내 심장에 얹혀있다

그렇다
로병-나의 심장은
나 한사람의것만이 아니다

적후천리 별빛아래 조총소리도 없이
눈물 삼키며 내 손으로 숲속에 묻은
그 심장들의 절절한 부탁으로 뜨겁다

그래서 나는 소중히 간직한다
내 심장 여생의 그늘을 찾는다면
조국에 목숨바친 전우들을 욕되게 하는것

수령님 우러러 피로 쓴 맹세문 안고
결사의 총창 비껴들던 위훈의 그 시절은
장군님 계시여 세월과 함께 가지 않노라

오, 나의 심장아 마지막박동까지
선군혁명 천만리길에 활활 타오르라
못잊을 전우들의 뒀을 다 합치여!

가사

포화속에 울리던 발갈이노래

황승명

흥에 겨워 부르던 노래이던가
포화속에 울리던 발갈이노래
전선에 보내는 회답편지를
보탑잡고 너인들은 땅에 새겼네

이랑이랑 번져지는 발이랑 따라
승리의 그날에도 달리던 마음

우리님 영웅되여 돌아온다고
웃으며 노래높이 소를 몰았네

강산이 불타던 준엄한 날에
승리의 포성으로! 울려간 노래
보다 큰 승리로 우릴 부르며
오늘도 이 강산에 울려퍼지네

등고선

정영종

서울해방전투가 잊혀지지 않는다. 특별히 치열한 격전이였거나 어떤 비상한 사건을 목격해서가 아니다. 그저 내 개인생활의 견지에서 볼 때 류다른 아픔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 소대는 시가지중심의 어느 한 건물에 발목이 묶이워 몹시 애를 먹었었다. 넓은 대리석층계에 높이 떠받들린, 연담알빛갈의 타일벽이며 큼직큼직한 창문들이 희뿌연 포연속에서도 자못 화려하게 번쩍거리는 덩지가 요란스러운 건물이었다. 바로 그속에 한무리의 적들이 틀어박힌채 사방에다 기관총들을 걸어놓고 집요하게 저항해나섰던것이다. 특히 지붕꼭대기에 덩실 솟은 시계탑속에서는 건물 앞광장분수대밑에 엮드린 우리 병사들이 조금만 머리를 쳐들어도 즉시 질풍같은 조준사격을 퍼붓곤 했다.

별수 없어 포병들을 청해왔으나 그들도 그 화력에 걸려 한참이나 찢쩍 댔다. 먼 곳에 좌지를 정하고 쏘면 안전하겠지만 주변 건물들이며 가로수따위들에 사제가 가리워져 가까이 접어들었다가 그 봉변을 당한것이다.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북받치는 노기와 타는듯 한 초조감에 속이 부글거려 그들에게 마구 역증을 터뜨렸다.

《젠장, 언제까지 새신랑처럼 꽃방석만 찾을셈이요? 굴뚝이노릇 그만하구 빨리 조기란 말이요. 저 시계탑부터! 알겠소?!》

종로쪽에서는 아군땅크들이 포도를 물어뜯는 으르렁소리가 푹푹히 들려왔다. 땅크병들이 이미 서대문형무소를 점령하고 수천명의 애국자들을 구출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부러운 전과였다. 지금도 그들은 괴뢰 《중앙청》을 향하여 거침없이 육박하고 있을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은 무슨 꼴이란 말인가!

남 모르는 갈망으로 가슴을 뚫이는 나였다. 미제의 도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해방후 몇년간 건들거리며 허무하게 보낸 인생의 랑비를 본때있게 벌충하려고 굳게 마음 먹었었다. 값 높은 위훈의 단상에 오르는것으로!

마침내 길쭉의 측백나무울타리뒤에 몰래 숨어든 포병들이 시계탑을 겨누고 장탄을 끝냈다. 전투과정에 무슨 교장이 생겼는지 탑시계의 바늘은 아침 일곱시를 가리킨채 멎어있었다.

《그럼 민겠소!》

나는 포장의 손을 꼭 잡아주고나서 벌컥 상반신을 일으켜 세웠다. 첫 포성과 함께 소대를 결

정적인 돌입으로 이끌기 위해서였다.

바로 그 찰나였다. 등뒤에서 자동차 급정거소리와 함께 《쏘지 말아요!-》하는 되알진 웨침이 날아 왔다. 뒤미처 가로수잎새들을 후려갈기며 기관총탄의 회오리가 급격히 가까와 지다가 곧 내 머리위를 휩쓸며 짱! 짱!... 포방순을 때렸다.

그 아츠러운 금속성이 나의 심장을 졸아들게 했다. 이런 제길, 기껏 은폐한 포좌지를 로출시키다니!... 천둥같이 화가 난 나는 핵 고개를 돌렸다.

《누구요?! 도대체 이건...》

다음 순간 나는 눈을 홑떴다. 매캐한 화약가스속에서 푸릿하게 번뜩이는 안경알, 납작한 군모뒤에서 춤추듯 하는 쌍태머리 그리고 중위의 견장... 놀랍게도 난데없이 나타난 휘방군은 자그마한 몸매의 안경끼너성군관이 아닌가.

《여기 지휘관이 누구예요?》

목표를 놓친 적기관총이 입을 다물자 너성군관이 야무지게 따졌다. 그리고는 어정쩡해진 포병들의 시선을 좇아 곧바로 내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니 포를 끌어온건 상사동무였군요?!》

너성군관의 기 막히다는듯 한 속삭임, 한순간 나는 숨을 딱 죽였다. 절로 심장이 후닥닥 들뛰었다. 설마?!... 내앞에는 해방후 우리 고향 읍거리에서 교원을 하다가 홀연 수수께끼처럼 종적을 감춰버렸던 처녀가 서있는것이였다. 그리고 눈에 익었던 하얀 브라우스대신 엄해보이는 군관복차림으로 바뀌었지만 어찌 헛갈릴수 있으랴. 저 유표한 도수안경이며 나를 어쩔수 없는 짝사랑에로 이끌어간 그 특이한 미소가 금시 피어오를듯 방싯 벌어진 자그마한 입매를, 하물며 문맹퇴치운동이 한창일 때엔 내가 다니던 야간성인학교의 선생이기도 하였었거니!

목구멍으로는 절로 《윤숙선생, 나요. 절골의 그 심술쟁이포수!》하는 격한 부르짖음이 뚫어올랐다. 그러나 상대가 먼저 맵짠 질책으로 나를 앞질러버렸다.

《상사동문 전투를 앞두고 지도작업도 안했는가요? 저건 부민관이예요, 유명한 극장!》

《?!...》

그쯤은 물론 나도 알고있었다. 한데 그게 어땀단말인가? 덩둘해 진 내 눈길과 부딪치자 처녀군관은 속상한듯 한손을 핵 내리그었다.

《포를 당장 철수하란 말예요. 저 아까운걸 짓몽개려들다니 어쩔...》

《그럼… 우린 어찌구요?… 저 놈들은…》

처녀군관은 안경알속에서 유심히 나를 뜯어 보았다. 문득 그의 입귀에 방긋 웃음이 피어올랐다. 내 물음이 몹시 유치하고 어이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의 심장은 다시 한번 후두둑 들뛰었다. 바로 저 웃음이야말로 내가 이 처녀를 《잃은》 후 밤마다 환영처럼 떠올라 잠을 빼앗아가곤 했던 좀 알미우면서도 넋을 홀리는, 자글자글 찢는것 같은 《윤숙선생》 교유의 미소였다!

《온참, 상사동무도!》 마침내 호호 웃으며 그가 명랑하게 대꾸했다. 《놈들이야 죽어야지요. 본때 나게요. 뻔하잖나요!》

끝내 알아보지 못하누나!… 창황중에도 피곳 이런 서운한 생각이 가슴을 허우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다. 나는 비로소 처녀군관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완전히 깨달은것이었다. 이 옛 선생은 우리들더러 아무런 방비대책도 없이 기관총탄막속으로 뛰어들라고 《강요》하는것이었다.

반가움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스스로도 얼굴이 험악하게 이지러지는것을 의식하며 그의 팔소매를 와락 나꾸채었다. 그러면서 헐떡헐떡 부르짖었다.

《간참하지 마시오. 중위동무, 더는! 도대체 이 건… 뭐 본때나게라구요?! 우리 소대가 어째서 소대장도 없이 싸우는가를 그걸… 그걸 안다면…》

목이 꺾 메여 나는 더 말을 이을수 없었다. 바로 몇분전에 저 건물에로의 돌입을 시도했던 소대장이 희생된것이었다. 그때 소대장은 마지막숨을 뿜으면서 이렇게 속삭였었다.

《시시하겐 됐어. 시시하겐… 부소대장. 정말 미안하오.》

제주도가 고향인 소대장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늘 한나산등산머티 열마나 기막힌지 아느냐고, 미국놈들을 모조리 소탕한 다음 온소대의 등산안내를 자기가 설테니 한번 본때나게 즐겨보자는 말로 전투사기를 돋구곤 했었다.

틀림없이 그는 자기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시시하게》 쓰러진 통분함을 《미안하다》는 한마디 사죄속에 담았을것이다. 그것이 내 가슴을 더욱 찢었다.…

열열굴에 와닿는 어떤 섹박한 촉감에 고개를 돌린 나는 처녀군관의 두눈이 안경알속에서 고통스럽게 흠뻑져있는것을 보았다.

《아름만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한다면…》 드디어 그가 추운듯 어깨를 움송그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런다면 우린 얻을수 있는 많은것을 버리게 될거예요. 생각 같아선… 나도 당장 짓밟고 싶어요. 저 극장에서 해방후 <미군환영공연>이라는 추태가 벌어졌던걸 생각하면… 이래전부턴

피뢰 <국회>가 틀고 앉아 더럽혀 놓았다는걸 생각하면…》

처녀군관은 잠시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것이예요. 우리것! 그래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서울해방작전을 힘들더라도 밤이 아니라 날이 밝아서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신것 아니나요. 많은 유적유물들과 중요건물들, 서울시민들의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으시려고요. 난 저 건물지붕에 가두고성기를 설치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미군놈들이 없는 우리의 서울을 세상에 공포할 방송을 하게 말예요. 이제 저 극장무대에선 우리의 공연도 성대하게 진행될거예요. 공화국의 노래를 부르는데!》

먼 변화가쪽에서 또다시 땅크의 굉음과 함께 《만세!-》 하는 함성이 울려왔다. 그 소리에 취한듯 몽롱한 눈길을 하고있던 처녀군관이 피곳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고나서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상사동무, 제게 다 생각이 있으니 기습조를 조직해서 우리 차앞으로 보내주세요. 한개 분대쯤, 서둘러요!》

마감말은 벌써 반박을 허용치 않는 군관다운 명령조였다.

그가 사라진 다음에도 나는 한동안 무슨 도깨비한테 홀리운듯 어리뻑해 서있었다. 이제는 어쩔수없이 그의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는게 명백해졌지만 바로 이 처녀와 마주 서면 매양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왕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생각에 화도 나고 어이없는 쓴 웃음이 나가기도 하였던것이다. 무엇보다 《아름만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한다면》 하던 처녀의 말이 뇌리를 허뻗었다. 기실 아픔을 두고 말한다면 누구보다 이 서울과련결된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것은 처녀군관 고윤숙이었다.

…어느해 겨울 고윤숙이 야간성인학교의 교원으로 우리 마을에 나타났을 때… 그때 나는 산골군이라 소문난 읍거리에서도 80여리나 숲속오지로 파고든 절골에서 옛 화전민들이 일군 얼마 안되는 땅빼기의 곡식을 메뻐지며 췌, 노루들의 침습으로부터 지키는 열치기포수였었다. 그런대로 까막눈은 면한 터여서 군이 그의 학생노릇을 할 필요가 없었던 나였지만 소문에 열일곱살난 애송이처녀선생이 한다하는 서울 《숙명고녀》 출신으로서 미 《군정》을 반대하는 학생시위에 참가했다가 검거를 피해 북으로 들어온 아주 당돌한 멋쟁이라는 바람에 구경 삼아 기웃거리다가 그에게서 얻어 듣는 도회지이야기 재미에 아예 적을 울리고 말았다.

해방바람에 왜놈산림주사의 전속사냥군으로 죽을 고생을 하던 처지에서 벗어난게 하도 기뻐 흥

청망청 생활을 즐기던 나로서는 기나긴 겨울밤을 흥겹게 보낼수 있다는것 또한 대단한 호사였던것이다. 더구나 자그마한 몸매에 좀 여윈듯 한 얼굴생김이 곱다고는 할수 없었지만 눈썹리를 이상하게 지저대는 처녀의 미소는 단번에 내 얼굴을 쑥 뽑아 갔다.

기본수업시간에는 내가 할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교실로 리용하는 집부엌에 군불을 때주는 겸 주먹같은 감자알들을 디글디글 구워 가지고는 처녀에게 밤참으로 대접하기 시작했는데 고운숙은 매양애티나는 하얀 얼굴에 자글자글 끓는듯한 웃음을 피워 올려 내 눈썹리를 따갑게 지지며 환성을 지르곤 하는것이였다.

《아유, 먹음직도 하네. 정말 고마와요. 서울서 살 땐 이런 기막힌 맛 한번도 못봤지 뭐예요.》

그의 안경진 두눈에 어찌도 살갑고 정겨운 신뢰의 빛이 찰랑거리곤 했던지 나는 며칠 안 있어 그것을 한 총각에게 혹하기 시작한 처녀의 미묘한 광채로 단정하고 가슴을 울렁이까지 하였다.

하긴 스스로를 후리후리한 키폴로 보나 겁을 모르고 맹수들과 겨루는 담으로 보나 못처녀들이 반하기엔 충분한 총각중의 총각이노라고 우쭐해지내던 나로서는 무리도 아니였다.

하지만 몇달후에 고운숙이 내 얼굴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다는것을 알았을 때 나는 얼마나 수치감에 몸부림쳤던가. 처녀가 서울에서 미군놈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모두를 학살당한 통탄을 안고 산다는 사실을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그와의 관계가 달리 되었을지도 모른다. ...

적기관총이 노리는 속에서 기습조로 선발한 일곱대원을 하나하나 뒤로 뽑아내는데 또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허비되였다. 그러자니 처녀군관의 《생각》이라는것에 대한 의혹과 반신반의가 슬며시 머리를 주켜들어 나는 세상 미련한 노릇에 끌려든듯 한 후회로 속이 바짝 타들었다.

그러나 광장 한끝의 소공원 숲속에 서있는 풍을 친 소형화물차앞으로 달려갔을 때 나는 눈이 켜졌다. 어느 사이 준비했는지 자동차는 앞시창이며 방열기에 흠대대를 더덕더덕 두른 무슨 원시적인 장갑차모양을 하고 있었던것이다. 차옆에는 적재함에서 부렸을 권선기며 고성기나팔통같은것이 무쳐있었다.

세명의 통신병들에게 무슨 지시인가 주고 있던 처녀군관이 우리를 보고 마주 왔다. 그의 입귀에서는 례의 그 자글자글 끓는듯한 미소가 방긋 내비치고 있었다.

《어때요, 상사동무?》

《?!...》

《저 광장복판에 극장의 위생실과 통하는 하수도 망홀이 있거든요. 알만하지요?!》

나는 모든것을 깨달았다. 처녀군관은 망홀까지 《장갑차》로 접근한 다음 기습조를 감쪽같이 하수도속에 들이밀 궁리를 해낸것이였다.

목구멍으로 절로 탄성이 고동쳐올라왔다. 당장이 처녀군관을 덱석 안아 줄수만 있다면!... 하지만 정작 내 입으로 터져나온것은 역증스러운 거친 고함이었다.

《젠장, 사람속을 이렇게 태울대지요? 왜 침부터 대주지 않았나 말ियो!》

...적재함바닥에 납작 엎드린 기습조를 싣고 소형화물차가 그 괴이한 모습으로 벼락같이 짓쳐나오자 적들은 눈이 뒤집힌듯 했다. 즉시에 극장출입구며 층층의 창문들, 시계탑마다에서 기관총과 자동소총들이 총동원되어 총탄을 우박처럼 쏟아붓는 한편 투척거리도 안되는 수류탄까지 집어던지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누가 보아도 자동차가 정면현관을 돌파하여 밀고 들어올것 같은 형국이었던것이다.

차의 풍천이 삽시에 벌둥지처럼 승승 뚫리고 적재함은 콩마당질 당하듯 아크럽게 몸부림쳤다. 그런 속에서도 자동차는 둥근 분수대를 맹렬한 기세로 에돈 다음 불쑥 속도를 죽이며 술 취한것처럼 비틀비틀 망홀앞으로 굴러갔다. 사전약속대로 적들이 운전수가 부상 당하여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듯이 믿게 만들자는것이였다.

마침내 자동차는 망홀을 타고 넘자 기진한듯 푹 멎었다. 차체가 적들의 시야로부터 기습조의 행동을 완전히 가리울수 있는 위치였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재빨리 하수도속으로 미끄러져들어갔다....

꺼룩한 오수가 정쟁이를 치는 캄캄한 하수도속, 걸음을 옮길 때마다 꾸룩꾸룩 피여오르는 지독스러운 악취, 구역질때문에 숨구멍이 마구 비틀리는듯 한 고통... 그런 속을 우리는 외로운 전지불 하나를 앞세운채 다급하게 전진했다.

만일 저 가증스러운 적들의 저항만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이런 더러운 미궁속에서 《혜염철》 용기를 내겠는가!... 쓰거운 웃음이 나왔다. 언젠가 여우굴을 들추던 일이 상기되어서였다. 그때 비좁은 굴속에 숨어버린 여우를 몰어내려고 몸뚱이를 절반나마 들이밀었던 사냥개가 돌연 피상한 비명을 내지르며 도로 뛰쳐나왔다. 나는 악을 쓰는 여우에게 깨물린것이나 아닌가 싶어 황황히 살펴보았는데 웬걸, 사냥개의 코잔등은 반반했다. 일인즉 냄새 맡기가 전업이라 할 그놈마저 지독한 여우노린내에 덴겁한것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사냥개처럼 물러설수 없다. 《우리의 서울》을 위한 생사판가리의 싸움에 나섰기에!

끝내 등뒤에서 누군가 진저리치는듯 한 짓눌린 토막숨을 터뜨렸다. 처녀군관이였다. 출발전 공

연히 껀진 소리를 내지른 나에게 오히려 웃어보이며 《호, 속 래워준 죄를 씻자면 어차피 나도 기습조에 들어야겠군요. 극장내부를 모르는 상사동무가 또 실수하지 않겠요.》하는 바람에 더 만류를 못했었다. 하지만… 깨끗한 도회지생활환경이 몸에 배인 처녀로서는 이 악취를 견디어 내기가 몹시 힘들것이다.

마음이 언짢아져 나는 짐짓 말을 곁었다.

《일없겠소, 중위동무?!》

《…》

《중위동무!》

《모르겠어요.》 막힌 숨을 내뿜으며 처녀군관이 간신히 되받았다. 《내가 아까 우리 대원에게 임무를 주긴 했으나… 아직까진 탐시계의 고장원인이 전기선단절에 있을것이라는 추측밖엔… 그걸 꼭…》

그의 뒤말은 급작스레 터져나온 기침으로 툭 끊어졌다. 나는 공연히 말을 시킨것을 후회하였다. 얼마나 특이한 녀자인가. 숨이 막혀 몸부림치는 경황에서도 왕창갈이 벗어버린 탐시계를 되살릴 궁리에 골몰하다니, 그것이 무에 그리도 급한 문제이기예?!…

언젠가도 우리는 서로 다른 관심과 궁리에 얽한채 한밤중에 절골룡선을 함께 뿜은적이 있었다. 그때는 얼마나 좋았던가. 밤숲의 신선하고 달짝지근한 공기, 겁에 질린 처녀를 꺾어 골탕먹인다는 심술궂은 흥겨움!…

나는 절로 화가 나서 왁살스레 절벽절벽 오수를 헤갈랐다. 제길, 망할놈의 기억! 생사를 건 눈앞의 전투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머리를 어지럽힐건 뭐람, 밖에서는 전우들이 눈이 까매서 돌입의 시각을 기다리는 판에!… 그럼에도 기억의 손아귀는 내 덜미를 잡아 그 밤의 숲속길로 부득부득 떠밀어갔다.

…어느 해 봄 저물녘, 발머리의 포수막에서 사양용산탄을 만드느라고 한창 초췌질에 여념 없는 데 살짝 열리는 기척과 함께 웬 녀자의 쟁쟁한 목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포수아바이를 찾아왔는데 어데 계시는가요?》

고개를 든 나는 눈이 떠꾼해졌다. 천만뜻밖에도 내앞에는 그리도 심장을 애달게 흔들어놓았던 읍거리의 처녀선생 고운숙이 서있는것이 아닌가. 그것도 바로 나를 만나려고 하얀 샤쓰가 땀에 함싯 젖도록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다!

《제가 바루 그… 포수…》

분에 겨운 이 행운이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아 떠듬거리는 내 모습에 처녀는 안경을 추스르며 입을 딱 벌렸다.

《어마! 난 포수라기에 수염이 한자쯤 되는분으로 여겼는데… 동무였어요?》

처녀는 자기의 실수가 멋적었던지 방긋 웃으며 척 손을 내밀었다.

《반가와요. 침 뱉겠어요!》

《?!…》

나는 반사적으로 흘깃 뒤를 돌아보았다. 처녀가 어떤 판 사람과 인사를 건네지 않았나 싶어서였다. 그다음… 내 얼굴은 무안과 수치로 하여 수수뻑처럼 지지벌개졌다. 바로 석달전인 지난 겨울에 그의 학생노릇을 하며 그렇게도 극성스레 감자구이를 대접해준 나를, 하여 무한한 감사와 신뢰속에 기억해 두었을줄 안 나를 처녀는 《침 뱉는다》고 말할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린것이다.

《참, 제 소개를 까먹었네.》 이상하게 변해가는 내 표정을 달리 해석했던지 고운숙은 얼른 동을 달았다. 《전 읍거리 소학교에서 왔어요. 교원이랍니다. 이름은…》

《알구 있수다, 윤숙선생!》

쓰겁게 웅얼거리는 대꾸에 처녀는 오히려 반색했다.

《절 벌써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요?!》

《글 가르치는 선생님께한테야 나 같은 산골바우 학생파위가 기억될 턱이 없지요.》

분명 고운숙은 모욕을 느낀듯 했다. 한동안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나를 뿔어지게 마주 보던 그는 어떤 의혹이 갈마들었던지 불쑥 야무지게 따져 물었다.

《야간성인학교에 다녔어요? 정말?!… 그럼 제가 밤마다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어디 말해봐요!》

《이건 뭐… 시험을 치는거우다?!》

《…》

《중수다. 서울얘기들이였지요. 왜놈대신 주인행세를 하는 미군놈들이 찢차두 모차라 인력거란 인력거는 모조리 차지하구 서울거리를 거들거린다는… 그놈들때문에 피가 마를 날이 없다는!》

고운숙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틀림없는데… 동문 어느 줄에 앉군 했지요?》

울긋하기 잘하는 성미대로라면 벌써 분통을 터뜨린지도 오래를 나였다. 《젠장, 감자구이나 해준 알량한 놈에게 어디 고정자리가 있거나 했소?》… 그러나 나는 제때에 그 고향을 꿀꺽 삼킬수 있었다. 바로 그 점이야말로 지금의 굴욕적인처지를 한층 더 강조하는 미련한 토설이 아니겠는가.

울화를 묵새기지 못해 씨근거리는 내가 그에게도 몹시 미안쩍었던 모양이었다.

《아이, 왜 이리 생각나지 않을까?》

처녀는 속상한듯 두손을 마주 비틀더니 제풀에 호호 하고 웃었다.

《다 제 눈탓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껴땀다니 유전인 셈이. 그래서 망신한적이 한두번만 아니랍니다. 유전도 발전적이라

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육체도 세대를 거듭할수록 좋은 장점만이 보태지는 완성에도 진화할테니까요. 그렇죠?»

제길, 좀 앞미워 보이면서도 어쩔수없이 머리를 현존증나게 내둘러 놓곤 하는 저 웃음!... 나도 그만에야 꺾 웃어 버리고 말았다. 《유전》이요 《진화》요 하는 말마디들이 귀에 설기는 했지만 윤숙선생의 말뜻은 그런대로 깨도가 되었고 그런줄도 모르고 사내까지 않게 공해 있는 나 자신이 우습게 생각되었던것이다.

고윤숙이 처음 마을에 나타났을 때 입 빠른 돌배나무집 막둥이녀석이 《애기 같은 처녀선생이 어쩌서 안경을 걸고 다니는지 아시우? 듣자니 소학교 조무래기들이 같은 아이한테서 배운다고 놀려 줘서 우정 꺾다는게우다. 어른다와 보이랴구요.》하고 킬킬거렸지만 실사 그렇더라도 온 군대를 휘돌며 문맹퇴치운동을 벌렸을 그더러 그 술한 《제자》들을 다 기억하라고 강박할수는 없지 않는가.

알고 보니 고윤숙은 교수에 리용할 박제품들을 일식으로 갖출 계획밑에 그 짐승사냥을 나에게 부탁하러 온것이였다.

《여기 절골에 특히 짐승들이 많다겠. 물론 고운 새들도 많겠?!》

《글쎄... 한 백종쯤 될가...》

《어마, 그래요?! 아이 좋아!》

나는 허거프게 웃고 말았다. 아이들에게 제 향촌의 풍요함과 귀중함을 심어 주려는 그 헌신적인 욕심에 절로 존경이 가긴 했지만 얼마나 천진스러운가. 혹시 거절당할수도 있으리라는 위구는 꿈에도 가져보지 않는듯한 저 순박한 믿음!

문득 한가지 엉큼한 궁리가 머리속을 스쳤다. 고윤숙이 더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혼내워 볼, 역시 기억에 남게 꾸짖한 대접도 곁들여서!

《어디 해봅시다.》 나는 짐짓 현현하게 동의했다.

《선생님, 부탁인데 모르쇠를 할순 없지요. 현대... 오늘밤 나를 좀 도와 주지 않으시려우? 갓심은 종자감자를 뚜쳐먹으러 내려오던 메돼지 한마리가 밭에 치였는데 끌어내리자니 혼자 힘으로는...》

예상외로 고윤숙은 손뼉까지 딱 마주치며 기겁에 웅해나섰다.

《아이, 정말이지 사냥이라는걸 꼭 한번 해보고 봤더랬는데... 가자요!》

선불사라는 절이 있어 절골이라 불리우는 골안은 위낙 깊고 험하기도 하거니와 뻘뻘이 뒤엉킨 나무숲으로 하여 대낮에도 맹수들이 어슬렁거리는 곳이였다.

걸음마다 발목을 휘감는 갖가지 넝쿨들, 어둡

속에서 시퍼런 링광을 뿌리는 썩은 나무등걸이며 무시무시한 메아리를 일으키는 승냥이의 먼 울음소리, 게다가 어쩌다 나무우듬지사이로 흘러내리는 푸릿한 달빛마저도 미풍에 설렁대는 숲그림자를 어떤 괴물의 형상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숲에 발을 들여놓은지 얼마 못가서 고윤숙은 숲소리마저 딱 멈추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내 뒤 자락을 짊 움켜 잡았다. 비로소 처녀는 자기가 어떤 무서운 모험의 길에 나섰는가를 의식한듯 싶었다.

그러나 나는 허리에 장도칼이며 탄알썩지, 포승줄따위를 주렁주렁 찬데다 어깨에 쌍대배기럽 총까지 비스듬히 걸친채 느릿느릿 걸으며 숨죽인 귀속말로 처녀를 더욱 놀래웠다.

《바삭 따라서시우. 한발작이라두 떨어지면 당장 승냥이가 덮칩네다. 그놈들이 너자와는 한사코 해보거든요... 참, 내가 왜 그 하얀 옷을 갈아입힐 생각을 못했담. 맹수들의 눈에 단박에 띄겠는데, 허-》

처녀가 흠칫하며 등뒤에 더 바삭 다가붙는게 알렸다. 그가 절망적으로 소곤거렸다.

《이봐요. 아직... 멀어요?》

나는 웃음집이 흔들려 미처 대답할수 없었다. 이좁한 걸음에 벌써 오금이 저려하니 이제 목적인 기본 《공포의 대상》앞까지 끌고 가면 처녀가 견디어 낼가?...

룽이 지나친것 같아 나는 망설이던 끝에 고윤숙에게 물었다.

《이제라도 되돌아가는게 어떻소?》

《뭇때문예요?》 좀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처녀가 반발조로 내뱉었다. 《끝장을 못볼바에야 시작도 말아야. 난 다만... 동무가 어쩌서 산중턱에서 더 오르지 않고 옆으로만 에도는걸가 하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벌써 등성이 두개를 그런 식으로 빙빙 에돌았거든요.》

나는 저즈기 놀렸다. 한절반 났이 나갔을줄 안 처녀가 주변지형을 놓치지 않고 살펴본것이였다.

《허허, 그건 우리가 지금껏 메돼지들이 고정으로 다니는 길을 따라가기때문이라우. 그 미물들은 이렇게 산중턱의 일정한 높이에서 별로 오르내리지는 않고 옆으로 빙빙 에돌면서 살아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밧을 놓곤 하지요.》

《옆으로만이요?! 결국 한 등고선상에서만 맴돈다는 소린데... 이상하군요.》

등고선이란 말이 귀에 설어 제나름으로 추측해 보는 사이 고윤숙도 어떤 류다른 충격을 받은듯이 육토록 침묵을 지키더니 느닷없이 물었다.

《어때요, 포수생활이 맘에 들어요?》

뜻밖의 질문이었으나 나는 은근히 기뻐다. 그 질문이야말로 처녀가 보여준 나의 개인생활에 대

한 첫 관심, 첫 침투시도였던것이다.

성수가 난 나는 사냥의 온갖 묘미에 대하여, 그 생활과정의 여러가지 위험과 그를 극복해나가는 랑만적쾌감이며 신비로운 숲의 세계에 대하여 열을 올려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나의 사나다운 담대성을 슬쩍슬쩍 끼워 넣는것을 잊지 않았다. 처녀가 나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포수의 기본표징은 첫째로 하루종일 꼬박 쉬지 않고 산발을 내달리는 육체적강기이구 둘째로는 하루종일 꼬박 움직이지 않고 잠복하는 검질긴 인내성이지요. 언젠가 한번은 선불 맞은 백기로짜리 걸구한테 정면으로 받기위 한 열메터는 뿌리웠는데 그래도 쓰러지지 않구 맞대거리를 해서 끝내 잡고야 말았답니다. 그 걸구가들이반는 힘이 얼마나 센줄 아시우? 모름지기...》

그 순간 고운숙이 호호 웃으며 중도에서 내 말을 가로챘다.

《난 말예요, 동무가 지금 발머리나 지키는 한가한 일감을 붙들고 지내는게 맘에 안들어요. 그런거야 늙은이들도 어렵잖게 할수 있잖나요. 일생 포수를 할 잡도리 같은데... 좀 큰 뜻을 품고 더 보람있는 일을 찾는게 어때요? 메돼지들처럼 한 등고선만을 따라 맴돌지 말구요!》

나는 기세 좋게 질주하다가 불쑥 다리걸이를 당한듯 한 억울한 심정이였다. 뭐 늙은이들이나 할 한가한 일이라구? 자기에게 필요한 박제품을 얻어 가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주제에 포수일을 감히 메돼지에 비겨?!...

《다... 다 말했수다?! 도대체 이견...》

나는 그만 분별을 잃고 씨근덕거리다가 획 돌파서 마구 숲을 헤집고 나갔다. 애꿎게 모욕과 조롱을 당했다는 울분이 가슴에서 태질했다. 아니, 무언가 자신이 더없이 초라한 짐승꼴이 아니였을가 하는 의혹에 견딜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세상과 거의 동떨어진 우리 절골에서만도 사람들이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까지 부여해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은덕에 농사를 잘 지어 보답하자고 얼마나 아글타글하고 있는가. 그런데 나는?!... 그 땅의 곡식을 지킨다는 제탄의 위안과 자부로 우쭐렁거리지만 기실 왜놈세상에서 짐승처럼 짓눌렸던 보상을 실컷 행복을 누리는것으로 받아내려는 잠재의식의 충동에 이끌려온건 아닌지? 피가 한동이나 끓는 시퍼런 젊은 몸뚱이를 가지고 새 나라를 받들려는 욕심은 없이!

갑자기 눈앞에 흰히 트인 공지가 나타났다. 나는 편뜩 정신이 들었다. 어느 사이 나는 너무 치졸하여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던, 처녀를 아주 까무라치게 놀래울 장소로 점찍었던 선불사임구의 《금강문》앞에까지 온것이였다. 그러자 알곳은 반발이 다시 꿈틀거려났다. 그래, 나를 아주 납작하

게 만들었으니 어디 그 값을 한번 치러보라지!

《자, 다 왔소!》

나는 우정 태연히 말하며 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순간 등뒤에서 《악!》하는 고운숙의 허를 깨무는것 같은 비명이 울렸다. 우리들앞에는 시뻘건 허를 쑥 빼물고 퉁방울눈을 훔물스레 부라리는 거대한 두 괴물이 달빛아래 벌거벗고 떡 버티고 서 있었던것이다. 그놈들은 아닌밤중의 두 침습자를 당장 한입에 삼켜버리려고 목을 쭉 빼드는듯 했다. 그것이 바로 중들의 말을 빌면 지옥의 온갖 악귀들로부터 불법과 불도들을 수호한다는 이른바 《밀적금강》과 《나라연금강》이라는 이름의 두 목각신이였다.

《뭘 하시우, 윤숙선생. 저것들이 선생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지못게 재촉했다. 그러나 고운숙은 여전히 돌미륵처럼 까딱않고 굳어져있었다. 내 눈에는 달빛에 드러난 그의 머리칼마저 공포로 주뻗 곤두선듯이 보였다.

다음 순간... 고운숙이 몸부림치며 한발을 내짚었다. 이어 약간 휘청거리며 내 앞까지 다가왔다가 오연히 고개를 들고 그대로 두 《괴물》앞으로 또각또각 걸어 나갔다.

잠시후 《금강문》쪽에서는 처녀의 야무진, 거의 유쾌한 웨침이 메아리쳐왔다.

《이보세요, 심술쟁이총각님! 이젠 내가 박제품을 얻어갈 자격이 있, 예?!-》

고운숙은 이미 야비하기 짝 없는 나의 《복수》기도를 간파해냈던것이다!

그날밤 덮에 치운 메돼지고기를 푸짐히 끓여 처녀에게 대접하는 자리에서 나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웅얼거렸다.

《포수막이 루추하지만 편히 로독을 푸시우. 날 겁내진 말구. 급게 발에 나가 짐승이나 쫓을테요.》

그때 처녀는 레의 그 자글자글 끓는듯 한 따가운 미소를 함뱍 지으며 재빨리 응수했다.

《왜 겁내겠어요. 동무야 날... 두려워 하잖나요!》

이튿날 고운숙이 떠난 다음에도 나의 머리속에서는 《동무야 나를 두려워 하잖나요!》하는 말마디가 줄곧 노래를 불렀다. 총각이 처녀를 두려워하는 경우란 사랑밖에 없다. 고운숙은 그러한 내 감정을 눈치챈것이다. 그래서 나의 심술도 흥겹게 받아 준것이다!

한편 그때부터 나의 포수생활은 그지없이 따분하고 어리석은것으로 되여 갔다. 나는 진정 고운숙이 긍정하는 그런 값 있는 생활에 뛰여 들고 싶었다. 그의 부탁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두달후 그에게서 편지가 날아 왔다. 나는 너무도 흥분하여 속지까지 찢으며 결봉을 뜯었다.

《...철국동무, 기억나. 동무가 들려 줬던 메돼지의 그 자리길얘기! 그것들은 아마 수천년전에도 그렇게 한 등고선만을 따라 산중턱을 땀돌았을게고 앞으로도 그럴거예요. 그건 어느 엄지 한마리도 자기들의 그 등고선길을 벗어 나 더 높이 올라 오르려는 지향과 실천으로 새끼들을 이끌지 못한때문이었. 만약 사람들도 그렇게 현재의 생활처지와 방식에 만족하여 지낸다면 이 사회의 진보도 인간들자신의 <진화>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을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소릴 새삼스레 하는건 요즘 내 생활에서도 그런 점을 교훈으로 돌이켜 보아야 할 일이 생겨서랍니다. 혹시 내가 없더라도 박제품들은 끝까지 다 마련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답엔 동무의 총 잘 쏘는 재간을 나라 지키는 보다 큰 일에 써먹어 주세요. 남조선에서 미군놈들이 얼마나 피를 물고 날치는지는 동무도 알지요?!...》

가다로운 론리적사고와는 거리가 먼 나에게 무슨 《등고선》을 운운하는 말마디들은 석연하게 안겨오지 않았다. 대신 《혹시 내가 없더라도》라는 문구는 나를 대경실색케 만들었다. 하여 지금껏 잡아들인 사냥물들을 달구지에 처신고 허둥지둥 읊거리로 달려 내려 갔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었다. 고운숙은 벌써 학교를 떠나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 버렸던것이다. 교원의 직분에 그리도 충실하고저 애 쓰던 처녀, 하여 그 밤의 《피물》앞에서도 한사코 물려 서지 않고 돌진하던 용감한 처녀가 무엇이 무서워 뒤걸음질쳤단 말인가? 내가 얻어 들은 단편적인 이야기정도로는 그의 교원사직이 잘 설명되지 않았다.

나도 드디어 포수직업을 버렸다. 이듬해 초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무력을 정규군으로 개편하고 성대한 열병식까지 거행하셨다는 소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고운숙의 권고대로 인민군대에 탄원입대한것이였다.

나는 군대에 입대하여 지도 보는 법을 배우면서야 표준바다면에서 같은 높이의 지점들을 이어 련결한 오불요불한 선이 등고선임을 알았다. 그 선상에선 아무리 몸부림치며 빙빙 에돌아도 결국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 온다는것을 발견하고 보니 새삼스레 깨달아지는바가 컸다. 수천년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메돼지들의 자리길이야 말로 짐승으로밖엔 남을수 없는 그것들의 《숙명》이었던것이다!...

《다 왔어요!》

등뒤에서 울리는 처녀군관의 안도에 찬 속삭임, 이미 내가 비치는 등그런 전지불빛도 물기가 질박한 오지퇴수관을 어루머듬고 있었다. 오지퇴수관은 웃쪽으로 올라 가다 콩크리트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모든것이 예견한 그대로였다.

《수류탄!》

즉시 안전고리에 통신선을 켜 목직한 반땅크수류탄이 내 어깨너머로 넘어 왔다. 나는 그것을 퇴수관 옷목에 단단히 비끼려했다.

불안이 가슴을 옥죄었다. 하수도가 직선으로 뻗어 수류탄이 될 때 휘뿌려 질 파편이며 콩크리트조각들을 피하기가 어려울것이기때문이었다. 더우기 위생실에 적들이 있어 즉시 사격을 가해 온다면?!... 유일한 방도는 오직 폭음과 동시에 적들이 정신 차릴새 없이 파렬구를 뚫쳐오르는것 뿐이다!

...폭발은 예상이상의 날카로운 굉음으로 모두의 고막을 찢었다. 그와 함께 뜨거운 폭풍이 파편들을 앞세우고 맹렬하게 우리를 덮쳤다. 누군가의 피로운 신음속에서 나는 한쪽팔을 쇠뿔뿔로 후려 치는듯 한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머뭇거릴참이 없었다. 펄 뚫려 진 파렬구로부터 화약가스로 뿌에 진 한아름의 빗발이 쏟아져 내린것이였다. 나는 비호같이 몸을 날렸다.

운이 좋게도 방안에는 적들이 없었다. 갈증을 덜어 보려고 들어 왔던듯 싶은 한놈이 물통 몇개를 모두어 쥔채 골이 터져 엎드려 있을뿐이였다. 대신 폭발에 터진 수도관이 분수 같은 물벼락을 온몸에 들썩웠다. 제길, 여기서 군복이며 얼굴에 매닥질된 오물을 깨끗이 씻었으면!

기관단총을 꼬나들고 다음 방으로 통하는 문짝을 걷어 차려는데 뒤따라 선 처녀군관이 다급히 팔소매를 잡았다.

《그만 댈요! 술한 방들을 지나면서 놈들과 맞붙었다간 정면현관까지 가기가 힘들거예요. 무대를 거쳐 객석으로 쪽 빠지자요!》

그의 말이 옳았다. 한시바삐 정면현관을 차지하고 전체 소대의 돌입을 보장해야 할 우리였다. 얼마나 다행인가. 처녀군관이 따라 와준것은, 그가 서울태생인것은!

그다음부터 일은 순조롭게 되어 갔다. 객석의 휘장을 들치고 소리없이 뛰쳐 나간 우리의 기슭에 밖에만 주의를 돌리던 정면현관의 적들은 맞총질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제압되였다.

나는 두 대원을 남겨 량쪽 복도로부터 덤벼들수 있는 적들을 견제하도록 하고 숨 돌릴새없이 2층으로 뛰어 올랐다. 색 다른 총소리에 이상을 느낀 적들이 총구를 돌려 댔을 때에는 우리가 벌써 층계우에 올라 선 뒤였다.

그러나 3층에서는 적들이 원주며 층계란간뒤에 몸을 숨기고 앞질러 불질해 댔다.

썩그랑!-하고 우리가 박산나는 아츠러운 소리, 계단대리석에 맞고 튀어 나는 총탄들의 광곳광곳거리는 불찌, 황급히 엎드리며 허리춤을 더듬는데 또다시 등뒤에서 처녀군관이 제지했다.

《안돼요. 될수록 수류탄은 쓰지 말아요!》

《여기까지 따라 왔소?》 나는 그를 밀치며 버럭 증을 냈다. 《내려 가시오. 밑에서 기다렸다가 다 끝난 다음… 방송이나 설치하란 말이요!》

《어마, 부상 당했군요!》

치너군관은 물러 날 대신 껌싸게 내 팔을 끌어 당겼다. 순간 여태 느끼지 못했던 무서운 아픔이 팔수를 쥔 찢렸다. 질로 으드득 이가 갈렸다.

《젠장, 정 애를 먹이겠소?》

원주뒤에 숨었던 놈이 수류탄을 뿌리려고 상체를 드러낸것은 그 찰나였다. 픽 총구를 돌려 대자 놈은 목에 건 카빙총을 덜걱거리며 총계를 구울러 내려 왔다. 그 다음 또 한놈, 또…

제길, 총계는 얼마나 높고 가파로운가. 이러다간 메돼지팔로 더 올라가 내지도 못하고 등고선만을 빙빙 에돌것 같군!… 느닷없는 비유에 창황중에도 나는 픽 웃어 버렸다.

총계, 총계, 군화발에 밟혀 이발 갈리는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유리창조각들… 반사적으로 련상되는, 얼핏 상기하기만 해도 애달픔과 노여움에 숨이 막히는 그 깨어진 유리창이야기!…

아이들이 선생님의 분공에 따라 교실유리 한장씩을 맡아 닦았다. 그러다 어느 한 장난꾸러기가 까불다가 유리 한장을 깨먹고 말았다. 경악한 아이들의 비명, 뻔히 들킬 노릇이지만 장난군은 그래도 선생님한테서 욕먹을 무서운 순간을 다문 몇분이라도 늦춰 보려고 허겁지겁 그 조각들을 끌어치웠다. 드디어 선생님의 청소결명이 시작되었다. 숨죽인듯한 교실, 유리 한장한장을 살펴 보는 선생님의 발자욱소리만이 정적을 깨칠뿐, 마침내 깨어진 유리창앞에서 치너선생의 걸음이 멎었다.

《누가 맡은 유리?》

바스락소리 하나 없는 침묵, 끝내 장난꾸러기는 견뎌 배기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군채 비실비실 일어섰다.

《순호학생이였군요.》

치너선생은 그 자글자글 끓는듯한 미소를 함뻑 담은채 손을 들어 깨어진 유리창을 가리켰다.

《자, 모두들 보세요. 유린 순호학생처럼 저렇게 터 한점없이 닦아야 하는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모두 떼꾼해 졌다. 그다음… 누군가 킁 찻 웃음을 흘렸다. 그것이 신호로 되어 하하하고 터져 버린 폭소, 안경쟁이치너선생이 그만 눈부신 여름햇빛이 아낌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빈 창구멍을 제일 잘 닦은 유리로 잘못 본 것이었다!…

단지 창피를 당했다는 그 한가지 리유때문에 무안해져서 교원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겁한 행위인가. 산골군에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자 평양으로 가던 걸음마져 돌려 자원했었다는 바로 그 고운숙이!…

시계탑속의 적들이 특히 발악적으로 저항했다. 수류탄 한발만 던져 넣으면 끝장을 볼수 있었지만 나는 《될수록 쓰지 말아 줘요!》 하던 치너군관의 당부를 끝까지 지켜 주고 싶어 모험을 결심했다.

포수들은 큰 짐승을 사냥할 때 개를 한마리만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사냥개가 많으면 위험을 느끼고 멀리 도망치거나 굴속에 깊숙이 틀어 박혀 나오지 않기가 심상이기때문이다. 그러나 한마리면 얹잡아 보고 제편에서 먼저 달려든다. 그때 쏘아 잡으면 종일 시간을 허비하며 쫓아 다니는 수고를 덜수 있는것이다. 대신 그것은 생명을 내걸것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한 대원에게 시계탑창문을 정확히 겨누라고 지시한 다음 온몸을 드러내고 그 창문앞을 휘가로 질렀다. 그쪽은 숨을 곳이 전혀 없는 지붕로대였다.

나의 계교는 들어 맞았다. 줄곧 출입문만을 노리고 있던 적기관총수는 이게 웬 떡이나 싶었던지 열결에 창력우에 총구를 쏙 내밀었다. 그것이 그놈의 생명을 끝장내 버렸다.

나는 시계탑출입문을 향하여 선잠 몸을 날린것이 치너군관이였음을 겨우 가려 보았다. 소대가 건물에로 돌입한것은 그 다음이었다!…

언제 어디서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지… 지붕로대에서 한눈에 굽어 보이는 광장에는 포차우에 높이 올라 혹은 모터씨클이나 도보로 행군해가는 인민군대오를 환영하려고 펼쳐 나선 서울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희한한것은 세종로의 한복판을 랑랑한 종소리와 함께 온통 꽃송이로 단장한 전차 한대가 사뭇 호기롭게 내달리는 광경이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가득 매달려 있었다.

치너군관이 내 앞으로 곧추 다가왔다. 어째서인지 그의 두눈은 안경알속에서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다.

《무슨 객기였어요?》 그가 대뜸 야무지게 내쏘았다. 《기관총앞에 그렇게 나서다니, 미옥스레!…그 팔을 이리 내세요!》

치너군관은 사정없이 내 팔을 끌어 당겼다. 그러나 개인봉대포를 찢어 상처를 감기 시작한자 그의 이마에는 긴장에서 오는 진땀이 구슬처럼 내뿜었다.

나는 머리가 핑 도는듯한 이상야릇한 흥분에 몸을 떨며 속삭이듯 증얼거렸다.

《보이지요, 중위동무. 저 <중앙청>우에 날리는 공화국기발! 이제 서울시도 완전히 우리것인셈이지요?!》

치너군관은 대꾸없이 빙그레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길은 지붕끝에서 고성기를 설치하느라고 여념 없는 두 통신병에게 쏠려 있었다.

돌연 그가 몸을 떨며 부르짖었다.

《들었어요, 예?!》

《?!》

《아이 참, 시계가 돌기 시작했단 말예요!》

비로소 나는 한개 중대쯤의 발구름소리처럼 울리는, 대신 어방없이 느릿느릿한 척 척... 하는 울림을 가려들었다. 하수도속에서 무슨 전기선단 절이 어땡고 하더니 입무 받은 통신병이 끝내 끊어진 부위를 찾아 련결한것이 분명했다.

《뭘해요?》 처녀군관이 나를 떠밀며 재차 웨쳤다.

《빨리 시간을 맞춰야. 우리 시간을!》

우리는 즉시 어떤 장난을 꾸미는 어린애들과도 같은 천진한 흥분에 떠밀려 어둡스레한 시계탑속으로 뛰어 들었다.

나는 새삼스레 탑시계가 거대한 하나의 기계처럼 복잡하고 웅장한데 놀랐다. 기계속에 갇힌 내 눈에도 시계가 오래전 옛날의 추시계와 같은 원리로 바늘을 돌리고 있다는게 험동했다. 다만 추대신 동력의 힘으로 돌아 갈뿐이었다.

처녀군관이 재빨리 바늘을 낮 열한시 가까이로 맞추었다. 그다음 어느 한 무쇠기둥에 등을 기대며 지친듯 방긋 웃었다.

《됐어요. 이제야 동무와 이야기할 짬을 얻었군요.》

어떤 비상한 예감으로 심장이 쿵! 요동쳤다. 혹시 절벽거리며 돌아가는 시계초침의 메아리와 혼돈한것은 아닌지?... 처녀가 계속했다.

《그때... 제가 도망쳤다고 무척 욕했겠. 그렇, 철국동무?!》

《!...》

처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눈썹리틀, 아니 가슴속까지 화끈 지지는것 같은 그 자글자글 끓는 미소였다. 그러니 고윤숙은 처음부터 나를 알아본것이였다!

그러면서도 왜 여태 안보살했는가. 혹시 그때 절골에서도 이처럼 짐짓 모르는체 한개 아닐가?!... 이 처녀와 마주 서기만 하면 공연히 심술을 피우게 되는것이 어이없었지만 나는 이번에도 자신의 의사를 거슬러 툭 볼멘 소리를 내질렀다.

《난... 모르오. 깨진 창문유리 하나쯤 헛갈렸다고 질겁해 달아나는 비겁쟁이따윈!》

《동무도 그 애길 들었군요.》

고윤숙이 별로 타내지도 않고 되받았다. 그러나 입가에서 끓던 미소는 서서히 스러져 버렸다.

《그런 일이 있었. 그때 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눈이 나쁜 탓에도 그런 실수가 빚어 지는데 하물며 줄곧 남조선에서만 교육을 받아 온 나의 이지러진 머리는 실수가 없겠는가? 우연히라도 말예요! 우리 후대들을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인간들로 키우고 떠밀어 내세워야 할 내가 그 메돼지

들처럼 한 등고선만을 빙빙 돌게 만든다면... 오히려 더 퇴화시켜 버린다면!... 아니예요, 비겁쟁이인것은 틀림 없지만 아이들을 위해선 다행스러운 결심이였다고 믿고 싶어요.》

그 다음 고윤숙은 처음의 미소를 다시 살짝 떠올렸다.

《마침 어버이장군님께서 저 같이 남조선에서 들어 온 사람들을 대학들에서 마음껏 배우도록 해주셨다는 소식을 접했. 학교에 새 교원들도 배치되어 온 참이라 전...》

어느 구석에선가 버스럭소리가 난것은 그 순간이었다. 뻥 몸을 돌린 나는 어스레한 시계탑구석에서 어떤 시키던 그림자가 비척거리며 한손을 휘두르는것을 보았다.

내 총구에서 즉시 불이 뿜어 나왔다. 동시에 주먹만 한 물체가 탑시계의 치차를 쟁 때리며 바닥에 굴렀다. 나는 착발신관이 딱 하고 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윤숙선생, 얼드리오!》

나는 정신없이 소리치며 수류탄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어디에?!... 눈앞에는 건물밖 광장에서 설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핏 스쳤다.

그 짧은 망설임이 모든것을 결정해 버렸다.

《철국동무!》

가냘픈 속삭임을 들었을 때에는 이미 고윤숙의 몸이 수류탄을 덮어 누른 뒤였다.

무시무시한 핑음이 시계탑안을 뒤흔들었다. 고윤숙의 몸이 들썩 몸부림치더니 이어 눈 부신 섬광을 앞세우고 화약내굴이 물씬 피어 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폭음은 아무런 섬광도 내굴도 없이 다시, 또 다시 련속 시계탑안을 뒤흔들었다.

피괴한 정적이 두리를 휘감았을 때에야 나는 그 《폭음》이 정각 열한시를 알리는 탑시계의 종소리였음을 깨달았다. 극장밖 광장에서 와!- 환성이 터져 올랐다. 공화국시간의 첫 고고성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열광적인 화답이었으리라.

나는 고윤숙을 조심히 안아 올렸다. 수류탄의 폭발에 갈가리 찢긴 군복, 끊임없이 습배여 나오는 더운 피 그리고 깨어진 안경알속으로 드러난 꼭 감은 두눈... 처녀는 숨진것이였다. 아무도 모르게!

오열이 치받쳐 나는 고윤숙의 섬약한 어깨를 으스러지게 껴안았다. 순간 자글자글 끓는듯한 그 특이한 미소가 제일 먼저 피어 오르군 하던 처녀의 입귀가 방싯 벌려 진것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줌전에 그는 하던 말을 미처 맺지 못했었다. 다름 아닌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 주고 싶었던것은 아닌지?!

《생각나요, 철국동무?》

《뭘 말어요?》

《그 메돼지들의 자리길!》

《그래, 그래》

《우린 <등고선인생>이 되지 말자요. 알았?!》

며칠후 남으로 진격하는 대오속에서 나는 서울의 그 부민관에서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첫 공연이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성대히 막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극장에 들어가지 못한 수

만의 군중들은 옥상에 설치한 방송이라도 듣겠다고 온밤 광장을 짹 메웠다고 한다. 그다음... 《의용군》탄원대렬이 곱으로 늘었다며 병사들은 기꺼운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서울해방전투를, 고운숙을 잊지 못한다.

나의 아버지는 전쟁로병이다

리일섭

내 오늘
나의 아버지를 노래함은
물려준 가산이 많아서도 아니
그 누구의 아버지처럼
앞가슴에 금별메달 빛나서도 아니

말없이 그저 한생을 묵묵히
우리 수령님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받들어
로동속에 허리굽은 아버지
내 오늘 그리도 땀땀이 자랑함은
-나의 아버지는 전쟁로병이다

명예도 아닌
재부도 아닌 그 말
부를수록 가슴 부풀고
부를수록 눈굽 뜨거워 지는
바로 그것때문이 아니던가

...추억도 눈에 삼삼해
복구건설이 한창이던 그 나날
포연서린 군복에 병사모 쓰고
재더미 헤쳐 벽돌집지며
밤늦어 돌아오군 하던 그 모습

전쟁때 입은 상처가 도저
신음소리 참아가던 날도
나쁜놈들때문에
수령님 얼굴이 더 축간것 같다고
출근길 서두르며 흐려지던 그 눈빛

락동강에서 돌아 못한 전우들이
나를 지켜보는것만 같다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며
내 군복 입고 고향 떠나던 날도
렬사묘 언덕으로 이끌던 그 손길

못잊어 정녕 못잊어
우리 먼저 군복을 입었다고
로병이라 부르던가
가슴에 단 훈장이 많아
로병이라 부르던가

가끔 차례지는 관람권 한장도
굳이 사양해 도로 밀어놓으며
이런 특혜를 바래 싸우지 않았다고
전화의 날 세운 위훈도 공로도
그 모두 공민적의무로 여기는 세대

내 언제면 그 높이에 살라
수령님 그 은혜에
피로써 갚을줄 안 세대
조국의 그 부름에
목숨 내대고 나설줄 안 세대

그들의 그 고귀한 넋이
그들의 그 불굴한 기상이
오늘도 우리의 대오앞에
영원한 표대로 기치로 되어
새 세대 천만심장 불러 일으키나니

저 하늘에 침략의 불구름 밀려올수록
50년대 아버지세대들처럼
장군님 결사옹위하는 성전에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혈전에서
한목숨 다 바쳐 싸울 불 타는 한마음

오, 내 오늘 가보처럼 간직한
아버지 전화의 날 받은
그 작은 하나의 군공메달
금별처럼 무겁게 이 가슴에 얹어보며
마음속에 소리 높이 긍지 높이 웨치노라
-나의 아버지는 전쟁로병이다!

전쟁과 시

오영재

이제는 이미 작고한지 오래인 한 선배시인이 한 말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인민들이 지금도 애송하고 있는 훌륭한 성과작들을 남긴 시인이며 지식도 풍부하고 박식하여 그가 들려 주곤 하던 격언적인 이야기들을 나는 오늘도 젊은 시인들에게 되풀이해 주기도 한다. 그는 말하기를 시를 쓴다 해서 다 자기를 시인이라고 자처하지 말라, 자기는 수십년 시를 써왔지만 언제 한번 자기를 시인이라고 생각한적 없다, 적어도 시인이라고 말할 때는 세계와 우주와 력사와 대화를 나눌수 있는 그런 정신적높이에 있는 사람만이 시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많은 이야기들을 그에게서 들었지만 시인에 대하여 한 이 말만은 류달리 깊이 내 뇌리속에 새겨져 있다. 그말에 크게 느껴지는것이 있어서인지 지금까지 나도 나를 시인이라고 꺼리낌없이 부르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상대방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신분중에 적혀진 직위인 작가라고 부르는데서 한결 마음 편안한감을 느낀다. 사실 이것은 또한 나의 피로움이기도 하다. 한생을 시문학에 몸을 담아왔지만 아직도 자기를 시인이라고 몇몇이 자처할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앞에서이다. 이것은 꾸며낸 겸손성도 아니며 나의 진정한 심중의 자책이기도 하다.

렬등한것과의 대비는 자체위안이며 우월한것과의 대비는 자기불만이다. 속물적인 인간이 아닌 이상 사람들은 언제나 한생을 자기불만이라는 모순속에 있다. 그러나 우월한것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같은것이 아니다. 작가로서의 능력과 품성으로 보아서나 그가 이 세상에 남긴 출중한 작품으로 보아서나 단연 대가로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한 로작가에게 한 젊은 작가가 이런 물음을 제기한적이 있었다. 그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한 작가의 이름을 들면서 선생은 그와 경쟁하고 있는것이 아닌가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있던 그는 뜻있는 웃음을 지으며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니요. 나는 그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소. 나는 나 자신과 경쟁하고 있소.》

자기자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에 대한 무한히 높은 요구성일것이다. 그 척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같은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도 그 요구성을 언제나 자신에게 제기하며 시를 써왔다고 말할수 있다. 지금까지의 짧지 않는 나의 창작생활과 세상에 내놓은 작품들을 놓고 자신의 한생을 총화해 볼 때 어쩐지 자신이 왜소해지는 감은 있지만 어차피 시와 인연을 맺어 버린 지나

온 생활의 굵이굵이를 여기서 펼쳐 보는것도 결코 무익한것은 아닌것 같다.

주체39(1950)년 여름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어 우리 고향이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해방되기 전까지 나는 미제강점하에 리승만괴뢰정부가 통치하는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온갖 어지러운 사상과 관념이 혼탁된 굴욕적인 사회에서 나에겐 그 어떤 전망도 생활목표도 없었으며 더우기는 문학에 목적을 두고 앞으로 작가가 되어 보려는 꿈조차 없었다. 기껏해야 머슴군들이 사는 사랑방에서 굴러다니는 럽기적인 탐정소설을 몇권 주어 읽어 보았을뿐이었다. 시에 대해서는 더우기나 흥미가 없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은 상징주의나 모더니즘의 퇴폐한 사상으로 씌여진 시로서 우선 난해하여 그 뜻을 리해할수도 없었고 전혀 감흥을 느낄수도 없는것들이었다. 몽롱한 안개속처럼 그 무엇 하나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것도 없었던 나의 방황하는 인생길에 시원히 안개를 걷어 주고 나의 눈에 하나의 뚜렷한 생의 목표를 세워 준것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어엿한 병사가 되어 가렬한 싸움길을 헤쳐 가던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락동강계선으로부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어 태백산줄기를 타고 38° 선을 넘어섰을 때 어느 불타버린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어느 한 집에서 불에 그슬린 몇권의 시집을 손에 넣게 되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전선문고로 출판한 종합시집과 개인시집들이었다. 나는 행군하는 설참마다 배낭에서 그 책들을 꺼내어 흥미 삼아 읽어보았다. 조기천, 박세영, 김조규 등의 시들이었다.

50여년이 지난 지금 나는 가끔 그 시들을 들추어내어 읽어 보면서 그 시들이 그때 애젊은 나의 가슴에 어찌하여 그토록 크나큰 충격과 흥분을 주었는가를 다시금 돌이켜 본다. 그 시들에는 해방의 감격도 있었고 평화롭던 5년세월의 티 없는 행복도 있었고 전화의 종군길을 걸으며 눈물을 삼킨 원쑤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지명도 기억할수 없는 북강원도의 어느 한 불타버린 농가에서 얻어본 그슬린 그 시집들은 정의롭고 아름답고 참신하고 진실한 위대한 공화국과 생활의 어지러운 시궁창길을 눈물로 걸어 온 이 애젊은 불행아와의 첫 상봉이었으며 나를 문학의 길로 해면처럼 빨아 들인 고마운 안내자들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로동계급은 자본의 철쇄를 마스기 위한 투쟁

에 나선 첫 시기부터 시를 전장에 올리는 북소리나 진군의 나팔소리와의 같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위력한 전투적무기로 삼아 왔다.》

내가 그때 체험한 시에 대한 매혹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른다. 시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생의 목적도 지향도 명백치 않았던 애젊은 이 병사의 가슴에 새겨진 시는 한송이 꽃이였고 나의 첫 사랑이었다. 또한 시는 진공과 후퇴의 피어린 전선길, 죽음과 삶의 판가리 격전장에서 총과 함께 내걸에서 언제나 함께 있어준 돌도 없는 길동무였다. 나는 지금도 문득 생각하곤 한다. 내가 만약 정의로운 인민군대오에 서지 않고 내가 자란 그 남녘의 고향땅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듯 오늘까지 시를 써울수 있었겠는가. 시에 대한 매력을 전혀 몰랐던 그 젊은 시절 인생행로의 발걸음을 어디를 향하여 옮겼을 것인가에 대하여.

전쟁은 그대로 시였고 그 나날은 매일매시각 시적인 흥분으로 충만된 나날이었다. 승리의 환희도 있었고 전우를 잃은 슬픔도 있었고 분노와 아픔, 눈물이 끊임없이 엇갈린 그 나날 시는 변함 없는 길동무로 나의 가슴속에 있었다. 또 한 차례 고지방어전이 끝난뒤 희생된 전우들을 묻으며 조총을 울릴 때 나는 김조규의 시 《여기에 한 전사를 묻는다》를 전우들앞에서 읊었다.

시인은 종군길에서 바로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분대장 오재근의 희생이 너무도 가슴아파 이 시를 썼을것이다. 시를 읊은 나도 울었고 전우들도 분노로 두주먹을 부르짖며 울었다. 이런 계기가 있었으므로 하여 중대의 병사들은 때때로 나에게 시를 읊어 줄것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내가 애송하고 있는 시들을 읊어 주곤 하였다. 때로는 내가 전투의 여가에 병사수첩에 적어 놓곤 하던 서투른 자작시들도 읊어 주었는데 기성시인들의 시들보다 내가 지은 즉흥시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나를 중대의 《꼬마시인》이라고 중대장도 소대장도 사랑스럽게 불러 주었다. 내가 지은 자작시가 어찌 기성시인들의 시들보다 나을수 있었으랴만 자기들이 체험하고 있는 생활을 그대로 보여 준데도 있었고 시를 짓는 병사가 한중대에 함께 있다고 하여 자기들도 자랑스러워 그런 찬사를 보내주었을것이다.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그 누구의 지도도 없었고 초보적인 작시법도 모르고 덮어 놓고 생각나는대로 쓴 시인데도 자기의 창조물이라는 그 애착으로 하여 자기의 시도 출판물에 나오는 기성시들과 결코 못지 않다는 분별없는 자부심에 넘쳐 전선신문과 인민군신문에도 투고해 보고 작가동맹에서 전국적으로 별리는 현상응모에도 원고들을 날려 보았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친절한 편집원이 회답을 적어 보냈다면 시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실망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 구애되지 않고 시를 쓰고 또 썼다. 시를 쓰는것이 화선

병사시절 미국놈 몇놈 잡은것과 같은 작아도 큰 기쁨이었기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문학잡지로서 제일 권위 있는 잡지인 《조선문학》에 몇편의 시를 묶어 투고해 보았다. 얼마후 회답이 왔는데 《조선문학》은 작가동맹 맹원들의 작품만을 실게 된 잡지인 만큼 이런 작품은 인민군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 보내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인내성 있는 독학과 습작이 첫 열매를 맺게 된 그런 날이 드디어 나에게도 왔다.

주체42(1953)년 3월 30일부 전선신문 《앞으로!》에 나의 시 《강도는 깊어 간다》가 발표된 것이다.

그날 내가 근무를 교대하고 병실로 향하는데 사단지휘부로 넘어 가는 언덕길을 내리며 기쁨수가 무엇인가 하얀 종이를 흔들며 나를 부르며 달려 내려왔다. 전선신문에 나의 시가 발표되었다는것이다. 신문을 받아 보았을 때의 그 기쁨을 무엇이라 표현할수 있을것인가. 나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활자로 찍혀 진 나의 이름을 보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들을 써서 발표했고 시들마다 나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건만 그때처럼 나를 흥분시킨적은 없다. 그 시는 아침기상하자마자 고지에서 내려와 포탄상자를 지고 20리 포진지까지 운반해 오면서 생각나면 바위우에 걸터앉아 수첩에 적으며 그야말로 짐이 무거운줄 모르고 눈먼 포탄이 앞뒤에서 터지는속에서 찻찻이 쓴 시였다.

...

상록을 노려 오만하게 떠도는
양키배의 머리우에
죽음의 심판을 내릴
철웅의 진지

이제 암석깊이 박힌 도화선에
불이 옮겨 지면
원쑤의 심장속 깊이 파고 들어
천조각 만조각 가루로 부실
거센 폭음을 울릴것이니

원쑤들아 기억하라
우리 강도가 깊어감은
네놈들의 죽음의 시각이
가까워움을...

보다실이 이것이 내가 18살 병사시절 첫시를 발표한 나의 수준이다. 시가 너무도 어려서 1970년대 초에 시집 《행복한 땅에서》를 묶을 때도 비록 첫 발표작이었지만 얼굴이 뜨거워져 넣지 못한 시이다. 그러나 가슴에 혼장을 가득채운 전투영웅도 첫 군공메달을 잊지 못하듯이 나도 이 시를 잊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적지 않게 발표한 시들이 이 시로부터 시작됐기때문이다.

이 시를 발표한 때로부터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짧지 않은 세월 시는 언제나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나의 한생의 길동무가 되어 주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놓고 볼 때 한생의 길동무를 선택하는것을 매우 심사숙고했으며 그렇게 선택한 길동무도 도중에 싫증을 느껴 길동무를 바꾸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그러나 나의 경우 시라는 나의 길동무를 선택하는데 깊은 고려도 없었고 또 지금까지 그 어떤 모순도 후회도 없이 사는 오늘도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나의 친근한 벗으로 되고 있다. 첫눈에 반해 버린 녀성과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사이 좋게 한생을 살아온 사람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수 있다면 나도 그런 행복자라고 말해도 좋겠는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나를 시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

는 아직도 뿔뿔이 나를 시인이라고 자부하기에는 시로써 해놓은 일이 너무도 적다. 내가 쓴 수백편의 장편서사시, 서정서사시, 장시, 서정시, 가사들중에 당과 인민의 기억속에 남아 있는것은 그리 많지 못하고 버려져버린것을 많이 쌓아 놓았다는 아쉬움이다. 결국 시작은 컸지만 총화는 작은 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을 오늘날 선군혁명동지라는 크나큰 믿음으로 불러 주고 계신다. 이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은 비록 로병이라고 불리워 지는 나이에 있지만 언제나 전화의 날의 청춘으로 살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가겠다는 결의를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돐을 맞는 뜻 깊은 이날에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이사집 가득실은 차들이 간다

김휘조

넓게 시원하게 툭 트인 이 길
차들이 간다. 이사집 가득
적재함엔 남너로소 어깨춤 두둥실
금시 하늘가에 날아 오를듯
그래도 내 눈곱엔 눈물이 젖누나

염소때 흰구름 핀 저 산기슭엔
또다시 선 새집들 농장원들 하얀 집
창문엔 해빛이 어리광치고
벌써 깃을 찾아 제비 쌍쌍 날아 오네

박꽃같이 환한 웃음 담고 선 저 처녀들
눈가에도 맑은 물방울이 구울러라
모든것이 풍족할 때 새집들이 한다면
환한 웃음꽃에 눈물이 젖을가

말하라 길가 늘어진 버들아
온 하루 김매기에 지치고 지친 몸
그래도 기초를 파던 밤들의 우등불
우릴 못살게 하려는 원쑤들 봉쇄에
모자라던 세멘트, 모자라던 철근...
가슴도 타던 밤들을 네가 말하렴

말하렴, 우리의 행복 위해 야전복 입고
전선길 먼길에 계실 장군님
그 생각에 밤에도 우린 작업복을 안벗었지
잔등에 허연 소금꽃이 피도록
땀 흘려 한장한장 벽체를 쌓으며...

차들이 간다. 오늘은 이사집 가득
지나온 찬겨울은 다 잊고
춤노래가 두둥실 간다
장군님만 계시면 복된 날이 온다고
굳게 믿던 그 마음들이
급힐줄 모르던 곳곳한 그 마음
더 밝은 래일을 안은 춤과 노래가 간다

원쑤놈들 기승도 우리앞엔 물거품이다
보아라. 춤노래에 실린 우리의 신념으로
넓게 시원하게 툭 트인 이 길

내 눈앞엔 어리누나, 이 길에서
우리 걸을 더 넓고 눈부신 길이
오늘도 이사집 가득 차들이 간다
새집들이 이사집 가득

눈이 내린다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첫눈 내리는 날이면 잊지 못할 먼저 간 동지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면 내 마음을 달래려고 그 눈길속을 걷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다.

지나간 겨울 첫눈 내리는 날에도 나는 모란봉의 하얀 눈을 밟으며 걸었다.

푸른 대동강물과 5월1일경기장을 바라보느라 먼저 멀리에서 노래소리가 들려 온다.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빨찌산 이야기로 이 밤도 깊어 가는데
불밝은 창문가에 흰눈이 내린다

...

남조선에서 파쑈도당의 서슬이 퍼렇던 80년대 어느 초겨울날 있었던 일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을 수용했던 대전감옥 독거운동장(높이 2.5m 정도의 콘크리트 담벽으로 부채살모양의 칸을 막고 한사람씩 들어 가게 만든 운동장)에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날은 좀 춥기도 했지만 구름이 낮게 드리워 추위를 더 느끼게 하는 으스스한 날씨였다.

운동하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감시하는 간수도 추운지 높은 감시대우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낮은 구름으로 하늘이 어두워지는듯 하더니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운동담당간수는 성급하게 《운동 그만, 1방부터 입방》하며 그 어느때보다도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감옥규정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운동을 중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수감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운동담당간수들이 자기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그래야 휴게실에 가서 휴식할수 있다.

그런데 이 운동담당간수의 《운동 그만, 입방》하는 고함소리를 무시하고 그 누구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운동간수는 《무슨 노래야. 입방》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그러나 노래 부르는 사람의 정서는 더 막을수 없을 정도로 정열적이었다.

...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밀림의 기나긴 밤을 못잊어 차마 못잊어
함박눈 송이송이 고요히 내린다

우리들 비전향장기수들은 퍼붓는 눈속에서도 숨소리를 죽이고 그 노래소리에 온 정신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라도 눈내리는 그속에 서있고 싶었는데 아!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는지 포근하고 부드러운 음성의 좀 느리고 서정적인 노래는 눈내리는 분위기와 호흡이 일치하였다.

운동담당간수의 마음도 동했는지 《입방》하는 고함소리를 더 이상 웨치지 않았다.

노래는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이 나라 빨찌산들의 그 념원 꽃핀 강산에
이 밤이 지새도록 흰눈이 내린다

...

관현악의 반주도 아니 피아노의 반주도 없었지만 그 노래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노래가 끝났다. 그런데 주위는 조용하다.

우리모두는 넋잃은 사람처럼 서있었다. 운동담당간수의 《운동 그만, 입방》하는 목원 고함소리도 없었다.

독거운동장이어서 우리들 서로의 얼굴은 볼수 없어 다른 사람의 표정은 알수 없었다.

그런데 그 누구의 시작인지 모르지만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도 그때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와 박수를 쳤다.

우리모두의 감동이 순간에 박수로 폭발하였다. 공개된 음악회장소였다면 재청하면서 고향도 질렸을것이다. 그때에야 운동담당간수도 정신이 들었는지 보통때보다 낮은 음성으로 《운동 그만, 입방》하고 말하였다.

누구도 그 순간의 정서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을것이다. 아니 오래도록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을것이다.

모두가 조용히 한사람한사람 자기 독감방으로 들어 갔다.

그 어떤 요란한 극장의 음악회도 이처럼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 못했을것이다.

옥중 몇십년동안 나는 눈내리는 밖에 서보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눈내리는 속에서 내 마음을 꼭 붙잡는 노래까지 들었으니 그때 그 정서가 어떠했는지 비전향장기수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리라 고 생각한다.

옆에서 통방이 왔다.

방금 노래 부른 사람은 신인영동지였다고 한다. 다른때같으면 규정위반이라고 당장 취조실로 끌고 가 고문하고 징벌방에 감히워 몇달동안 운동

도 금지시켰을 것이다. 아니 《국가보안법》에 걸려 고무찬양죄로 추가징역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운동담당간수도 아무 말이 없었다.

신동지도 징벌받을 각오를 하고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자연스러운 폭발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신인영동지를 처음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기 놈들이 동양 최대의 감옥이라고 자랑하던 대전 중구금감옥에서였다.

전두환이 군사쿠테타를 일으켜 집권한 후 광주 인민봉기를 무참하게 진압하였다.

이때에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대학생들과 노동자, 농민, 량심적인 종교인들이 수없이 구속되어 감옥의 수용인원이 과잉상태에 이르자 대전 감옥을 새로 건설하고 주체73(1984)년 3월 20일 일제때 건설한 감옥에서 새 감옥으로 수용자들을 옮기었다.

이때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에 분산되어 있던 비전향장기수들을 다 대전감옥에 집결시키었다.

신인영동지는 이때 전주감옥에서 대전감옥으로 옮기여온 후 운동시간에 간수의 눈을 피해 나와 처음으로 인사를 했다.

그의 온화한 표정과 환한 미소 그리고 지성이 넘치는 반짝이는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그후 동방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하에 공화국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전해왔다. 그는 항상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넘치는 충실한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가사 <눈이 내린다>는 눈이 내리는 고요한 밤에 창가에 앉아 빨찌산이야기를 듣는다는 이야기 밖에 실지 펼쳐진 화폭이 별로 없는데 한번 듣고 나면 그야말로 많은 련상이 떠오르고 깊은 여운에 잠기게 된다.》

신동지가 그 짧은 운동시간에 부른 《눈이 내린다》라는 노래를 들으며 신동지는 물론 우리모두는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감정에 깊이 잠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신념의 정서가 그리도 절절하였기에 운동담당간수도 감히 막을념을 못하였던 것이다.

그날 저녁부터 그 감동의 여운은 나의 마음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운동시간에 밖에 나가보니 많은 눈이 내리어 지저분하던 주위는 깨끗한 흰눈으로 덮여 있었다.

주체81(1992)년 놈들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다시 광주, 대구, 전주로 분산시키었다.

아침에 나는 광주감옥으로 떠나면서 통방으로

통일의 그날까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사로서 끝까지 충실하게 싸울것을 서로 약속하면서 다시 한번 신념의 맹세를 가다듬었다.

그로부터 7년후에 나는 석방되었고 서울에서 있는 한 집회에서 신동지를 다시 만날수 있었다.

그때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는 여전하였으나 불치의 병으로 몸은 매우 허약했다.

우리는 그 기나긴 옥중투쟁의 나날을 이기고 다시 만난 것이 사실인지 확인이라도 하는 것처럼 꼭 끌어 안고 떨어질 줄 몰랐다.

그 집회에서 신동지의 어머니도 처음 만나 뜨거운 인사를 했다. 그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고령의 나이가 된 어머니는 60대 아들의 석방을 위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가족들이 모인 인권운동단체)목요집회에도 빠짐없이 참가했으며 감옥문앞에서 《이 어머니가 죽기전에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을 먹이고 싶다》라고 웨치면서 한 아들만에 대한 사랑을 초월하여 우리모두의 석방운동을 계속 진행한 우리모두의 어머니였다.

그 작은 몸에 그렇게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던 것은 강한 아들을 가진 그 긍지와 자부심으로부터 샘솟는 것이었으리라.

나는 그날 어머니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 보았다. 그렇다. 사랑의 크기는 심장의 크기가 아니라 그 심장이 얼마나 뜨거운 정열을 발산하는가에 있다.

곱게 늙은 아담한 체격, 보기만해도 깨끗한 마음의 향기가 풍기었다.

아들이 불치의 병으로 감옥에서 석방되던 첫날 밤에 어머니는 60년전 아이때처럼 곁에 눕히고 잠을 잤다.

어머니는 손수 지은밥을 60대 아들의 입에 떠 넣어주며 웃고 60대의 아들은 어릴 때의 기분으로 입을 벌리고 밥을 받아 먹으며 즐거워 하던 그 화폭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세상에 그처럼 아름답고 정에 넘치는 순간은 없을 것이다.

아, 흘러간 세월을 탓하라.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늙지 않으며 더욱더 강렬해 지는 것이다.

하물며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어머니의 그 기쁨은 하늘같은 것이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6.15북남공동선언에 의해 우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신동지와 어머니의 헤어짐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는 곳으로 보내면서 통일의 날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92살의 어머니와 불치의 병으로 쇠약해진 70살의 아들이 다시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 기약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도 아들도 그날은 멀지 않았으며 다시 꼭 만난다는 믿음을 안고 있었다. 통일의 날까지 오래오래 살라는 서로의 작별의 말은 그 믿음과 마음속 희망의 말이였다.

이 작별의 순간이 생의 마지막작별로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지도록 아팠다.

조국의 품에 안겨 태양절기념 예술소품공연준비를 할때 그 누군가가 신인영동지가 불치의 병으로 앓고 있지만 그가 노래를 부르도록 공연프로에 넣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예술소품공연직전에 진행을 맡아 보는 나에게 노래제목과 순서가 알려져 왔다.

그런데 내가 공연소개도중에 《다음은 독창으로 노래?...》하고 노래제목이 생각나지않아 망설이더니 소개가 중단되었다. 그때 나는 웃으면서 《노래 제목을 잊어버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신인영동지는 관중석에 인사한후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어>를 부르겠습니다》라고 직접 자신이 소개했다.

...

굽이굽이 머나먼 길 홀로 걸을 때

...

남몰래 살피준 그 사랑 내 미처 몰랐네

아-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어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진심으로 되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무대에서 돌아서 나오는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머니당과 경애하는 장군님이 계시여 그는 감옥에서 마음껏 부를수 없었던 노래를 태양절 뜻깊은 무대에서 부르는 감회가 왜 후덥지 않았겠는가.

공연이 끝난 다음 그는 나에게 노래를 제대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의 숨김없는 겸손한 이야기에 나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눈내리는 날 노래를 부르던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며 내 눈에도 눈물이 솟구쳤다.

조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정말 꿈속같기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꿈속에서도 백두산을 그리워 하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몸소 사랑의 비행기까지 띄워 부부동반으로 백두산에도 가보게 해주시였다.

그때도 우리들은 삼지연군에서 두번에 걸친 예술소품공연을 했으며 신동지의 독창도 빠짐없이 공연프로에 넣었다.

그가 백두산성지에서 노래부르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지만 전혀

환자의 내색은 없었으며 배개봉호텔에서 진행된 탁구경기에도 출전했으니 그 힘과 정열이 노래와 함께 사는 그 신념의 발현이 아닌가 한다.

하루는 야회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락회가 진행되었다. 오락회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신동지의 노래를 듣고 싶다는 청이 터졌다.

요란한 박수소리에 그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사람들앞에 나섰다.

그 순간 나는 신동지에게 이 백두산밀림에서 옥중에서 부르던 노래 《눈이 내린다》를 듣고 싶다고 청했다. 다른 동지들도 진정으로 듣고 싶다고 나의 요구에 열렬히 호응했다.

신동지는 동지들앞에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사실 그 노래는 감옥에서 운동권학생들이 부르는것을 귀동냥으로 배운것이여서 가사도 음도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리해하시고 들어 주십시오.》하면서 그는 노래를 시작하였다. 대전 감옥때와는 다르게 손풍금반주가 있었다.

나는 손풍금보다 피아노반주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가져 보았다.

...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

노래소리는 백두산바람에 실려 정서깊이 울려갔다. 그날은 흰눈 내리는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였지만 눈을 감고 노래를 듣는 나도 우리모두의 마음속에는 백두의 흰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흰눈속에서 항일의 전설적영웅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했고 빨찌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옥자옥을 더듬어 갔다.

모든 사람들은 한없는 그리움에 잠겨 심장으로 그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

너무나도 감격한 사람들은 그 정서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는지 노래가 끝나고 잠시후에야 박수가 터졌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나는 신동지에게 《이제 눈이 내리는 날 피아노반주에 선생님노래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더니 《언제인가 그럴때가 오겠지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후 신인영동지는 감옥에서 얻은 불치의 병으로 그만 먼저 우리결을 떠나갔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으로 그는 오늘 애국렬사릉의 영생의 언덕에 서있으며 우리 인민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렇다. 《언제인가 그럴 때가 오겠지요.》라고 대답하던대로 오늘도 영생의 언덕우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바치는 흰눈처럼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담아 《눈이 내린다》노래를 부르고 있으리라.

전쟁과 승리

리명근

1

전쟁!

불과 불이 마주쳐
거세찬 화염을 뿜긴다
철과 철이 부딪쳐
번개의 예리한 섬광을 번뜩인다
죽음과 삶의 판가름
정의와 부정의 대결-전쟁!

우리는 그 전쟁을 겪었다
피흐르는 상처를 부여잡고
또다시 백병전에 뛰어들었다
그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평화로운 이 땅에
못 잊을 자취를 남겼다
전쟁, 3년간의 전쟁이-

이제는 멀리로 지나 갔건만
지금도 귀전엔 살아 있는
폭음의 둔중한 메아리
그날에 떠돌던 포연이
지울수 없는 추억의 가슴에
자욱히 떠돈다

얼마나 많은 침략의 무리가
얼마나 악착하게 밀려 들었던가
오늘의 로병-그날의 젊은 병사들
고향을 지켜 자신의 존엄을 지켜
무자비한 강철의 총대가 되었다
원췌격멸의 불이 되었다

지금도 눈앞에 험한 격전장
피의 뒤섞임
금시 눈앞에 보여 오는
쓰러진 전우의 감지 못한 눈동자
그것으로 더 무거워진 억센 주먹으로
침략자들의 정수리에 철추를 내렸다
오, 그것이 전쟁이었다

2

승리!

크나 작으나
이겼다는 그 의미는
어디에서나 기쁨으로 통한다
하나 전쟁에서의 승리는

얼마나 거대한 진폭을 가지는가

승리는 진정
빼앗기지 않은 분여 받은 땅이고
짓밟히지 않은 안해와 자식이었고
심장처럼 살아 뛰는 존엄
이 땅의 귀중한 모든 것이었다

못 잊을 전승의 환희여
고지에 터진 만세소리
부들켜 안은 전사들의 포옹
이겼다는 그 말이
가슴에 부풀어 터질것만 같은
이 땅, 이 하늘에 가득찬 격정

길가에 덩구는 돌맹이에서도
승리라는 그 말이 튕겨나고
들에 핀 한송이 꽃도
승리라고 속삭이는
아,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위대한 강철의 령장
우리의 **김일성** 동지의 령도아래
인민은 승리한 인민이 되었다
조국은 승리한 조국이 되었다
그날부터 전승의 새 력사가
이 강토우에 굽이쳐 흘렀다
아, 우리는 승리하였다!

3

전쟁과 승리!

떼여 놓고 부를수 없다
만약 전쟁이 강요된다면
오직 승리만으로 끝나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기에

우리는 전쟁을 이긴 민족
이제 다시
또 전쟁이 있다해도
다 이겨야 할 우리
다 이기고야 말 민족

승리는 어길수 없는 우리의 전통!
전쟁은 침략자들의 것이어도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독자의 목소리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이 타래쳐 오르던 때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선군의 위력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가 있다. 바로 조기천의 시 《조선은 싸운다》이다.

세대가 바뀌고 세기가 교차되었어도 이 시가 오래도록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남아 있는것은 시가 체현하고 있는 사상정서적내용의 심오성과 예술적감화력이 큰데 있다.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시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그대들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 오는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이렇게 서두를 땀 시는 참으로 깊은 감명속에 추억을 불러 일으킨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세계전쟁력사가 알지 못하는 류레없이 간고한 불과 불의 마당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이 키워 낸 우리 인민은 조국수호성전에서 영웅적으로 싸워 미제를 타승하였다.

...

남북 3천리에 채더미만 남았다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이 타고 있는 조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 있다
불길속에서도 연기속에서도
인민은 살며 싸운다
조선은 싸운다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조국, 다시는 원쑤의 노예로 살수 없었기에 인민은, 조선은 그렇듯 불사신마냥 싸웠던것이다.

전쟁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밤을 모르는 후방인민들의 영웅적투쟁, 한 전사의 영웅적행동으로부터 전선전반의 투쟁을 개괄일반화하여 펼쳐 보인 싸우는 전방의 불굴의 모습

...

이 나라의 이름 없는 영웅들은
조국의 행복을 부르짖으며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며
피 흘리면서도 죽으면서도
마지막탄환으로 원쑤를 찾았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사랑과 불타는 증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사랑과 증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처럼 열렬하기에 꽃나이 청춘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었으며 자기 수령, 자기 조국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이 강하였기에 이 땅을 빼앗으려는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이 불같이 타번져 불속에서도 연기속에서도 낮과 밤이 따로없이 싸웠던것이다.

사람이라면 우리의것이라고 부르는 모든것에 대한 사랑! 증오라면 원쑤 미제에 대한 하늘땅에 사무친 증오와 복수! 이것이 바로 이 시의 사상정서적바탕으로 되었으며 오늘날 깊은 여운을 안겨 주는 시적형상으로 폭발되어 나온것이다.

싸우는 영웅조선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뜨겁고 절절한 사랑의 세계를 읽을수 있으며 또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시대에 사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증오하며 어떻게 바치는 삶이 값있는가,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살며 일할데 대한 시대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더 깊이 깨달을수 있게 한다.

사랑이 열렬하면 증오는 그만큼 더 격렬해진 다.

시인은 자기의 시에 조국에는 무한한 사랑을, 원쑤에게는 무자비한 증오와 천백배의 복수를 하리라는 시대적감정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기승전결의 독특한 구성법을 취하면서 시적정황과 시적형상의 개성화와 일반화, 세련된 시어와 탄력성 있는 표현들로 사상주제적과제를 깊이 풀어나가고있는 시 《조선은 싸운다》.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선에서 미제원쑤놈들을 격멸하는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의 형상은 오랜 세월이 흘러지만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한 기억을 남기고있다.

세기는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것이 바로 인민대중의 애국심이다. 인민들은 력사의 갈피마다에서 조국을 침해하는 침략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였으며 그 길에서 자기의 한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다.

미제가 오늘도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시키려고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우리는 1950년대의 조국결사수호정신을 이어 받아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힘있게 떨칠것이다.

조선은 싸운다. 강철의 령장을 모시고 1950년대에도 조선은 싸웠으며 오늘은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고 미제와 총포성 없는 치렬한 격전을 벌리고 있다. 또 이 싸움은 우리 조국에서 아니 지구상에서 미제를 몰아내는 그날까지 계속될것이다.

그 길에 시 《조선은 싸운다》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울려 퍼질것이다.

이땅의 아들

백명길

고향이라고 부를수 없는 땅

장동관은 50여년이 지난 오늘 다시 고향땅을 밟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밀암벌, 나지막한 산등성이들이 병풍처럼 벌을 둘러 싸고 순박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땅을 가꾸며 살아 가는 이 나라의 한 평범한 농촌마을이다. 벌 한가운데로 쪽 께질러 간 수로쪽에서는 누런 황소들과 흰 염소떼가 사이좋게 가담가담 풀을 뜯고 산기슭에는 문화주택들이 오붓하게 들어 앉아 한쪽의 그림자만 정답게 안겨 오는 농촌마을. 아름다운 이 정경을 가슴 뿌듯하게 부감할수 없는 사람의 심정이 과연 어떠한가.

태를 묻은 고향이건만 고향이라고 부를수 없는 설움을 장동관은 맛 보고 있었다.

이 땅은 장동관의 고향이었다. 허나 그는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내놓고 부를수 없었고 정겨운 이 산천을 두팔 벌려 그리안을수도 없었다.

(아, 이 무슨 알곳은 운명의 장난인가. 아버지의 치욕이 찍힌 이 땅, 다시는 밟아 볼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이 땅을 내가 밟다니...)

그날 저녁 장동관은 유정한 달빛을 자욱자욱 밟으며 소시적 동심의 꿈에 담담히 찍혀 진 들길을 지나 너럭봉이라고 불리우는 나지막한 등성으로 올라갔다.

늦양푼 같은 보름달이 산마루에 빠끔히 머리를 내밀었다. 금시라도 복채로 두들겨 대면 쟁그르릉 소리를 내며 금구슬이 좌르르 쏟아 질것만 같은 풍만한 달이다.

장동관은 푸르스름한 달빛아래서 아버지가 분여 받았던 피돌굴은 1,500평의 땅을 알아 보았고 아버지의 우악스러운 손에 끌려 고향을 떠나던 작은 소로길을 알아 보았다.

동관은 추연한 눈길로 쌍매봉쪽을 바라보았다. 그 산기슭에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아버지때문에 원수놈들에게 학살 당한 리덕칠세포위원장아저씨 그리고 후퇴를 며칠 앞두고 동네에서 맨 선참 현물세를 바치고 돌아오다 폭격에 돌아가신 삼촌과 삼촌어머니의 묘소가 있을것이다.

아- 고향땅앞에, 고향사람들앞에 용서 받을수 없는 죄를 지은 아버지...

아버지와 삼촌은 한피줄을 타고 태어난 친형제이건만 어찌하여 그렇듯 서로 반대되는 운명의 길을 걸었던 말인가.

그저 일박에 몰라 실농군이라 동네의 칭찬을 받으며 떠받들리우던 삼촌이었다. 그런데 아버지

는... 일하기 싫어 하고 건달을 치며 돌아 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더니 끝내...

동관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한생토록 속죄의 쓴 술을 마시며 토로하곤 하던 아버지의 울을 섞인 한탄의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울려온다.

《아-옛말에 여우도 죽을 때는 제가 난 굴쪽으로 대가리를 향한다는데 이놈은 죽어 뼈를 묻을 고향도 없으니... 내 죽어 뼈라도 고향에 묻혔으면 좋으련만. 아니, 안되지 안돼. 그 땅이 이놈의 뼈를 받아 주지 않을거다.

아- 목숨이 하나이듯 고향도 하나이건만 그 땅, 그 흙을 내 어찌 버렸노.》...

동관은 저도 모르게 눈을 꼭 감았다. 눈시울사이로 진액 같은 눈물이 습습여 나와 푸들푸들 떨리는 불편을 따라 흘러 내렸다.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는 그날은 진눈까비가 내리던 을씨년스러운 날이었다. 그날 질척질척한 진눈을 밟으며 동관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고향을 떠났다. 아니, 고향의 버림, 고향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고향에서 쫓겨 난것이었다.

《량심이란 고양이 눈물만큼도 없는 놈 같으니.

오류이 부서지지 않으려거든 썩 사라져라. 너 같은 놈은 열, 백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세포위원장이 너때문에 죽었다. 저 혼자 살겠다구 형제 두 버리구, 이 땅두 버리구 달아날 때는 언제구... 이제는 그대두 고향이라구 낯관대기를 쳐들고 감히 기신기신 찾아 들어. 저 동삼이 보기가 부끄럽지두 않느냐, 이놈!》

아버지를 쏘아 보며 부르짖던 고향사람들의 피타는 절규가 오늘도 이 땅에 그대로 울리는듯 싶다. 평소에는 그렇듯 인정에 무르던 사람들이였던건만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군놈들과 계급적원수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만행앞에 계급의 칼날, 분노의 칼날을 무섭게 버린 고향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달아났던 장돌뱅이를 용서할리 만무했다.

죄는 지은대로 가기 마련이라고 아버지는 고향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고향을 떠나게 된것이었다.

피돌굴을 지날 때 전설속의 죽은 구돌이와 연화가 일어 나 뒤덜미를 잡을것만 같아 오돌오돌 떨었다.

아, 무섭고 또 무서웠던 밤길이었다.

마음속에 꺼먼 재티만 가득찬 아버지였으나 그래도 큰아버지노릇을 한다고 줄지에 량부모를 다

없고 고아가 된 조카를 데리고 가겠다고 열살도 채 못된 장동삼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철 없는 조카도 큰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고향사람들이 동삼이를 놓아 주지 않았다.

《동삼인 못데려 가네. 자네가 언제 한번 이에의 큰아버지실을 한적이 있다구 이제 와서 혈육의 정이요 뭐요 말할 체면이 됐다.

동삼인 우리가 말아 키우겠으니 못데려 가.》

동삼이도 서리맞은 배추잎처럼 후줄근해 서 있는 큰아버지를 쏘아 보며 말했다.

《난 싫어요! 나에겐 큰아버지가 없어요.》

되אל진 동삼이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마냥 박혔다. 결국 아버지는 철 없는 조카에게서까지 배척을 받았던것이다...

장동관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아- 내가 이 땅을 저버린, 고향사람들을 욕되게 한 그 장만복의 아들이라는걸 사람들이 안다면... 내 이제 무슨 낯으로 고향사람들앞에 나선단 말인가...)

장동관은 머리를 짓수곳이 숙이고 천근처럼 무거운 발을 옮기며 터벅터벅 등성이를 내리기 시작했다.

불현듯 토지정리돌격대로 떠나던 날 자기의 손을 뜨겁게 잡고 힘을 주던 사업소 당비서의 말이 가슴을 친다.

《동관아바이!

뒤를 돌아다 보며 울지 말고 앞을 내다보며 웃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 아버이를 믿습니다.》

장동관은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희끄무레한 달빛이 잠자는 벌을 포근히 감싸주고 있다. 볼수록 정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고향이다.

(내가 이렇게 나약해 진걸 당비서동지가 알면 뭐라고 할가? 지금껏 아버지의 불미스러운 과거에 위촉되어 인생의 지각생으로 살아 온 내가 이제 쓰러지면 다시 일어 나지 못할게다. 힘을 내자. 아버지가 고향에 남기고 간 죄를 땀을 바쳐 씻어야 해.)

장동관은 불미스러웠던 모든것을 잊으려는듯 보폭이 큰 걸음으로 씨엉씨엉 걸었다.

토지정리돌격대는 농장기계화작업반 선전실에 지휘부를 정하고 창공높이 붉은 기발을 띄웠다.

큰 살림방 두개를 합친것보다 더 큰 선전실에 불도젤운전수들이 그득히 모여앉았다. 지금 이 농장관리위원장이 구수한 말씨로 《피돌골》에 깃든 전설이야기를 하고 있다.

《옛날옛적 이 마을에 구돌이라는 일 잘하는 총각이 연화라는 마음씨 고운 처녀를 안해로 맞아 살았지요. 제 땅을 가지는것이 소원이었던 이들 부부는 돌투성인 산언덕을 개간하여 하루같이 땅

을 마련하였지요.

가을이 오고 이삭들이 여물어 가자 그들은 이제에는 마음 편히 잘 살게 되었다고 기뻐 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지주놈이 나타나서 그 땅이 제 땅이라고 호통을 치면서 피땀 흘려 가꾼 낱알을 몽땅 바치라고 하였다는거예요. 너무도 분격한 나머지 구돌이가 대판 싸움을 벌렸는데 지주놈은 끌고 온 관가놈들을 시켜서 룽모방망이로 구돌이를 때려 죽였지요. 연화가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늘에서 날벼락이나 꼭 치라고 애원했지요.

그러자 난데없이 천둥소리가 울며 하늘에서 망작만한 돌들이 우박처럼 떨어 졌지요. 그래서 지주놈과 관가놈들은 모두 돌벼락을 맞고 죽어 버렸고 얼마후 밭에 떨어 저 박힌 돌들은 모두 피색으로 변해 버렸지요. 그후 사람들은 그 돌들이 구돌이와 연화의 피가 배인 돌이라고 그 벌을 피돌골이라고 불렀지요.》

관리위원장의 이야기는 끝났다. 운전수들은 피돌골에 깃든 전설의 주인공인 구돌이와 연화의 불쌍한 처지를 동정해 눈물을 머금었다.

자그마한 키에 오돌쫌던 처녀시절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관리위원장이 피돌골토지정리설계도를 놓고 설명했다. 처녀시절부터 30년이 넘도록 관리위원장을 해온다고 한다. 목소리 또한 아직까지도 한마디 한마디가 박력이 있었다.

《운전수동무들도 설계를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 농장토지정리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이 피돌골입니다. 표고차이가 다른데 비해 심하고 또 지층에 돌이 많아 밀기가 어렵습니다.》

수십쌍의 눈들이 관리위원장을 지켜 보고 있었다.

장동관은 한쪽 구석에 묵묵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피돌골, 그 이름은 동관에게 있어서 결코 무심히 들어 넘길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

피돌골, 구돌이와 연화의 원한이 서린 땅, 아버지의 치욕의 자욱이 짙힌 땅... 그 땅을 내 손으로 밀게 되다니.

피돌골은 토지개혁때 아버지가 분여 받았던 땅이었고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세포위원장 리덕칠아저씨가 목숨을 바친 땅이었다.

동관은 손세를 써가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관리위원장의 모습을 이윽도록 응시했다. 아무리 봐도 낯 익은 모습이다.

어디서 보았을가? 아무리 흘러 간 세월의 망각속을 파헤쳐도 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다.

장동관은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 관리위원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었다.

《우리 농장에서는 토지정리설계원들과 심중히 토론한 끝에 이 피돌골의 맨 옷포전의 15개 뻐기

논을 그냥 두고 그 아래의 18정보의 포전을 규격포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빼기논들은 기름작물을 심는 밭으로 만들자고 경영위원회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장동관은 전류에라도 닿은듯 흠칫 놀랐다.

아무리 표고차이가 심하고 돌이 많기로서니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내버려 둔단 말인가? 그 15개 빼기논은 50년전 리덕칠아저씨가 붙이던 땅인데... 어째서 그 땅을 토지정리에서 돌려 놓으려 하는가? 아니, 안된다.

장동관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한마디 합시다. 저도 어제 그 피돌골을 밟아 보았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의 말처럼 표고차이가 심하고 돌들이 많아 규격포전을 만들려면 품이 상당히 먹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꼭 그 논배미들도 규격포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째서 관리위원장동문 지금껏 논으로 쓰던 땅을 밭으로 만들려 합니까?

그 땅은 그렇게 쉽게 버려서는 안되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전설속의 구돌이와 연화의 원한만이 아닌...》

동관은 격해 올라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자신을 다잡고 난 그는 힘 주어 말했다.

《난 토지정리설계를 다시 하도록 제기할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제가 맡겠습니다.》

선전실은 금시 물을 뿌린듯 조용해 졌다.

자리에 앉으려던 동관은 그만 흠칫 굳어 졌다. 관리위원장옆에 앉아 두눈을 똑 부릅뜨고 황황 타는듯한 무서운 눈길로 자기를 노려 보고 있는 한사람과 눈이 마주쳤던것이다. 그는 전류에라도 닿은듯 몸을 떨었다.

《아-》 그의 입으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동관은 틈새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거친 숨을 쉰 쉰 몰아 쉬며 동관을 노려 보던 그 사람이 몸을 반쯤 일으켜 세우고 격한 어조로 말했다.

《땅을 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래 동문 이 땅을 알면 얼마나 안다구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거요? 그래 동무가 이 땅을 위해 땀 한 방울이라도 흘려 봤소?...》

이 땅의 귀중함은 그 누구보다도 직접 땅을 다루고 낱알을 가꾸는 우리가 더 잘 아는거요. 그리고 땅은 입으로 다루는게 아니란 말이요.》

《그만해요, 동삼동무! 앉으세요.》

생각 깊은 눈길로 동관을 지그시 응시하던 관리위원장이 조용하나 엄한 목소리로 그 사람을 제지시켰다.

동삼이!...

장동관은 금시 가슴이 얼어 붙는것만 같았다.

그가 바로 50여년전 그날에 자기에게는 큰아버지가 없다고 웨치던 4촌동생 장동삼이었다.

방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이윽고 관리위원장이 나직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다.

《물론 아바이 말이 옳아요. 하지만 우리도 모든 조건을 다 심중히 타산해 보고 그렇게 한거예요.》

장동관은 슬며시 눈길을 들었다. 두사람의 눈길이 허공중에서 맞부딪쳤다. 순간 동관은 숨이 꺾 막혀 저도 모르게 허를 깨물었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인상적으로 드러나는 보조개, 유순한 저 고운 눈매, 세월의 년륜인양 잔주름이 간 눈언저리...

그렇다. 그는 보배였다. 리덕칠세포위원장아저씨의 막내딸 보배...

동관의 소꿉시절 동무, 어릴적 밀암천가에서 뛰어 놀적엔 서로 신랑이 되고 각시가 되어 각시 놀이도 하던 사이였다.

동관이네가 고향을 떠나던 날에도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서서 눈물이 가랑가랑 고인 바로 저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 밀암천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어머니가 사준 새 고무신을 동관이가 잃어 버렸다고 매섭게 쏘아 보던 그때처럼...

동관은 황황히 눈길을 돌려 버렸다.

토지정리지휘부에서는 관리위원회와 심중한 의논을 거듭한 끝에 다시 설계를 의뢰했고 얼마후 15개 빼기논이 1,500평의 규격포전으로 된 설계도면이 나왔다.

장동관이 속한 편대는 온 농장과 대대지휘부의 관심사속에서 피돌골의 18정보의 땅과 1,500평의 맨 웃쪽 논을 맡게 되었다.

피돌골의 땅을 밀기에 앞서 4명의 운전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동관아바이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키가 크고 온몸에 호기가 넘쳐 보이는 30대의 편대장 광호가 진중한 어조로 물었다. 대대지휘부에서는 조건이 불리한 피돌골에 끝끝한 젊은 운전수들로 력량을 꾸려 주었던것이다.

《편대장, 난 말일세, 피돌골이 표고차이가 심한 조건에서 두대의 불도젤은 저 웃쪽 논에 배치해서 아래로 내려 밀고 두대는 량쪽에서 밀어 내는 게 좋을것 같네. 말하자면 녀대의 불도젤들이 협동작전으로 한뼘기 한뼘기 먹어 가자는것이이지.》

장동관이 내놓은 의견을 모두가 지지했다.

《자, 힘껏 몰아 보세.》

네개의 거대한 손들이 서로 마주 잡고 흔들려 댄다.

출전이다. 장동관은 불도젤의 발동을 걸었다.

그는 온몸의 힘을 팔뚝에 모아 지그시 조향간을 앞으로 내밀었다. 움쉴 동체를 떨며 육중한 땅크마냥 불도젤은 전진했다. 날카로운 거대한

강철삽날이 두두룩한 땅을 밀어 흙밥을 떠올리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시창으로 바라보니 너대의 불도젤이 저마끔 무쇠삽날에 흙밥을 가득 물고 용을 쓴다.

수수천년 잠 자던 땅이 물씬물씬 뒤엎여진다.

장동관이 첫 삽날을 박은 피돌벌의 맨 옷쪽 작은 패기논이 바로 토지개혁때 아버지가 분여 받았던 땅이었다. 그런데 그 땅을 리덕칠아저씨가 자진해서 아버지와 바꾸었던 것이다.

장동관의 머리속에는 어린 시절 흘러 간 생활의 토막들이 연줄 떠올랐다.

…장만복! 만가지 복을 받으라고 할아버지가 지어 준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는 이름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

해방전 그 각박한 세월에도 할아버지는 손끝에 피가 나도록 온 육신을 놀려 몇마지기 안되는 땅을 자식들에게 물려 주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별로 고생하지 않고 밥술이나 먹으며 자라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복》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 준 땅을 부지런히 가꿀 대신 투전에 미쳐 돌아 갔다. 삼촌이 일년 열두달 벌에서 살다싶이 하며 농사를 지었지만 아버지의 노름밑천으로 다 들어 가고 살림은 나날이 쪼들려만 갔다.

어느 해 정월대보름날 아버지는 투전판에 앉았다가 땅까지 다 떼우고 알몸뚱이로 나왔었다.

술만 들어 가면 이름이 좋아서 또 《만복》이 차례진다고 횡설수설하던 아버지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식구들을 남겨 두고 금전판으로 떠나갔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농사를 착실히 짓자고 붙잡는 삼촌을 뿌리치고 이제 돌아 올 때면 목침만 한 돈몽치를 지고 온다고 흰소리를 치며 의기양양해서 집을 나섰던 것이다.

동네사람들은 그러는 만복의 모습을 보며 더러운 놈이라 침을 뱉었고 그때부터 장만복이는 갈데 없는 《장돌뱅이》라 불렸다. 아버지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높았으면 린근마을 어느 집령감은 일하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야, 이놈, 장만복이 장돌뱅이로 되기는 하루아침이다. 오록을 땅에 단단히 붙여라.》하며 욕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 장동관은 아버지복이 없는 불우한 인간이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걸머지여 준것은 무엇인가? 태를 묻은 고향이지만 고향이라고 부를수 없는 죄 많은 땅에뿐이었다...

장동관은 힘 있게 조공간을 당겼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푸른 피줄이 팽팽하게 붙어 난다.

심장은 후둑후둑 뛰었다. 이 순간 장동관은 자기의 심장에 더운 피가 용용하게 흐르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장동관의 뉘뉘는 심장은 웨치고 있었다.

(땀을 동이만큼 흘려서라도 이 땅을 번듯하게

뒤엎자. 아버지의 죄 많은 과거는 오직 내 피땀으로만 씻을수 있는것이다.)

불도젤의 삽날에서 아츠러운 쇠소리가 들려 온다. 뒤미처 흙겍질을 두껍게 쓴 덩지 큰 돌이 데굴데굴 굴러 간다.

돌이 많은 이 땅, 구돌이와 연화의 원한이 서린 돌, 그 돌이 싫어 아버지가 투정질한 땅을 리세포위원장인 리덕칠아저씨가 자기의 땅과 바꾸어 주었지...

거쿨진 체구에 어울리게 두툽한 입술이 종일 가야 몇번 벌려 지지 않는 과묵한 사람, 굵은 목에 바줄같은 힘줄을 세우고 돌을 들어 내던 리덕칠아저씨, 늘쌍 솔뚜껑만 한 손에 흙을 묻혀 가지고 다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버지는 8.15해방의 춤물결을 타고 고향으로 소리없이 돌아 왔다.

《저것두 사람이랴구 해방덕을 보겠다고 찾아드누만.》

동네사람들은 어머니와 삼촌에게 빼꾸기보다 못한 놈을 집에 들어 놓지 말라고 오금을 박았다. 했건만 모질고도 무른것이 인정이여서 종시 아버지를 집에 들어 놓았다. 아버지는 목침통만 한 돈몽치는 커녕 다 껴진 베잠뱅이에 동전 한잎 넣지 못한 상거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 온 것이었다.

고향에 돌아 온 아버지는 한동안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동정을 샀다. 어머니와 삼촌의 일손도 부지런히 도와 나섰고 동네일에도 선참으로 나서군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만복이가 고생을 좀 해보더니 사람이 되어 가는 게라고 말들을 했다.

이듬해 봄, 토지개혁때 아버지는 또다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자기가 받아야 할 땅이 피돌굴 맨 옷쪽의 돌 많은 패기논이라는것을 어느 틈에 귀동냥해 가지고는 토지개혁준비위원회로 찾아 갔다.

찾아 가서 땅을 바꾸어 달라고 생떼를 썼다.

사실 아버지에게는 그 땅도 파남했다.

아버지에게 땅을 분여해 주는 문제를 놓고 마을에서는 의견들이 많았다. 어떤 축들은 장돌뱅이의 성분은 농군이 아니기때문에 땅을 줄수 없다고 욱욕거렸다.

토지개혁준비위원회에서는 심중히 토론한 끝에 불쌍하게 살아 온 모자를 봐서도 땅을 분여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토지개혁준비위원회에 찾아가 울며 불며 좋은 땅만 주면 열심히 농사를 짓겠다고 애걸복걸했다.

《글쎄, 제 버릇 개 주라 했더니.》

《사람이 좀 되어 가는가 했더니 버릇이 또 살아나는군.》

《흥, 못난놈 거울타발한다구. 그주제 땅타발질

이야. 럽치에 계발이 달린 놈 같으니.》

많은 사람들이 다물아 댔지만 리덕칠아저씨가 자기 땅과 바꾸어 주었던것이다.

땅을 분여하는 날 덕칠아저씨는 말했다.

《만복이 이 사람, 땅은 농사군에게만 차례지는 법이야. 자네두 이 땅에 태를 묻은 덕에 땅을 받은 줄이나 알게. 하지만 태를 묻었다구 땅의 주인이 되는게 아니야.

먼저 가신 조상들을 욕되게 하지 말구 열심히 일하게. 그래서 땅을 주신 장군님 은덕에 보답을 해야지. 농사군의 복은 타고난 이름에 있는게 아닐세. 이 손끝으로 거두어 들이는거야.

뭐니뭐니 해도 농사군은 그저 땅과 친해야 한 다니.》

리덕칠아저씨는 아버지의 심장속에 땅의 귀중함을 깊숙이 새겨 주려는듯 마디마디 뜨겁게 이야기해 주었다.

삼촌도 아버지의 두손을 잡고 절절하게 말했다.

《형님, 이젠 땅도 분여 받았겠다, 착실히 오룩을 땅에 박고 일하우다. 일한 뒤끝은 있어도 논 끝은 없다질 않소.》

아버지는 그날 리덕칠아저씨와 삼촌앞에서 주먹 같은 눈물을 똑똑 떨구며 자기를 뉘우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좋은 땅을 가졌다고 저절로 실농군이 되는 법은 없다. 지열처럼 뜨거운 보배아버지의 진정을 아버지는 늦게나마 새겼어야 했다...

장동관은 조종간을 지그시 당겼다. 거세찬 동음소리 높이 불도젤은 집체 같은 흙밥을 돌돌 휘말아 올리며 앞으로 전진한다.

《리덕칠아저씨가 살아 있어 웅기종기 빼기논들이 규격포전으로 변해 가는 이 광경을 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리덕칠아저씨의 땀이 깊숙이 스배인 땅이여선 지 삽날은 폭폭 먹어 들어 간다.

세월은 앞으로만 흐른다

초겨울에 들어서면서 눈꽃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기온이 급속히 낮아 졌다. 기껏 잡아 스무날이면 모든 불도젤들이 일할수 없게 된다.

이런 정황에서 토지정리를 하루라도 더 다그치기 위해 당원들은 점심참을 리용해 당총회를 열었다.

불도젤동음소리 높던 피돌굴에는 일시 고요가 깃들었다. 한대만이 그냥 흙을 밀어 내고 있었다. 혼자서 불도젤을 몰아 가던 장동관은 일순 마음이 허전해 움을 느꼈다.

장동관은 불도젤의 발동을 끄고 싶었다. 멀리서나마 당원들의 열기 띤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장동관은 추연한 눈빛으로 붉은기가 휘날리는

대대지휘부를 바라보면서 조종간을 더욱 억세게 틀어 잡았다.

저 힘 있게 펄럭이는 붉은기아래서 당원들은 엄숙히 맹세할것이다. 이제 닥쳐 올 강추위전으로 밀암벌토지정리를 끝내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자고...

나도 맹세하지 않았는가. 이 땅을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데로 번듯하게 밀어 놓고 당당히 고향이라 부를 자격을 가지리라 얼마나 뜨겁게 맹세했던가...

장동관이 다시 불도젤을 몰아 흙을 밀어 가는 데 저쯤에서 관리위원장이 오고 있었다.

관리위원장이 되는데로 파헤쳐 진 흙더미를 밟으며 걸어 왔다. 관리위원장은 말없이 다가와 한손을 쳐들었다. 불도젤이 잠시 주춤거리는 찰나에 너인은 처너처럼 날쌔게 올라 탔다.

《내 오늘은 운전수동무에게 용서를 빌자고 찾아 왔어요. 이 땅의 주인들인 우리가 면목이 없습니다. 내 그 일이 있는 뒤 리당에 찾아 가 자기비판을 했어요. 이렇게 천지개벽되어 가는 땅에 흥취되어 그 까짓 돌발 몇뽀기가 대수냐 하고 생각한 내자신을 심각히 비판했지요. 정말 고마워요.》

발동소리때문에 큰 목소리로 하는 관리위원장의 심심한 사죄앞에 장동관은 어쩔줄 몰라 황황히 고개만 내저었다.

《관리위원장동무! 이러지 마시오. 난 관리위원장의 그런 평가를 받을만 한 인간이 못된다우.》

관리위원장은 살쾅이 웃어 보인다.

주름진 얼굴에 살짝 패어 들어 가는 인상적인 보조개, 장동관은 피곤이 가득 물린 보배의 얼굴에서 가물가물 피어 오르는 아지랑이마냥 얇전한 처녀애의 모습을 찾아 보았다.

《자, 이 파리열매를 맛 보세요. 오다가 저 쪽에서 꺾었는데 아직 속살이 열지 않았더군요.》

관리위원장은 다 말라 버린 가지에 여라문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빨간 파리열매를 조종대우에 놓아 주었다.

껍질이 매미의 날개처럼 얇게 말라 버렸지만 그안의 파리알은 빨갭게 제 빛을 잃지 않았다.

장동관은 떨리는 손으로 토실토실 살이 진 말랑말랑한 파리알을 정히 따서 입에 넣었다. 달콤하고 시고 씹썩한 파리맛이 입안을 짹 채운다.

파리맛은 참으로 오묘하다. 수십년이 지난 오늘 어린 시절 소꿉동무인 보배에게서 파리를 받고 보니 류별나게 그윽한 향토애를 자아냈다.

빨간 파리알에 비껴 지는 보배의 모습...

...여기 피돌굴에는 어디 가나 파리가 많았다. 수리개가 창공에 높이 뜬 가을, 어른들이 가을걷이에 나가면 아이들은 발이랑과 툇을 싸다니며 파리를 누가 많이 따나 내기를 했다.

농군들은 봄내 여름내 어느 하루 설새없이 가

곤 곡식을 수확했지만 아이들은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도 많은 파리를 따들었다. 그것은 자연이 아이들에게 선사해 주는 것이었다. 풀덤불, 가시덤불에 종아리가 찌저도 아랑곳없이 파리알을 따다.

처녀애들은 스무나무가시로 파리알 속살을 뽑고 그것을 입에 넣고 승벽내기로 붙였다.

파르륵, 파르륵...

어느 날 장동판은 동네아이들중 제일 많은 파리를 따다.

많이 따지 못한 애들이 저마다 손을 내밀었다.

《안돼!》

장동판은 한알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쪽구석에 오도카니 서 있는 보배에게는 한줌 벌레 파리알을 주었다.

《보배야, 이걸 가져.》

보배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에게 땅까지 바꾸어 주었는데... 이까짓 파리알이 뭐라구...

하루는 제일 잘 익고 큰 파리알로 띠를 엮어 보배의 머리에 얹어 놓고 각시놀이를 재미 있게 하였다. 그 노는 모양이 하도 천진해 벼단을 지고 가던 농군들이 한참이나 서서 구경을 했다.

착하고 순한 한쌍의 애기사슴 같던 소년과 소녀가 반백이 되어서야 만났다.

장동판은 지그시 눈을 감고 피가 나오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일순간 무서운 악몽이 그를 덮쳐 들었다.

아, 보배가 아버지를 잃게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누구때문에, 누구때문에...

...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은 벼이삭들이 무르익어 가는 장동판의 고향에도 들이닥쳤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된 것이다.

쿵- 쿵-

간간히 들려 오던 포소리가 하루하루 귀맛이 다르게 들려 온다.

아침에 읍에 나갔다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깃들 때에야 돌아 온 장만복은 문을 열자 부산을 피웠다.

《우리도 빨리 집을 싸가지고 떠나야겠다. 미군놈들이 돌고개너머까지 왔네.》

《여보, 벼가울은 어떻게 하구요. 남들은 탈곡을 끝내고 애국미까지 다 바쳤는데...》

《이 맹추야, 죽구 살구 하는 판에 벼가울이 뭐 말라 빠진거야.》

《그럼 동생네한테라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현물세를 바치려 읍으로 갔다가 아직 안 왔는데...》

《제길, 시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판에...》

그저 목숨부터 건지구 봐야 하는거야.》

아버지는 그날로 가족을 거느리고 뺑소니를 쳤다.

그날 저녁 현물세를 바치고 돌아 오던 삼촌과 삼촌어머니는 마을어구에서 미국놈들의 폭격에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었다.

허나 아버지의 죄는 제 혼자 살겠다고 땅을 버리고 달아난 그것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쫓던 지고 달아 뺀 그 논이 벼가울때문에 리덕칠세포위원장아저씨가 희생되었던 것이다.

...식량을 안전한 곳에 묻고 난 세포위원장 리덕칠은 떠나기에 앞서 벌을 돌아 보다 아직 가울을 채 못한 장만복의 논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저기 싸다니며 시국이 이렇소 저렇소 허튼 나발만 불고 다니더니 끝내...

《에익, 건달군 같은 놈!》

리덕칠은 옷등을 벗어 제끼고 벼가울에 달라붙었다.

(한알의 낱알도 원쑤놈들에게 넘겨 주지 말아야 한다.)

절반가량 벼가울을 했을 때였다.

따쿵, 따쿵... 귀에 선 총소리가 따갑게 울려 왔다.

이놈들이 벌써... 살펴 보니 원쑤놈들이 탄 차가 벌써 마을어구에 들어 서고 있었다.

리덕칠은 낫자루를 집어 던졌다.

이제는 때가 늦었다. 하지만 안된다, 이놈들! 이 땅에서 난 낱알은 단 한알도 네놈들 아가리에 처넣을수 없다!

리덕칠은 마른 버짙을 누렇게 익은 벼포기들에 뿌려 놓고 불을 달았다. 삼시에 삼단 같은 불길 이 타오르며 자욱한 연기가 솟아 올랐다.

리덕칠은 그만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부근 산속에 숨었다 집에 두고 온 재산이 아까워 밤을 타서 마을에 찾아 들었던 아버지는 놈들에게 붙잡혀 《치안대》로 끌려워 갔다. 놈들은 너를 못 살게 굴던 세포위원장이 어떤 꼴이 되었는가 보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감방으로 데리고 갔다.

놈들은 고문끝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세포위원장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위협하였다. 그래 《치안대》에 들겠느냐 아니면 저 세포위원장 신세가 될테냐... 놈들의 강요를 이겨 낼만 한 신념이 없었던 아버지는 놈들의 요구에 응하고 말았다.

그 어떤 악형으로도 리덕칠세포위원장의 신념을 꺾을수 없게 된 놈들은 그를 피돌팔로 끌어냈다.

원쑤놈들은 리덕칠아저씨의 몸에 《리덕칠 논 1,500평》이라고 써여 진 말뚝을 가져다대고 지켰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 식량 묻은 곳을 댈테냐 아니면 이 말뚝을 안고 저승으로 갈테냐?》

리덕칠아저씨는 부릅뜬 눈으로 놈들을 쏘아 보며 웨쳤다.

《이놈들아, 어서 말뚝을 박아라, 장군님이 주신 땅을 내 몸에 안고 죽겠다. 어서 박아라. 내 피와 살이 이 땅을 영원히 살찌울것이다.》

리덕칠아저씨는 뒤전에 우들우들 떨며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 절규했다.

《장만복 이놈, 이 너절한 놈!

그 썩은 목숨이 그리도 아깝더냐, 이놈아!

그래도 이 땅에 태를 묻은 놈이어서 사람구실을 하리라 믿은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땅이 어떤 땅이길래, 이 땅에서 난 낱알을 먹고 산 네놈이 그 더러운 목숨이 아까워 피묻은 충을 메었느냐, 이놈!

이제 네놈은 한생 오늘을 후회하게 될거다.》

원주놈들은 세포위원장아저씨의 심장의 박동은 멈출수 있었어도 죽어서도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려는 그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는 없었다.

장동관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흙 한줌을 손에 들었다. 리덕칠아저씨의 피와 땀이 축축히 젖어 있는 흙이다. 진정 무심히 밟고 다닐 그런 땅, 그런 흙이 아니었다.

땅처럼 거짓을 모르고 생의 고동을 멈추는 순간까지 이 땅을 가꾸어 온 리덕칠아저씨였다.

장동관은 그 한줌의 흙속에도 세포위원장의 숨결이 맥맥히 뛰고 있음을 느꼈다.

장동관은 보배가 꺾어 온 파리가지를 불도젤 앞시창에 꽂아 놓았다.

밀암벌토지정리전투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 번졌다. 당원들은 당총회에서 밀암벌토지정리를 강추위전으로 끝내자고 결정서에 박아 넣었다.

포전마다 숙보관이 세워 지고 온 농장이 논두렁itting에 떨쳐 나섰다.

…여기저기 땅속에 박혀 있는 돌들때문에 일자리가 나지 않았다. 웬만큼 크지 않은 돌들은 그런대로 불도젤로 밀어 낼수 있었지만 땅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돌들이 문제였다.

동관은 한껏 용을 쓰며 기세 좋게 전진하던 불도젤을 멈추어 세웠다. 농장원들이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큰 바위돌을 묻어 버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들속에서 장동삼이 손세를 써가며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동안 몇번 마주쳤지만 동삼은 여전히 랭담한 표정으로 동관을 본척만척 지나치곤 했다.

동관은 그에게로 다가가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반장동무! 힘들더라도 돌을 꺼내야 하지 않겠소?!》

동삼은 맛가지 않은 눈썹로 동관을 힐끗 흘겨보고는 덜퉁한 어조로 말했다.

《운전수동문 제 할 일이나 하시오. 우리두 다 생각이 있수다.》

《그래도 앞으로 세월이 흐르느라면 이 돌들이…》

동관이 어쭙은 목소리로 말했다.

《젠장, 굴러 온 돌이 배긴 돌을 뺄다더니. 이 땅을 다루는 주인은 우리란 말이요. 우리…》

동삼은 《우리》란 말에 힘을 넣으며 목청을 높였다.

우리?... 그럼 난 이 땅의 주인이 못된단 말인가?...

동관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동관을 똑바로 바라보는 동삼의 눈길은 이글거리는 불길마냥 황황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눈길을 떨구었다.

하긴 그래 난 이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놈이지. 나야 뭣뭣 못한 아버지의 과거를 안고 여기로 굴러 온 작은 돌에 불과하지 않은가... 굴러 온 돌...

동관은 돌아 서서 불도젤을 향해 휘청휘청 걸어 갔다.

이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왔다.

《반장동무! 동문 정말...》

동관은 주춤 놀라 뒤를 돌아다 보았다. 언제 왔는지 관리위원장 보배가 동삼에게 말없이 질책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동삼은 눈을 어디다 돌지 몰라 허둥거리더니 《이거야 제길!》하고 삽을 내동댕이치고는 씨엉씨엉 걸어 갔다.

《반장동무!》

보배가 소리쳐 불렀지만 동삼은 들은체도 않고 가버렸다.

동관이 난처해서 머뭇거리는데 보배가 한걸음 나서며 농장원들에게 말했다.

《자, 우리 힘들어도 이 돌들을 꺼내자요. 그래야 만년대계가 될게 아닌가요.》

《그럼시다.》 농장원들이 모두 호응해 나섰다.

보배가 술선 함마를 들고 나섰다.

짱- 짱- 함마소리가 야무지게 울렸다.

동관은 눈을 꼭 감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하지만 여무진 함마소리는 푸른 하늘가로 울려가며 동관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아- 이진 너무하구나. 하지만, 하지만... 참고 이겨 내야 한다. 이겨 내야 해.)

동관은 불도젤의 운전칸에 올라 조종간을 힘있게 내밀었다.

(밀어 내자. 구돌이와 연화의 원한이 스민 돌만이 아닌 저주로운 아버지의 죄까지 모두 밀어내자. 깨끗하게...)

불도젤운전수들은 밤낮으로 전투를 벌렸다. 장동관은 며칠째 불도젤에서 내리지 않았다. 식사도 운전칸에서 주먹밥 몇덩이로 굶땀고 잠은 불도젤조종간을 잡고 잠간씩 눈을 붙이는것으로 대신하곤 했다.

관리위원장 보배도 벌에서 낮을 보내고 밤을 지냈다. 장동관은 불도젤시창으로 자그마한 키에 질통을 메고 달리는 보배의 모습을 어느 때든지 볼수 있었다.

(아, 보배가 나를 알아 보지 못한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어릴적 새별 같은 눈만 반짝이던 보배가 관리위원장으로 한생을 살다니... 장동관은 보배가 부러웠다.

불도젤이 용을 쓸 때마다 시창앞에 꽂아 놓은 짜리알이 대롱대롱 춤 추듯 흔들거린다. 장동관은 줄음이 물려 들고 오금이 쭈서나 정말이지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짜리알을 한알씩 따서 입에 넣었다. 그러면 그 작은 짜리알은 신비하게도 그에게 힘을 주곤 했다.

어느날 밤, 기세 좋게 나아가던 장동관의 불도젤전조등이 갑자기 꺼졌다.

동관이 운전칸에서 내려 여기저기를 살펴 보는데 광호가 달려 왔다.

《동관아바이! 어디 고장입니까?》

《아니 제때에 충전을 하지 못해 축전지가 말썽을 부리는것 같네.》

동관은 쿵럭쿵럭 잔기침을 짓으며 기관을 들여다 보았다.

《아바이, 까짓거 없어진 김에 쉬여 간다구 속소에 들어 가 좀 눈을 붙이십시오.》

《난 괜찮네.》

《야 참, 아바이, 요전날에도 부족때문에 군농기계작업소에 다녀 오느라 밤길 70리를 걸으셨는데 오늘은 좀 쉬십시오. 그러다 황해남도에서 앓던 병이 또 도지겠어요.》

광호가 안타까운 어조로 만류했다.

《원 사람두, 글썽 내 걱정은 말라니까. 내 몸은 아직 무지렁이처럼 단단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광호의 등을 억지로 떠밀다 싶이 해서 자기 불도젤로 보내고 난 동관은 어둑속에 한동안 서 있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쯤한 일에 불도젤을 멈출수는 없다.

장동관은 숨옷을 벗어 막대기에 비끄러매여 화불망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공구함에서 디젤유병을 꺼냈다.

동관이 디젤유를 숨옷에 쏟으려는 순간 누구인가 디젤유병을 나꿔 쳤다.

《안돼요!》

동관은 얼떨름해서 물었다.

《누구요?》

그 사람은 말없이 장동관에게 숨옷을 다시 입혀 주었다.

《숨옷도 안 입구 일하다 감기에라도 걸리면 어쩔려구 그래요. 이젠 젊은 몸두 아닌데...》

그제서야 동관은 그가 관리위원장 보배임을 알

아보았다.

보배는 들고 온 화불망치에 불을 달았다. 사위는 대낮처럼 밝아 졌다. 그 불빛속에 보배가 환한 웃음을 짓고 서 있었다. 랑불에 깊숙이 패이는 보조개...

《관리위원장동무! 어떻게 이 밤에...》

《운전수동무들이 수고하는데 이 땅의 주인인 우리가 어떻게 발편 잠을 잘수 있겠어요.》

자, 내가 앞을 밝힐테니 어서 불도젤을 몰아요.》

장동관은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불도젤에 올라 발동을 걸었다.

(보배, 정말 고맙소...)

장동관은 충혈진 두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조종간을 잡았다.

화불망치를 높이 든 보배가 한손을 흔들며 어서 불도젤을 몰라고 손짓한다.

장동관은 어릴적 종다래끼를 메고 보배와 논둑길을 달리던 그 시절로 되돌아 간듯 싶었다.

(아, 인생길에도 후진이 있어 아름다운 동심의 꿈이 간직된 옛 시절로 되돌아 갈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보배가 높이 든 화불망치에서 불뚝이 무수히 떨어 졌다.

화불도 보배의 심장도 찬서리에 제 빛을 잃지 않은 짜리알처럼 붉게 타는 잇을수 없는 밤이었다.

장동관은 이런 순간들로 한생을 엮어 왔을 보배의 모습을 가슴속깊이에 새겨 넣었다.

이 땅을 딛고 선 사람

간밤에 소리없이 내린 눈은 드넓은 밀암벌에 햇숨이불을 포근히 썩워 놓았다.

장동관은 청신한 아침공기를 폐부속 깊숙이 들이마시며 불도젤정비를 끝냈다.

날씨는 잠풍했다. 새벽에 발동을 멈춘 녀대의 불도젤우에도 흰 눈이 소복이 내려 앉았다.

장동관은 연유통에 그득하니 디젤유를 채워 넣었다. 이제 그 디젤유만 태우면 피돌골토지정리는 끝난다.

이른 아침 피돌골의 마지막패기논을 밀어 낸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 져 남너로소모두가 떨쳐나섰다.

보배가 더운 물주전자를 들고 장동관에게 다가왔다.

《자, 속이 뜨끈해 지게 한모금 드세요.》

장동관은 보배가 부어 주는 더운 물을 쑥 들이마셨다.

금시 온몸에 더운 기운이 쭉 퍼졌다.

《자 관리위원장동무! 오늘은 마지막돌격전인데 나와 함께 불도젤을 탑시다. 어서 올라 오우.》

《그럼 오늘은 내가 보조운전수가 돼볼가요?》

보배와 장동관은 불도젤운전칸에 나란히 앉았다.

《내 관리위원장동무에게 좋은걸 줄게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오.》

장동관은 앞시창에 꽂아 놓은 파리가지를 뽑았다. 마를대로 말라 버린 파리나무가지에 한알의 파리알이 달려 있었다. 장동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던 파리알, 이제는 한알이 남았다.

보배는 빙긋이 웃으며 장동관을 지켜 보았다.

장동관은 파리알을 따서 조심조심 속살을 뽑아냈다. 보배는 숨을 죽이고 동관이 파리속살을 뽑아 내는것을 지켜 보았다.

보배는 어릴 때 장동관이 파내준 파리껍질로 《파르륵》, 《파르륵》 귀가 성가스러울만치 많이 도 불었다.

《자 옛소. 어서 힘껏 불어 보우.》

그들은 동심의 옛 시절로 되돌아 간듯 싶었다.

보배는 파리알을 입에 넣고 입재주를 부렸다.

파르륵, 파르륵…

장동관은 귀맛 좋게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내 관리위원장동무가 들려 준 피돌골전설의 뒤를 이어 줄가요.》

착하고 부지런한 구돌이부부가 죽은 이듬해 봄 그들이 묻힌 돌무지속에서는 두대의 파리나무가 자랐지요. 그 파리알은 류별나게 피빛을 띠었는데 가을이 가고 눈이 내려도 그 빛이 변하지 않았지요. 몇 해가 흘러 그 두그루의 파리나무가 씨를 번져 그 돌무지에는 온통 파리나무천지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구돌이부부의 원한이 맺혀 파리가 빨강다고 말하곤 했지요.

오랜 세월 사람들은 이 피돌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 왔지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이 땅은 자기의 풍성한 열매를 안겨 주었지요.》

장동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뜨직뜨직 이 땅을 배반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갔다.

아-아버지, 땅을 배반해 죽어 그 땅에 묻힐 자격조차 가지지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를 이 땅이, 고향사람들이 용서해 줄것인가…

장동관의 이야기는 끝났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장동관은 비로소 오늘에야 자기가 누구인가를 터놓았다. 고향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대도 좋다.

누가 오라 해서 온것도 아니고 나자신이, 나의 운명이 선택해 준 길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씻으려 반세기도 넘은 오늘 반백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전설속의 구돌이부부의 원한이 스민 이 땅을 자기의 온넛을 바쳐 뒤엎어 새 모습으로 전변시켜 놓았지요.》

(아니 그럼…)

동관은 와썹 놀라 보배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옥한 미소를 담고 빛나는 눈, 량볼에 깊숙이 패인 보조개… 보배의 얼굴은 따뜻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럼 관리위원장동문, 아니 보배 벌써 나를 알아 보았소?》

한참후에야 장동관은 증얼거리듯 뇌이었다.

보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알아보지 않구요. 첫날부터…》

세월이 흘러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들어도 이 땅에 태를 묻은 그 체취야 어디 가겠나요.》

(허, 그런것도 모르구 혼자 속을 태웠으니 헛참, 허허…)

동관은 속으로 벌썬 웃었다. 지금껏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모든것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것만 같았다.

한동안 말이 없던 보배는 정색해서 말했다.

《사실 동관동무를 받아 들인다는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동삼동무도 그렇구요.》

작업반장들의 협의회가 끝난 후 보배와 동삼은 서로 마주 앉았다.

《반장동문 동관동무에 대해 너무 랭담해요.

그래도 그는 동무의 4촌형이 아닌가요?…》

《관리위원장동무! 난 이미 그런 사람을 잊어버린지 오래우다. 그 사람이 없다구 우리가 토지정리를 못하겠소?! 도대체 그가 고향으로 올 자격이 있냐 말지요?!》

동삼은 큰 숨을 쉰 내쉬며 절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 꺾다.

《반장동문 옳지 않아요.

동관동문 어릴 때 아버지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 그가 이 땅을 떠나고 싶어 떠났는가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반세기도 넘은 오늘 그가 질머져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난 요즘 동관동무를 보면서 많은것을 생각했어요. 이 땅을 반세기가 넘도록 밟고 살면서도 이 땅의 귀중함을 심장에 새기지 못한 자산을 아르게 돌이켜 보았어요.

우리 이것만은 알아야 해요. 이 땅에 태를 묻었다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고 해서 절로 이 땅의 주인이 되는것은 아니라는걸 말이에요.》

보배의 말은 준절하게 울렸다.

《동삼동무!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자요. 수수천년 잠 자던 땅도 잠을 깨는 이 변혁의 시대에 우리도 마음의 대문을 넓혀야 하지 않겠어요.》

동삼은 한마디 말도 없이 런던거퍼 줄담배를 태

우고는 관리위원회를 나섰다.

동관은 붉게 상혈진 눈으로 보배를 바라보았다.

(보배! 고맙소. 이렇듯 너그럽게 날 용서해 주니말이요.)

보배는 동관의 마음속을 읽은듯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도 동관동무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땅이, 고향땅이 동관동무를 용서하고 너그러이 받아 들인거예요. 땅은 진심과 진정 앞에서는, 땀과 노력앞에서는 언제나 너그러운 법이거든요.》

동관은 긴숨을 후련하게 내뿜었다.

그래, 그렇다. 땅은 언제나 솔직하고 너그러우며 명백하다. 땅은 바친것만큼 내준다. 이 땅에 진심과 진정을 바치고 땀과 노력을 들이면 언제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이 땅을 속이고 배반하면 쓰디쓴 후회와 수치만을 가져다 주는 법이다.

나도 이 땅에 진심과 진정을 쏟고 땀과 노력을 바치자. 세포위원장아저씨였던 리덕칠아저씨처럼, 보배처럼 한생토록...

장동관은 마음속 한점 그늘도 없는 청신한 기분으로 불도젤의 발동을 걸었다.

불도젤은 용을 쓰며 피돌굴의 마지막뿔기논을 밀어 냈다.

관리위원장 보배는 종일토록 장동관과 불도젤을 탔다.

장동관은 보배앞에 꿇어 앉아 아버지 뒀을 합쳐 빌고 싶었다. 그러나 결코 말로는 아버지가 고향앞에 진 죄를 씻을수 없는것이다. 오직 땀과 노력을 바치는것만이 아버지가 지은 죄를 씻고 이 땅을 고향이라 떳떳이 부를수 있는 자격을 되찾는 길인것이다.

장동관의 눈앞에는 거룩진 리덕칠아저씨가 안겨 왔다. 늘 벌에 나가 살며 땅을 가꾼 근면하고 성실한 실농군인 리덕칠아저씨, 남의 일이라면 살얼음진 강물에도 서슴없이 뛰어 들 인정이 무른 사람이였기에 그토록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위해 목숨도 서슴지 않은것이다.

리덕칠아저씨의 생은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아, 아버지가 이 땅에 남긴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나무 한대 심었는가, 논두렁 하나 제대로 정리했는가. 없다. 한푼어치도 없다.

장동관은 두눈을 부릅뜨고 불도젤을 몰았다.

마지막돌격전이었다.

(아, 왜 이렇게 앞이 흐려 오는가? 마지막논배미다. 전진-그렇지.)

장동관은 전신의 힘을 다해 흐려 오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며칠전부터 고열이 나고 온몸이 와

들과들 떨려 왔으나 의지의 힘으로 지금껏 견지해온것이다.

이제는 마지막전진이다. 녀대의 불도젤은 한줄로 나란히 흠뻑을 밀어 냈다.

순간 여기저기에서 만세의 환호성이 울렸다. 드디어 피돌굴토지정리는 계획했던 날자보다 앞당겨 끝냈던것이다.

순간 장동관은 눈앞에서 수많은 별찌가 튀기는 듯했다. 그는 흥미해 지는 의식을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조종간을 으스러지게 그러 잡았다.

《동관동무, 동관동무! 아니, 왜 그래요?!》

동관은 놀라 소리치는 보배의 목소리를 꿈결에서처럼 들으며 의식을 잃었다.

장동관은 그로부터 이틀후 리병원 입원실에서 의식을 차리었다.

조용히 눈을 뜨니 넓은 창문으로 비쳐 드는 밝은 해살에 눈이 시러왔다.

동관은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이제는 모든것이 선명하게 안겨 온다.

동관은 몸을 무겁게 일으켜 앉아 입원실안을 둘러 보았다. 모든것이 정갈하고 산뜻했다. 원탁에 놓인 꽃병에 빨간 파리아일이 주렁주렁 달린 가지가 꽃혀있는것이 유난히 눈을 끌었다.

(허, 이건 보배의 솜씨걸!)

동관은 손을 뻗쳐 파리아일을 하나 따서 입에 물었다. 입안에서 몇번 굴려 보고 씹었다. 시고 단즙이 텅텅한 입안에 짭 찬다.

몇알을 거쳐 씹었더니 온몸에 기운이 쭉 뻗쳐 오르는듯 했다.

동관은 이 순간 가슴 뿌듯한 심정으로 고향의 향취를 한껏 맛보았다.

동관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시원한 찬 공기가 불덩이처럼 단 동관의 폐부로 흘러 들며 마음을 상쾌하게 해준다.

일매지게 정리된 피돌굴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 온다. 바둑판처럼 정리된 규격포전, 그가운데마다 어느새 거름더미가 쌓였다.

동관의 눈길은 붉은기 휘날리는 대대지휘부에 미쳤다. 동관은 지붕우에서 세차게 펄럭이는 붉은기발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형님!》

등뒤에서 목 메인 부름소리가 울렸다.

돌아 보니 동삼이 문가에 서서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눈으로 동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동삼이 다가오며 울먹울먹해서 말했다.

《형님! 이 못난 놈을 욕 많이 했지요.》

둘은 와락 그러안았다.

동관의 눈에서는 진한 눈물이 줄줄 흘러 내렸

다. 지금껏 마음속에 얼어 붙었던 피로움이 한순간에 녹아 버렸다.

《형님! 이 웅졸하고 속통 좁은 놈을 꼭 때려 주시우.》

《아닐세. 동생, 난 아직 고향사람들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한생 갚아도 못다 갚을 빚을 고향땅앞에 진 놈인데...》

《아니지요. 형님은 자기의 피땀으로 고향앞에 진 빚을 다 갚았수다.》

둘은 오래도록 서로 볼을 비비었다.

사람들이 입원실에 들어 서서 그러는 두 형제를 웃으며 지켜 보았다. 관리위원장 보배, 편대장 광호, 대대장과 정치지도원...

《아바이, 몸이 어떻습니까?》

40대의 대대정치지도원이 장동관의 손을 잡고 물었다.

《내 이젠 늙기는 늙었수다. 다 같이 밤을 뺐는데 나만이 쓰러졌으니 말이우. 그 덕에 밀렸던 잠을 실컷 잤수다, 허 허.》

모두가 장동관을 따라 웃었다.

정치지도원은 흰 종이 몇장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동관아바이! 대대지휘부는 년로한 나이에 돌격대에 탄원해 많은 일을 한 아바이의 입당청원을 상급당조직에 제기했습니다.

아바이, 기뻐 하십시오.

오늘 아침 아바이의 입당청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어서 입당청원서를 쓰십시오.》

순간 장동관은 모든 감각기관이 마비된듯이 귀청이 웅웅 거렸다. 얼마후에야 장동관은 정치지도원의 권고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동관아바이, 우린 아바이가 밀어낸 피돌굴이 어떤 땅인가를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아바이

는 곳곳하게 자신을 이겨 냈습니다.

동관아바이, 입당청원서를 쓰십시오.》

장동관은 울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말할수 없이 벅차고 무엇인가 소중한것이 자기의 심장을 향하여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는듯 한 뜨거운 느낌이 온몸을 감싸안았다.

(아 가슴은 왜 이다지도 왈랑거리는가, 한생토록 바라고 바라던 소원이 풀리는 이 시각에...)

장동관은 지금껏 꿈에서나 그러 보던 일이 이렇게 불시에 찾아 들줄은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정치지도원의 손을 꼭 잡을뿐이다.

모두가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아바이, 축하합니다.》

동관은 사람들을 둘러 보았다. 모두의 눈가에 물기가 어린것을 그는 보았다. 보배의 눈에도 동삼의 눈에도...

그날 밤 장동관은 온 심혈을 태우고 태워 입당청원서를 썼다.

장동관은 입당청원서 마지막글줄에 이렇게 써넣었다.

《이 땅이 생겨 수수천년...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이 땅에 뿌려 졌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에 젖었던 그 땅이 오늘은 장군님의 은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땅의 나이가 한살이듯 인생의 황혼기에 새 인간으로 태어난 저의 나이도 한살입니다.》

동관은 지금 새롭게 달라진 피돌굴의 규격포전길을 걷고 있다. 이 땅에 태어나 첫 걸음마를 짚는 어린 아기의 심정이였다.

이제야 비로소 장동관은 고향을 되찾은것이였다.

이 땅의 아들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것이였다.

고향과 함께 자기의 참된 인생길도 다시 찾은 것이였다.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속담이야기

《<대학>을 가르칠라》

옛날에 한 농부가 글공부를 하겠다고 청하니 서당훈장은 몹시 기뻐하며 그에게 사서의 하나인 《대학》을 가르쳤다.

무더운 한여름날 유학자들의 도덕대로 도포를 꼭꼭 여며 입히고 갓을 씌우고 반나절을

끓여 앉히고 글을 읽히는데 그만 농부는 당장 숨이 막힐듯 하고 무르팍이 찢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 글방을 뛰쳐 나와 다시금 소를 몰게 되였다. 그때 얼마나 혼썰 났던지 그후부터 농부는 소가 말을 안들으면

《이놈의 소, 대학을 가르칠라.》라고 했다는것이다.

경우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속담이다.

민족성과 우리 시, 생각되는 몇가지

편집원동무, 안녕하세요. 우리 시문학에 민족성을 구현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편집부와 시인들이 의견을 나누어보자는 청탁을 받은지도 여러날이 지났는데... 나 아닌들 시단에 원로중진들이 가득한데-하는 웅졸한 생각에 그간 주저하고 있었는데 봄명절날까지 최고보니 더 미룰수 없는 과제로 되었군요. 명절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흥겹게 보낸 이 민속명절날 우리 시인들은 생각되는바도 많았고 느낀바도 컸습니다.

조국땅 어디나 다름바 없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도 팽창했습니다.

어버이수령님 동상을 모신 역전광장과 도예술 단앞광장에 가득히 모여 징치고 팽파리를 울리며 돌아가는 군중들... 하늘가에 연을 날리는 아이들과 팽이를 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동네와 동네 인민반과 인민반이 승벽으로 웃가락을 던지고 바줄당기기하는 열기띤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수천년 세월 대국들사이에 끼여 부대껴 오면서도 동화되지 않은 내 민족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눈굽이 뜨거워 지더군요. 력사의 폐지를 들추어 보면 우리 가까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까. 거란족은 말할것도 없고 녀진족도 한때 강대성을 자랑해 왔지만 민족성을 잃다보니 타민족에 동화되지 않았습니까.

편집원동무도 《족보》라는 참고소설을 읽어보았겠지만 것처럼 집요한 일본놈들의 동화정책속에서 얼마나 눈물겹게 지켜낸 우리 민족성입니까.

본질적으로 항일항미의 거족적인 혁명전쟁들도 다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으며 오늘도 의연히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민족성을 더욱 장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한 때에도 올해 설명절을 성대한 민속명절로 펼쳐주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바라보는 모든것이 새로웠습니다.

천년을 무심히 흘려오던 압록강도 이 아침엔 력사의 증견자로서 두터운 얼음장을 터치며 벌떡 일어서 소리치는것만 같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위대한 민족이여 영광이 있으라고.

그러한 웨침은 이끼 덮인 옛 성벽에서도 울려왔고 산곡간의 절간들에서도 울려왔고 그 이름처럼 민족적향취가 풍기는 《봄향기》, 우리 도시의 특산인 그 화장품들에서도 울려오고 있었습니까.

참으로 얼마나 쓸것이 많습니까. 수령복을 타고난 민족의 궁지에 대한 시,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대한 시, 우리의 미풍량속과 세태풍속에 대한 시, 민족의상과 민족음식을 자랑하는 시... 지난날 우리 시인들은 민족성이라면 세태풍속에만 국한시켜 이 주제는 적극적이 못되고 시대의 주도적감정이 아닌것으로 차요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시각을 한점에만 고착시키지 말고 전후좌우로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부단히 옮겨가며 보아야 할것입니다. 가령 부모에 대한 효성, 이웃간의 화목, 사랑에는 사랑으로, 은혜에는 은혜로 보답하는 우리 민족의 이 특질이 오늘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두말할것도 없이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표현될것이며 그렇다면 그것이 부단히 발전풍부화되어 가는 우리의 민족성이 아니겠습니까.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 이것은 오늘에 생겨난 말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이 말도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알게 될것이며 선군의 길우에 생겨난 수많은 혁명일화들도 래일엔 전설로 민화로, 민요로 전해 질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어째서 우리가 민족성을 과거의 세태적인 생활속에서만 찾겠는가, 실로 민족성구현의 주제는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풍부하고 방대한 내용에 어떻게 재간껏 조선옷을 입히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쓰는 시들에 고전시가, 민족시가의 온갖 훌륭한 형식적요소들과 형상적 묘기들을 살려 안으로 보아도 밖으로 보아도 나무랄데 없는 조선시를 쓰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고전시가유산엔 참말로세계에 자랑할것도 많고 우리가 따라 배울것도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고 내세울줄 모르는 사람은 레외없이 민족허무주의자이다.》

세계의 명시들과 우리 고전시들을 대비하여 저마다 외우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비록 갓 쓰고 하늘소 타고 다니었지만 시단은 참 잘 썼다고.

운문과 산문을 가르는 기본요소인 운률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류창한 우리 운률입니까.

언젠가 제가 창작실에 앉아있는데 옆방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호기심이 동해 가만히 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 한 동무가 제법 몸가

지 앞뒤로 들까불면서 흥얼대고 있겠지요.

《자네 뭘 흥얼거리나. 몸세까지 쓰면서.》했더니 하는 말이 《시 한수 읽느라니 절로 그리되누만... 날거든 뛰지마나/씻거든 솟지마나/부용을 꽃안난듯/백옥을 묶었난듯/동명을 박차난듯/북국을 피왔난듯/높을시고 망고대/외로울사 혈망봉이... 허허,이 멋에 시를 쓰는데지.》 마치도 16세기의 정철이가 아니라 제가 금방 《관동별곡》을 탈고해 낸듯이 흡족해 하는것이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운율이 어찌 정철이의 가사들뿐이겠습니까. 《강촌별곡》, 《향산별곡》 지어는 시집 가는 딸에게 레의범절을 일러 주는 《경녀사》나 《규중행실가》, 외국기행을 그대로 시행으로 옮긴 《표해가》나 《연행가》... 이루 헤아릴수 없습니다. 수천수만의 시조들은 또 어떻구요.

사람들을 흥얼거리게 하고 춤추게도 하고 울리고 웃기기도 하는 이 아름다운 운율도 따져보면 그 조성의 기초원리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같은 음수의 규칙적인 반복으로 이루어 지거나(정형시) 비록 음수엔 구애되지 않더라도 동질의 음향이나 내외구 조응의 균형에, 기타 운율조성의 보조적인 수단들의 조합으로 이루어 지거나(자유시) 우리 시문학의 최결작인 《백두산》만 보아도 파격적인것 같지만 하나하나 시행들을 해부해 보면 우리 민족시가운율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전시가들과 해방전후의 우리 시문학의 성과작들을 건당으로 해부하면서 운율문제에 조예가 깊은 여러 선생들이 되서 《우리 시문학의 운율연구》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일부 우리 시인들이 우리 운율의 기초근본을 깊이 알고 있지 못한데로부터 운율이 없는 시를 써놓고도 운율이 있다고 믿는 인식상의 착오입니다.

망신스러운 일이지만 일전에 한 소설가가 저에게 《너희들만 시 쓴다고 우쭐대지 말아. 나도 써. 들어보라.》하면서 제 소설의 한 대목을 목청을 돋구어 억지로 강약을 주면서 《랑송》하더군요. 모두가 웃었지만 시인들은 웃을수 없었습니다.

악의 없는 룡담이었지만 너무나도 정통을 찢렸기때문이였습니다.

지난 기간 산문화를 정당화하는 《내재물》리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새 세대의 우리가 말뜻은 모르면서도 은연중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기준을 잃지 말아야 하겠는데, 다시 말하여 우리 시가의 운율적기초에서 너무 멀어지지 말아야 하겠는데 이런 면에서 시를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중진들에게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시의 풍격을 높인다고 하면서 문장을 비틀고 꼬아 운율을 파괴하고 혹자는 진부와 고풍을 거세한다고 하면서 규칙적인 음수들도 일부

러 두드려 마사 들쭉날쭉 만들고.

실제로 우리의 능력 있는 시인들중에는 4.4조나 7.5조의 전형적인 고전시가의 운율을 자기 작품에 살려 성공한 실례들이 많습니다.

김석주의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를 처음 읽었을 때 저에게는 소월의 《진달래》가 떠올랐습니다. 두편이 다 사모의 감정이라는데도 있었지만 같은 7.5조의 운율적효과에서 오는 느낌이었을것입니다.

물론 주제사상적내용에 맞추어 그 적용범위가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고전시가의 우수한 유산을 자기 창작에 활용함으로써 두시인이 다 시대의 명작을 남길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에는 우리의 개별적시인들이 3.4조나 4.4조, 7.5조 등 어느 한 형태를 취하여 그것으로 자기 창작을 완성시켜나가는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단에 양상도 다양해지고 개별적시인으로서도 개성이 고착되어 후에 아무개는 3.4조 시인이야 혹은 7.6조 시인이야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고전시가의 류창한 운율과 함께 간결성과 섬세성, 온갖 형상적묘기들을 또한 따라배워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민요 한편과 시조 한편만 인용하겠습니다, 민요 《님 하나밖에》.

《저 달이 하나라도/ 조선팔도 다 보는데/ 요내 눈은 둘이라도/ 님 하나밖에 못 봅니다》

시조 《말은 가려 울고 님은 잡고 아니농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 저 님아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이게 전부입니다. 무엇을 더 넣고 뺄것이 있습니까. 단 4줄의 민요와 단 3줄의 시조에 하나의 아름답고 선명한 화폭이 어려오고 서정적주인공의 성격과 지향, 나아가서 당대사회현실까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상적묘기들을 자기 창작에 도입해야 하겠는데 너무나없이 우리 시들엔 역설이 많고 이런 저런 사료들이 인입되어 읽을 맛도 없고 외우기도 힘듭니다. 편집원동무도 시 쓰는 사람이니 고충을 알겠지만 짧은 서정시에 사료 한가지만 넣자고 해도 얼마나 고달픈 노릇입니까.

아무리 문장을 잘 다루는 채사라도 사료인입에 3~4편은 소비해야 할것이고 앞뒤로 감정조적을 하려면 또 몇편, 그러고나면 시인은 아직 제 할 소리를 못하고 있는데 시는 10편을 넘어섭니다. 솔직히 사료작업이야 체협단계의 공정이 아닙니까.

오래전 문학통신원시절에 스승이었던 조벽암선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임자, 시를 다 썼으면 손으로 한번 원고지를 쓸어 보라구. 걸리는게 없나 말일세.》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였습니다.

눈으로 읽어보고 입으로 외워보고 손으로 쓸어

보기까지 한편의 시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뜻이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단 두행에 수천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선생의 《삼각산이 보인다》의 《눈물속에서도 분노의 번개는 쳐/ 어언중 삼각산도 산산히 부스러지누나》 구절을 외우며 도저히 따라 갈수 없는 스승의 기교에 머리를 숙입니다.

새삼스럽지만 제가 여기서 스승을 추억하게 되는것은 시어 하나, 토, 받침 하나까지 진저리날 정도로 따지고 들던 그 은사들이 이미 우리결을 떠났고 그네들의 소임을 이제는 우리가 걸머지고 있다는 사정입니다. 후비들의 지도를 위해서도 우리는 고전시가들을 연구해야 하며 한편한편의 자기 시들에서 그들이 따라 배울만 한 묘기들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조와 가사를 비롯한 민족시가형태들의 계승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몇년어간에 《조선문학》과 《문학신문》에 몇편의 시조가 실리어 화제에 오르고 그에 대한 평론도 있었습니다. 고전문학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면 초장, 중장, 종장의 엄격한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는 시조가 대강 3줄 맞추기로 되었으니 열치가 분명할것입니다. 부연하건데 저도 그이상

은 만들지 못합니다. 문제는 어째서 옛날에는 이름 없는 촌선비들도 한두수쯤은 그 자리에서 제격 써냈다는것을 한다하는 시인들이 이런 열치기 밖에 만들지 못하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 시인들의 능력문제가 아니라 이제껏 이런것은 관심밖에 두고산 후파라고 생각합니다. 시조쓰기에 누구나 재미를 붙이고 많이 쓰게 되면 시조도 체모를 갖추게 되고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잘 살려낸 본보기시조도 나오게 될것입니다.

어찌 나무 한그루 심고 돌맹이 하나 다듬는것만이 애국이고 애족이겠습니까. 외국사람들도 오묘한 그 시구에 현혹되어 수첩에 베껴주기를 갈망하는 황진이나 력대 가인들의 우수한 시조들을 문학사속에만 소장시켜두지 말고 자기의 작품들에 적극 살려 우리시대, 선군시대에도 그보다 못지 않는 시조가 있소하고 세계에 소리치게 될 때 그 이상의 애국애족이 어디 있으며 또 그 이상의 민족성구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자기 작품과 함께 애국자로서의 시인의 생애도 남게 될것입니다.

우리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약속하면서

평안북도 작가동맹 김정철

민속전통

상차림풍습

상차림풍습은 식생활풍습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상차림풍습은 음식을 그릇에 담아 수저와 함께 상위에 차리는 관습화된 방식으로서 오랜 생활과정에 이룩되고 굳어진것이다.

우리 민족의 상차림풍습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식생활관습과 독특한 온돌생활조건, 훌륭한 식사례의범절, 상, 그릇, 수저의 특성과 그 리용방법에 맞게 이루어진것으로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밥이 주식이었던것만큼 음식상차림에서도 밥상차림이 기본상차림이었다. 밥상은 일명 반상 또는 진지상이라고도 불렀다.

상을 차릴 때 밥그릇은 왼쪽에, 국그릇은 오른쪽에 그리고 간장, 초장, 고추장종지들은 상 가운데에 놓고 그뒤로 김치보시기, 원편에는 된장찌개나 젓국찌개그릇, 그 오른쪽에는 나물접시, 깍두기같은것을 놓고 그밖에 더 놓을 부식물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질서 있게 놓은 다음 숟가락과 저가락을 앞면 오른쪽에 놓았다.

상차림에서 대체로 물기 있는 음식을 담은 그릇은 오른손가까이에 놓고 물기가 비교적 적은 마른음식을 담은 그릇은 상 왼쪽에 놓았다. 식사

가 끝날무렵에는 대접에 담은 송송을 들여왔다.

밥상차림에서 3첩, 5첩, 7첩, 9첩 등 일정한 격식에 따라 상을 차리는 풍습이 있었다.

첩이란 접시를 가리키는데 접시에 담은 부식물의 가지수에 따라 달리 불렀다. 세가지 음식이 올랐을 때는 3첩반상, 다섯가지면 5첩반상, 일곱가지면 7첩반상, 아홉가지면 9첩반상이라고 하였다. 국과 김치, 양념장은 반드시 곁들여내는 음식이었으므로 반찬의 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른 반찬, 장줄임, 젓갈류는 한상에 놓여도 1첩으로 쳤으며 찌개, 찜은 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밥상차림에서 양념장을 담은 종지를 반찬이 증가되는데 맞게 더 많이 놓았다. 간단한 3첩반상일 때는 탕이나 찬에 간을 맞추어 들도록 간장을 담은 종지 한개만 놓으며 5첩반상이면 찬에 전이 더 첨가되므로 전의 맛을 돋구기 위한 초간장을 담은 종지를 보태어 두개를 놓고 7첩이상이면 회가 첨가되는것을 고려하여 초고추장을 담은 종지를 더 놓아 모두 3개를 갖추었다.

밥상차림에서 첩을 3, 5, 7, 9 등 기수로 한것은 우리 선조들이 기수를 길한 수로 믿어온것과 관련된다.

돌격선의 기발이 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문학예술의 임무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로 더욱 힘 있게 고무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50년!

이 땅의 많은것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많은것이 세월의 이끼속에 덮여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의 그 나날 언제나 인민군용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그들을 승리와 위훈으로 고무해주고 돌격선의 앞장에 병사들과 함께 서있던 우리의 로병작가들을 결코 잊을수 없다.

금성청년출판사 인민기자 한희만은 작가 리계심에 대하여 이렇게 추억하고 있다.

《내가 그를 처음 알게 된것은 1211고지계선인 직동령의 사단구락부에서이다. 그때 우리는 갠도안의 이 구락부를 <삼지창식사단구락부>라고 불렀다.

세갈래의 굴을 뚫고 그 중심에 무대를 만들었는데 무대에서는 객석을 다 볼수가 있으나 갠도별로 갈라 앉은 관객들은 무대밖에 볼수 없게 되어 있었다. 적들의 폭격을 당해도 피해를 덜기 위해 그렇게 건설한것인데 바로 거기에서 주체40(1951)년 늦가을 놈들의 이른바 <하기 및 추기공세>를 물리치고 승리를 경축하는 모임이 크게 열렸다. 2명의 공화국영웅과 수많은 모범전투원들에 대한 훈장수여식이 있었는데 그들을 축하해서 시를 읊겠다면서 단발머리 처녀군관이 무대로 나왔다.

그가 바로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를 다니다 전선으로 달려나와 사단군의소 준위로 복무하였고 후에는 군단신문 《강철부대》의 주필, 조선인민군신문사 중군기자생활을 거쳐 시인, 소설가로 성장한 리계심이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전선나이》 두살을 합친 스물한살이였다. 그 《전선나이》 두살속에는 사단을 따라 적들을 물리치며 노도처럼 남진하던 나날들과 다시 산발을 타고 압록강대안까지 걸어야 했던 엄혹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날들 그리고 시문학을 배우던 손에 주사기와 붓대를 들고서 야전구급의과를 배우던 준의학교 속성반의 수개월간도 들어 있었다.

연약한 두팔에 담가채를 들고 폭탄이 튀는 속을 달리면서도 또 떨리는 손으로 끔찍하게 헤쳐진 전우의 가슴에 붓대를 감으면서도 그는 시를

썼다.

앞으로 작가가 되겠다며 직심스레 공부하는 딸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자가 어떻게 문학을 한다고 그러느냐. 시부 모공대, 남편공대, 아이시중, 빨래, 망질, 절구질, 메주 쭈고 장 담그고 하루종일 일을 하고 또 해도 끝이 없는데...》

허나 그 무엇도 문학에로 달리는, 억눌리고 짓밟히여 숨도 바로 못 쉬던 조그마한 소녀인 자기에게 해빛을 주고 희망찬 새삶의 밝은 길을 열어주신 **김일성** 장군님의 은덕을 노래하고 싶은 처녀의 열망을 막을수 없었다.

그런 처녀의 마음속 자그마한 소원까지도 헤아려 배움의 최고전당 **김일성** 종합대학에로 불러주신 장군님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눈물 흘리던 리계심이였다.

그 소중한 배움의 보금자리를 원썬들에게 빼앗길수 없어, 다시는 노예의 땅에를 쓰고 마소처럼 살수 없어 자그마한 손에 총을 잡고 전선으로 달려나온 그였으니 어떻게 심장에서 시가 끊지 않으랴.

...

문열에서 혹은 구석진곳에서
간호원을 부르는 애타는 목소리
복부수술환자가 타는 입술로
《간호원동무, 물, 물을 줘...》

모닥불을 안은듯
바작바작 타는 그의 가슴에
시원한 물 한모금 줄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 후련하랴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

그러나 안되리
타는 마음 불길이 되여도 안되리
전우를 사랑하는 그 마음 모두어
축축히 추겨줄수는 있어도!

...

한발자국 토굴병실을 나서면
꿀짜기에 맑은물 돌돌 흐르니
아, 병실을 떠나
다시 전선으로 나가는 날

샘 같은 물 대접하리
소생의 기쁨을 함께
- 《간호직일의 밤》 중에서 주체40(1951)년 -

당시 같은 사단군의소의 수술외과간호장이었던 로병 문춘애는 이렇게 말했다.

…주체40(1951)년 12월 속사리계선이였다고 기억된다.

새벽 2시경에야 부상병들의 수술이 끝났는데 바로 그 수술장에서 리계심의 화선입당을 심의하는 세포총회가 열렸다.

입당을 축하해 주는 세포당원들앞에서 리계심이 흥분된 목소리로 자작시를 읊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시가 군단신문에 그대로 실렸는데 제목은 《당원들의 행진속에》였다.

…남강원도 양양에서 입대한 윤금자라는 애어린 간호원이 있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심청이처럼 홀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가냘프고 불쌍한 소녀였는데 군의소의 막내이라고 누구한테서나 사랑을 받았다. 총각애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녀서 더 귀여웠다.

그또래의 동생을 집에 두고온 리계심이어서 금자한테 기울이는 그의 사랑은 각별했다. 짬만 있으면 글을 배워주고 노래와 춤을 가르쳤다.

주체40(1951)년 3. 8국제부녀절에 금자가 군공메달을 수여받고 그렇게 좋아하였다. 그러던 그가 그해 가을 이포리에서 환자를 담가로 후송하다가 기총사격을 제 한몸으로 막고 희생되었다. 금자는 리계심의 무릎에서 눈을 감으며 자기의 군공메달을 아버지한테 꼭 전해 달라는 부탁을 남기었다.

온 군의소가 금자를 불안고 올 때 리계심은 추도시를 읊었다. 그 시가 주체41(1952)년 10월 조선인민군 총정칙국에서 발행한 시집 《군무자들의 문예창작집》에 실렸다. 전투원들이 웃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수 있게 수첩만 한 크기로 된 것이었다. …

이제는 누렇게 퇴색하다 못해 가장자리가 불에 덴 종이처럼 부슬부슬 부스러지는 그 시집은 포연내가 풍기는 다른 한편의 《전사문예》와 같이 작가의 귀중품트렁크안에 오늘도 소중히 간수되어 있다.

사단군의소 준의로, 군단신문 주필로, 조선인민군 신문사 종군기자로 늘 전선병사들과 같이 있으면서 전선을 대학강당으로 삼은 어제날의 대학생처녀시인은 어디서나 시를 썼고 그 시가 천만자루의 장점이 되고 돌격선의 기발이 되게 전사들앞에서 읊곤 했다.

그 바쁜 속에서도 입대한 첫날부터 하루도 번지지 않고 일기를 썼고 승리하는 날까지 일기를 써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선물로 가져가고 전쟁서사시의 밀천으로 삼으리라던 처녀병사시인.

그처럼 소중한 일기장을 두번씩이나 폭격속에 날려버리고 너무 분해 울던 그때의 아쉬움이 로시인의 가슴속에 오늘까지도 아릿하게 매달려 다닌다. 물론 그 생활이 그가 쓴 중편소설 《너준의 일기》와 《박우물》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

는것이기는 하지만…

리계심의 시집 《영원히 너전사의 마음으로》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충성의 미소》를 비롯한 수십편의 우수한 시들과 함께 10편의 주옥같은 전선시편들이 들어있다. 그 시들은 오늘도 우리의 병사들을 1950년대의 1211고지로 이끌어주며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싸우도록 고무해 주고 있다.

리계심은 그때를 이렇게 추억하곤 한다.

…늘 폭탄, 포탄이 터지는 전선고지들을 드바빠 달려 다니면서 어느 짬에 시들을 썼던지.

당시 군의소식당은 개울물이 흐르는 골짜기아래에 있었고 간호원처녀들의 병실은 산중턱에 있었다. 저녁식사가 끝나면 취사원들이 래일 아침밥을 짓기 위해 숯불을 재속에 묻어놓곤 하였다.

그때 전선에는 성냥이 몹시 귀했다.

밤 늦어 근무가 끝나면 가랑잎들을 모아 재속의 숯불 한덩이를 싸들고 불이 꺼질세라 호호 불며 걸음보다 마음이 더 급해서 비탈길을 달려 올라 간다.

잠자리 머리맡에는 좋은 시를 더 많이 써달라면서 어느 병사가 퇴원기념으로 만들어준 손바닥 두개넓이정도의 자그마한 탁자가 있었다. 거기에 놓인 탄피등잔에 들고온 숯불로 불을 달아놓고 시를 쓰곤했다.

그런데 병실 문에 쳐놓은 가마니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불을 꺼버릴 때가 드문하였다. 그러면 또다시 식당이 있는 골짜기로 내리뛰곤 하였다.

어떤 날 밤은 그렇게 세번을 오르내린적이 있었다. …

시 《샘물》도 그렇게 쓴것이다.

안개를 휘감아 선 련봉이 잠 자고
새들도 깃에 들어 조용한데
날이 새도록 부상병의 머리맡에서
애 끓던 가슴
그 가슴 추기려 샘터에 가네

한밤새 떨어진 단풍잎
살며시 건어내고
수정샘물 마시니 시원하여라
내 가슴에도 새벽정기가 피어나는것인가
…

거울 같은 네 물결위에
깊이 모를 네 수심에
비쳐 보는 내 마음
퍼내여도 퍼내여도 마름을 모르는
지성의 샘, 충성의 샘이 되리
부상병들의 가슴속에 흘러 흐르는
맑은 샘이 되리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며 전우애, 조국애로 끓는

에 어린 처녀군관의 가슴속에서 흘러 나와 시대를 이루고 대하를 이룬 시의 맑은 《샘물》을 보게 된다. 선군시대에 사는 우리 새 세대 작가들에게 부여하는 로병작가들의 수령결사옹위, 조국결사수호의 《샘물》을...

그 《샘물》은 어제날 전선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우리 로병작가들의 심장속에서 오늘도 즐기치게 흐르고 있다.

로정범

야담

정충신과 그의 안해

금남 정충신이 선사포의 침사로 새로 임명되어 가면서 작별인사를 하려고 여러 재상들의 집을 찾아 다닐 때였다.

그가 한 나이많은 재상을 찾아가니 그는 정충신을 반겨맞으며 《내 자네가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는걸 알고 있네. 그런데 아직 안해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래 내게 딸 하나가 있으니 비록 변변치는 못해도 자네의 뒤바라지나 시켰으면 하는데 자네 의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정충신은 늙은 재상의 말에 너무도 고마와 선풍 승낙하여 임지로 떠나는 날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정충신이 임지로 떠나는 길에 그 여인을 데리러 흥계교앞에 당도하니 거기에는 이미 울긋불긋 화려하게 장식을 한 교자 한채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충신은 교자안의 여인이 늙은 재상의 딸임을 알고 슬며시 들여다보니 몸집은 우람차고 인물 또한 시골의 총각처럼 생겨 조금도 마음에 드는곳이 없었다. 그러나 이미전에 약속한터이라 어찌는수없이 데리고가 부엌에서 음식상이나 돌보도록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하루는 평양감영으로부터 급히 상론할 문제가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올라라는 비밀공문이 내렸다. 정충신이 곧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안해가 심중한 표정을 지으며 세상이 이처럼 소란스러운 때에 갑자기 감영에서 부름은 아마도 이리이러한 일이 있을듯 하오니 이리이리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충신이 앞일을 료량하는 안해의 선견지명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감영에 당도하자 평양감사가 하는 말이 《지금 청나라사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양성에 놀러앉아 은 1만냥을 내놓으라고 생트집을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잡도리가 아니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종단말인가?》라고 물었다.

신통히도 떠나올 때 안해가 하던 말 그대로였다.

안해가 가르쳐준대로 정충신은 자기가 그 일을 한번 말아보겠다고 대답하고는 그 길로 련광정으로 나가 한창 고조되고 있는 연회장에 끼여 들

었다.

그리고는 한 장교를 조용히 불러 성안의 집집 처마에 화약을 꽂고 있다가 련광정에서 방포소리가 세번 울리거든 일시에 불을 달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광!》하고 첫 방포소리가 울렸다.

정충신이 장교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들은 기생들은 얼굴이 까맣게 질려 온 평양성이 불바다에 잠긴다고 야단법석이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우성소리로 들끓었다. 그제야 영문을 알게 된 청나라 사신은 겁에 질려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었다.

바로 이때 또다시 두번째 방포소리가 울렸다.

이제 방포소리가 한번만 더 울리면 온 평양성이 불길에 휘감겨 재가루가 될판이었다.

혼비백산한 청나라 사신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채 정충신의 팔소매를 부여잡고 애걸복걸하였다.

《장군!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당신은 명색이 황제의 사신으로서 남의 나라에 와서 어찌 터무니없이 돈을 내라는거요?

온 성안사람들이 다 죽는한이 있어도 그런 무례한 요구는 들어줄수 없소. 차라리 사신이나 나나 모두가 다 이 불길에 타죽음이 마땅할것이지요.》

《장군, 이 목숨은 당신한테 달렸소. 제발 잘못 하였으니 한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 사흘안으로 압록강을 넘어갈테니 세번째 방포만은 쓰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그는 머리를 가로 저으며 《사신은 원래 무례한 사람이라 도저히 믿을수가 없소.

여봐라! 포수를 불러라!》라고 정충신이 근엄한 태도로 말하자 사신은 정충신의 허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잘못했으니 령을 다시 내리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하였다.

정충신은 그제야 마지못해 응하는척하면서 그를 쫓아버렸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사신은 걸음아 날 살려라 줄행랑을 놓아 약속대로 사흘후에는 압록강을 건너 제 소굴로 내빼고 말았다고 한다.

나의 시여 우리치라

-이 시를 백안관에 뿌리노라-

오필천

나는
신천의 분노를 터치려고
복수의 펜을 찬
분노의 시인

신천대학살의 원흉
인간도살자
미제를 만천하에 단죄하려고
절규의 붓을 든
신천의 시인

나는 애절한 시인이 아니노라
신천에서 몇십리 떨어진
백석벌에서 자랄 때는
재령강 출렁이는 물결처럼
내 성미도 유정했노라

허나 열살도 채 못되어
나는 신천의 피를 보았나니
그때부터 내 심장속엔
원한의 피가 끓어
나의 숨결은 폭풍을 안았노라

나는 쓰고 싶었노라
서강의 물결우에 그물을 드리우고
붕어잡이 흥겨운 내 고향 저녁풍경
층층 꽃등을 켜고 재령강을 거슬러 오는
려객선의 긴 배고동소리
푸른 벼바다우에 흰 돛인양 펄럭이는
백학의 그 유별난 정서를

그러나 용서해다오 붓이여
나의 붓에 신천의 분노를 다 담을 때까지
나의 붓에 신천의 복수를 다 터칠 때까지
나의 붓엔 그 어떤 여가도 없나니
나와 운명을 함께 하는
붓이여 너는 영원한 복수의 붓
나는 영원한 복수의 시인

나는 보았노라
미국놈들이 어떻게 인민들을 학살하고
애국자들을 무참히 교살했는지
어린시절의 목격자
아, 나의 시는 지금 분노로 솟구친다

차마 눈 뜨고 볼것을 보았더나
땅을 준 조국이 고마와

애국미헌납의 선구자된
모범농민의 팔다리를 달구지에 매고
사지를 찢어죽인 미제승냥이들
지금도 내 눈에선 불길이 인다

나는 또 보았노라
우리 글을 배워준것이 《죄》가 되어
백목을 쥐었던 손가락을 자르고
머리에 대못을 박아죽인 살인자들을
아, 신천에 칼과 못이 많았던 탓이나
내 심장에 형언 못할 용암을 끓이는구나

나는 울었노라
밤나무굴 화약창고의
불타버린 재속에서
사백어머니의 유골을 찾아낼 때
피눈물을 떨구던
면당위원장의 얼굴을 보며

백자천자 깊은 우물에서
열 백...그집어낸 시체앞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목놓아 울던
동년배 서분이를 달래며
나도 그날 울었노라

그날 부르친 내 주먹에선
으드득 뼈가 울었다
수천이 넘는 인민들을 합장하며
미제를 천백배 복수하자
아버지 형님들이 웨칠 때
심장으로 따라 부르는
나의 가슴속에선 복수의 불이 일었다

나의 시여 격노하라
나의 시여 폭풍치라
나이보다 때이르게
가슴에 복수의 원한을 재운
내 시의 포화여 워싱턴으로 날아가라

내 말로 다 표현할수 있다면...
내 글로 다 쓸수 있다면...
신천의 가로수마다에
무고한 인민들을 비끄러매고
온갖 칼부림을 다한
신천의 그 참화를

묻노니 그날의 너의 아픔 얼마나 컸더나

그날의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았느냐
피묻은 미제승냥이들
너를 물어 뜯을 때
내 살을 찢어내는듯 하였거니
그렇다 정녕
살기찬 이발 내 살을 씹는듯 했거니

내 만약 신천사람이 아니었다면
믿기 어려웠으리
피의 52일이 빚어낸
연극 아닌 참극을 다 아는것 쉽지 않아

증오하노라
52일의 그 재난도 부족해
《비-29》에 폭탄을 싣고 날아와
우리 마을을 하루밤에 불사른 놈들
집없는 한지에서 살수 없어
장수산기슭 산골마을로
강 좋고 별 좋은
고향을 뜨지 않으면 안되었던
나의 그날의 분노로

저주하노라
청년들을 바다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받들고
해주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우리의 평화로운 배우에 기여올라
잠자던 선원들을 감쪽같이 죽이고
내 가슴에도 무수히 총상을 낸 미제
신천의 아들의 이름으로
다시 다시 저주하노라

아, 열살도 못된 그때부터
예순고개에 이른 나의 한생은
미국놈때문에 어느 하루 한시라도
편한 잠을 자보지 못한 아픔의 한생
매일 매 순간 복수의 칼을 버리며
저주와 규탄의 회성 같은 시가로
미제와 대결전을 벌려온 투쟁의 한생

고발하노라
《자선》과 《박애》의 허울밑에
피의 소나기를 퍼부은 흡혈귀
대를 두고 갇아도 못다 갇을
불구대천의 백년숙적 미제

못참을 증오가 가슴에 치솟아
내 신천박물관의 층계를 오르노라
반제반미전선의 최고사령관
백두령장이 찍어 가신
뜨거운 그 자욱을 따라

분노하시여
신천의 피바다에 잠긴

영령들을 잠재울수 없으시여
박물관을 나오시여
런꽃봉언덕에 서신
령장의 눈길에선 번개가 쳤다

-미제에 대한 환상은 죽음뿐이다!

-투쟁하면 살고 굴복하면 죽는다!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췌 미제를 천백배 복수하자!

반제투쟁의 1선에서 울려간
백두령장의 호령소리
천리방선 병사들이 들었다
온 인민이 가슴에 새겼다
온 세계가 뜨겁게 안았다

신천의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고서는
신천의 후손이라 할수 없기에
신천의 복수를 갚지 않고는 살수 없기에
《복수하리라》의 다섯글자를
아들딸들의 이름으로 새기고 일머신
이 땅의 후손들

내 신천의 복수자들과 함께
범바위산기슭에 섰노라
20세기 50년대에 물뿜다가
21세기에 발굴된 렬사의 유골들

반세기가 넘도록 부르짖은
사백어머니의 분노가 작았던가
백둘어린이의 원한이 모자랐던가
3만 5천이 넘는 평혼들이 부르짖은
그 증오의 목소리가 부족했던가

아,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
분노에 분노를 더해주는 신천이여
절규에 절규를 더해주는 신천이여
증오에 증오의 피를 더 끓여주는 신천이여
복수에 복수의 불을 더 지펴주는 신천이여

땅에 묻혀 그대로 진토될수 없었기에
백골이 되어서도 땅속에서 솟아나
미제를 규탄하는 렬사들의 그 뉘을
나의 붓에 담으니
나의 시가 우뢰친다 번개친다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미제살인귀들을 복수하자!

신천은 일머셨다
조선은 일머셨다
대결이나 굴종이나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

강정에 초강경으로 맞선
복수자들의 기상
하늘끝에 닿았나니

더 지껄일테면 지껄여보라
우리를 《악의 축》이라고
더 날치겠으면 날쳐보라
전쟁을 치를 용의가 있다고
우리의 평화협정제안을 짓밟고
핵탄두를 만재한
하늘의 까마귀들과 바다의 침략선들을
물밀듯이 들이치는 미제

우리는 오는죽죽 모조리 잡아
대동강 《서먼》호와 《푸에블로》호옆에 띄우고
반제반미박물관을 늘이리라
그리고 선언하리라
선군리념의 영원한 승리를!

그날
종군길 수천리
복수와 원한의 피젖은 붓을
재령강의 푸른 물에 찍어
그리도 쓰고만 싶던
고향의 정서를 마음껏 펼치리라

머리에 붓을 차고 내려온
고향의 가수
빨종다리를 발목이 시도록 따라 걸으며
고향의 무용수
백학의 노래에 이 몸도 함께 없으며...

아, 못잊을 그날까지
나의 붓은 안식을 모르리라
그날을 부르며
나의 시는 번개치노라!
나의 시는 우뢰치노라!

50년대 할머니

정창수

머리엔 백발을 무겁게 얹고
오늘도 우리앞에 서있는 할머니
얼기설기 칠조망을 한손으로 부여잡고
피호르는 가슴을 움켜쥔채
서있는 할머니

할머니는 오늘도 피타게 절규한다
피맺힌 원한을 풀어달라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의 가슴에 복수를 부탁한다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땅에서
풍년나락 가꾸며
남먼저 현물세 바쳤을 할머니
언제나 웃음만이 흐르던 그 얼굴에
저주와 고통이 비졌다

장난군손자들의 응석도 받아주며
학교에서 배운 글 읽는다면서
입이 닳도록 종알대던 손녀들의 목소리
흐뭇이도 들으며
그리도 행복에 겨워 하던 할머니모습이여

허나 우리앞에 서있는 할머니는
복수를 갈망하는 피젖은 모습

세월은 흘러흘러
오랜 세월 흘렀어도
50년대 할머니는
가지 않는 복수의 세월

아, 피맺힌 원한을
그대로 두고선
쉽게는 쓰러질수 없는 몸이어서
쉽게는 가버릴수 없는 생이어서
천추만대 복수를 안고
50년대 할머니는 살아있다

할머니시여, 걱정마시라
세월은 흘러흘러 세대는 바뀌어도
우리 병사의 과녁은 변하질 않았나니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단매에 원썩 미제 소탕하리라

아, 풀지 못한 복수의 총탄을 채워 주며
새 세기의 언덕
새 세기의 신천땅에
50년대 할머니가 오늘도 서있다
원썩격멸어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최명익의 생애와 창작을 더듬어

윤광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에 이름을 남긴 성공한 지식인들은 레외 없이 다 자기 조국과 민족앞에 충실하고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였습니다.》

악랄한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활동한 민족적량심을 지닌 많은 지식인들은 일제에게 굴하지 않고 민족앞에 충실하면서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지식인들을 언급할 때 작가 최명익에 대하여서도 생각하여보게 된다.

최명익은 일제가 강점하기 3년전에 출생하여 청소년시절을 망국의 쓰라린 불행과 고통속에서 암중모색하며 방황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1902년 7월 14일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 고산리(오늘의 평안남도 평원군 청보리)에서 부유한 가정의 둘째아들로 출생하였다.

최명익은 조선봉건왕조말기 평원지방에서 비교적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아버지가 일정한 자금으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천자문도 배우고 력사도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박식하였던 어머니로부터 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정다감한 정서와 정의감을 소유한 소년으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 최명익은 점차 문학의 열망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으며 평양보통학교를 거쳐 서울고등학교에서 문학적재능을 숙련시켜나갔다. 그러나 식민지청년의 배움의 길은 단순하지 않았다.

3.1인민봉기후 그의 형과 어머니는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3년간의 금고형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주체10(1921)년 4월 27일 신문 《동아일보》는 3면에 그의 어머니 박치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었다.

《<부인청년단 검거>, <대한독립청년 부인회> 제작년부터 독립운동에 종사하던 묘령녀자의 단체를 체포.

평남도 대동경찰서에서는 이삼일내로 대한독립부인청년단 10여명 체포하여 단체동안의 단장은 추도일이라는 여자이며 내용은 제작년 8월부터 전기단체를 조직하여 자기가 회장이 되고 박치은을 부회장으로 정하여 당년 19세의 꽃같은 강희생외 13명을 접한후 일반부인에게서 독립자금을 모집하고 지방의 독립단들이 왕래할 때에 편의를 도모하여 금전과 음식을 주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옥한 사람의 가족을 구호하는 등 여러가지 일을 비밀리 하는것이라는데 금월 2일(4월2일) 추도일이(회장) 자기 집에서 동지와 무슨 일을 비밀리 의논하다가 발각체포되었다더라.》

(평양)

철들기전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한것과 함께 어머니와 형까지 잃게 되자 서울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한가정의 세대주로 되었고 독립운동가문에 대한 일제의 모진 박해와 멸시로 정신적번민과 사회현실에 대한 울분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정신적번민과 고뇌의 세계에 휩싸였던 그는 주체15년(1926년) 경기도 양주군 너더리에서 출생한 양은경녀인과 서울고등학교때의 연고로 결혼한 후 평양시 외성구역 창전리(오늘의 중구역 창전동)근방에 집을 한채 마련하여 세자식의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봉양과 궁핍한 생활난을 타개하는데 전념하였다. 그는 7~8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초자공장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류형성장질부사의 전염병으로 인한 두팔의 병사는 식민지 사회에 대한 불만을 덧쌓여 주었다.

식민지지식인의 과란곡절많은 가정적불행과 사회현실은 그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어릴 때부터 키워 온 문학수업의 기초를 더욱 다져주었으며 이때부터 문학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나갔다.

번민과 방황의 세계에서 문학의 길에 들어선 그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얻고 주위세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어느정도 《민족적량심》을 지키려는 견지에서 평양에서 리효석, 유항림 등과 《단충》이라는 문학단체를 조직하여 몇편의 습작들을 발표하였다.

당시 잡지 《조광》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일파의 의도는 명백하다. 사회적량심의 리론을 가지면 서로 그것을 신념에까지 료리화시킬 수 있는 지식인의 회의와 고심을 심리분석적으로 그리려는 공통된 경향이 있었다.》

(최재석의 평론, 주체26(1937)년 11월)

그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으로 빚어진 식민지지식인의 비참한 처지와 정신적방황의 세계를 그리려는 의도밑에 모순과 불합리로 둘러싼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과 반항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단편소설 《비오는 길》을 처녀작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당시의 시대적환경과 사상적제한성으로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세계에 들어 서지 못하였으며 《카프》문인들과는 별로 접촉하지 않고 순수문학파인 김동리 등과 휩쓸려 다니면서 단편소설들인 《무성격자》(주체26(1937)년), 《봄과 신자로》(주체28(1939)년), 창작집 《장삼리사》(주체30(1941)년), 수기 《조망문안기》(주체28(1939)년), 《병상과춘》(주체28(1939)년), 《금주난》(주체28(1939)년)과 같은 심리신변잡사적인 문학창작에 몰두하였다.

태동대전쟁이 일에 난 다음 지식인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붓을 놓고 평안남도 강서군 취룡리(오늘의 평안남도 증산군 증산읍) 외가집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조국해방은 그에게 새 생활의 길을 마련하여 주었다. 역사적인 조국해방과 함께 암중모색하던 세계와 단호히 결별한 그는 평양에 올라 와 문화인들과 《평양문화인협회》를 결성하고 민주주의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문학활동을 벌리었다.

주체34(1945)년 10월 14일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인 조국개신연설을 크나큰 흥분속에 받아 안은 그는 당시 흥성하던 연극창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제의 문화적락후와 낡은 생활기풍을 비판한 희곡 《무대 뒤》(주체34(1945)년 10월 15일)를 일필휘지로 창작하여 문화인, 예술인들이 진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이바지할 민주주의 문화건설창조에 펼쳐 나서도록 호소하였다.

새 조선건설을 위한 정력적인 문학활동을 벌려 나가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신임을 받아 안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주체34(1945)년 11월 2일 우리 나라 첫 문화인대표로서 최명익과 김사랑을 만나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일제의 식민지탄압속에서도 량심과 지조를 지킨 작가들이라고 높이 치하해 주시면서 새 조국건설에서 나서는 문화인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은 작가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심장속고백을 토로하고 싶었다.

주체34(1945)년 10월 31일 혁명적출판물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어린이들을 위한 혁명적출판물을 빨리 내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평양아동문화사》창립에 이어 잡지 《어린 동무》 편집전투를 벌리고 있었다. 이때 그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잡지 《어린 동무》(주체35(1946)년 1월 1일)의 첫 창간호와 함께 기사 **《김일성장군》**을 창작발표 하였다.

최명익은 기사에서 개선광장에 높이 모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끓어 오르는 경모의 정을 해방의 환희로운 기쁨과 감격속에 열렬히 칭송하면서 일찍부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강대한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민족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 인민에게 새 삶을 안겨 주신 민족의 태양 백전백승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인품에 매혹된 열정과 넋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여러 어린 동무들은 김장군이 높이 드는 기발아래서 모이십시오. 김장군은 우리 조선동포가 자유롭게 살수 있는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동포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뭉치자고 웨치십니다.

여러분은 김장군을 따르고 본받아서 장군의 훌륭한 제자가 되시오!》

작가는 수많은 문인들가운데서 제일 먼저 자기 령도자를 알고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문인들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보여 주었다.

은혜로운 품속에서 당의 작가로 성장한 최명익은 문예총중앙위원으로 문학예술부문 산문부장의 중책을 지니고 국어말편찬사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쟁시기간에도 민주개혁의 력사적현실이 안아온 격동적인 환희와 기쁨으로 설레이는 인민들의 자주적 삶을 위한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단편소설들인 **《담배한대》**(주체35(1946)년), **《맥령》**(주체35(1946)년), **《제1호》**(주체36(1947)년), **《남향집》**(주체37(1948)년), **《공동풀》**(주체37(1948)년), **《기계》**(주체38(1949)년)와 성진적색농조원들의 투쟁을 반영한 단편소설 **《마천령》**(주체36(1947)년)을 창작함으로써 민주주의 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였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그는 자신의 혁명적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어려운 전시환경에서도 당의 문예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던 작가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 안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주체41(1952)년 8월 10일 당시 작가들이 소개되어 창작전투를 벌리고 있던 강동군 송학리에서 작가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작조건과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면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나날에 작가는 어려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체험한 인민군용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모습과 정신세계를 보여준 장편소설 **《조국의 목소리》**(주체40(1951)년)를 창작 한데 이어 적강점지역인민들의 투쟁모습과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인 **《기관사》**(주체40(1951)년), **《소년 권동수》**(주체41(1952)년), **《영웅 한남수》**, **《운전수 길보의 전투》**(주체41(1952)년)를 비롯한 전투적기백이 강하고 현실긍정의 열렬한 전투성으로 충만된 작품창작으로 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당의 작가로 성장한 최명익은 전후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이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 하기 위한 문화건설에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력사소설창작에 전력하였다.

그리하여 작가는 장편력사소설 **《서산대사》**를 창작한데 이어 중편력사소설 **《임오년의 서울》**(주체51(1962)년), 단편력사소설들인 **《섬월이》**(주체51(1962)년), **《음악가 김성기》** **《학자의 녀원》**(주체51(1962)년), **《땃땃한 사람 이야기》**, **《지리학자 김정호》**, **《론개이야기》**, 력사만화사화집, **《해주산성싸움》**, **《의병장 정문부》** 등을 창작

하여 우리 문단의 역사소설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었다.

로년기에 들어 선 작가로서 그는 신인육성을 위한 수많은 창작경험글과 평론, 기사 등을 신문 잡지 등 여러 출판물에 발표하였으며 수필집 《글에 대한 생각》을 창작하여 신인작가들의 성장에 큰 경험과 감흥을 주었다.

해방후 그의 문학활동에서 이룩한 작품창작은 소약하고 미흡하나 작가의 문학세계와 창작적열정은 그의 작품들과 함께 커다란 감흥과 깊은 여운을 안겨 주고 있다.

작가는 장편력사소설 《서산대사》를 창작하던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이 소설에서 임진조국전쟁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빌어서 조선인민을 폐찬하고 싶었고 단지 하고 싶은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을수 없는 충동이 마음속에서 끓어 번졌다.》(기사 《창작에 관한 수필》, 주체49(1960)년 5월 10일 문학신문)

인민을 폐찬하고 싶었던 그는 집필을 위한 원고 첫장마다 《인민폐찬》이라는 네글자를 큼직하게 써 놓곤 하였다.

력사소설창작의 자료부족과 주인공의 자료연구를 위해 《조선봉건왕조실록》, 《병서》, 《징비록》, 《평양지》, 《중국 기사고》, 《임진록》 등 2만여페이지에 달하는 서적들을 탐독하였으며 묘향산 현지답사와 그 지방 로인들과의 담화, 추운 겨울 옛 성터를 몇번씩 오르내리면서 평양성 탈환전투의 한장면 한장면구상을 머릿속에 그려나갔다.

남보다 재주가 무디기때문에 배가의 노력을 하였다는 옛날 어느 사람의 고사에 유래한 《명하》라는 호를 가진 작가의 진지한 노력과 고심어린 탐구는 장편력사소설창작의 편속이었다.

그는 글을 쓸 때마다 자기를 채찍질하며 글자 하나 문장하나를 심중히 대하였으며 단어 하나까지도 신체의 건강미를 보탬하여 주는 살 한점으로도 보고 작품묘사에 알맞는 어휘를 고르기 위해 며칠밤을 모대기며 언제나 원고지를 새까맣게 만들곤 하였다. 집필도중 단 한마디의 고사나 한두마디의 언어와 병서를 서술하기 위하여 무려 1,600페이지에 달하는 《무경칠서》를 탐독하였고 고전소설 《구운몽》, 외국소설 《전쟁과 평화》를 세번이나 탐독하였으며 소설 한대목에 잠깐 등장하는 정철에 대하여 너무 파고 들기에 어떤 작가가 소설을 그만두고 그의 전기를 쓰려는가고까지 통말을 한적이 있었다.

그는 어느한 소재목 대목을 추고할 때 주인공의 진실한 형상을 위한 초고집필에 여덟번이나 추고하고 다시 추고하였고 작품초고집필에 세번 이상 옮겨 베끼지 않은 문장이란 없으며 2,200매의 소설원고를 1만매의 원고에 채 집필을 진행함으로써 성과작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그는 력사자료연구에 있어서 언제나 주체의 력

사관에 기초하여 립증한 다음 소설창작에서 현대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편력사소설 《임오년의 서울》에 대한 소설창작준비를 진행하던 때였다.

당시 우리 나라 력사기록에는 일본력사가들이 쓴 외곡된 자료가 그대로 서술되어 있었다. 자료에는 《임오군인폭동》은 단순히 군대들에 내주는 료미를 오래동안 밀려 오다 모래가 섞인 쌀의 공급으로 폭동이 일어 난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가는 당시 군대가 폭동을 일으키자 맨 먼저 옥을 깨뜨린 후 목숨을 걸고 조정의 매국적인 친일정책을 규탄하고 투옥되었던 백락관이 라는 유생부터 탈환했다는 사실을 여러 력사기록들을 통해 립증한 다음 《임오군인폭동》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군대와 인민들의 일체에 대한 반침략, 반봉건적인 대중투쟁이었다는 력사적성격을 바로 잡고야 소설창작을 하였다.

최명익은 전후 남조선피괴도당이 방송으로 그의 이름을 빌어 우리 사회제도를 비방중상할 때 정의의 붓을 들고 반동매문가들을 규탄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작가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창작실천성과로써 당을 받든 인민적작가였다.

언제나 청렴하고 고지식하였고 티를 낼줄 몰랐던 로년의 작가의 인생의 길에는 가슴아픈 우여곡절도 있었다. 년로한 몸으로 작가대렬에서 제외되어 농촌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애오라지 일루 희망안고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던 그는 전사증을 받아 쥐었다. 거기에서 처의 급사로 인한 정신적타격은 실로 늙은 작가로 하여금 농촌생활을 감당하기 어렵게 하였다.

해방전 두 딸의 병사와 전쟁에서 아들의 전사로 하여 자식들의 부양을 받아 볼수 없었던 작가는 곡절많은 운명을 하였다.

작가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아버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생전에 벌린 그의 문필활동을 귀중히 여기시고 작가와 작품을 널리 소개하여 우리 나라 명인사전에 올리도록 하시였으며 주체73(1984)년 2월 14일 작가대렬에서 제외되었지만 언제나 그날의 그때처럼 창작으로 이어진 그의 피타는 고심이 깃든 유고작품인 장편력사소설 《조선봉건왕조망국사》를 완성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하여 주시였다.

또한 주체82(1993)년 10월 27일 장편력사소설 《서산대사》와 중편력사소설 《임오년의 서울》을 재판하도록 하시고 해당 기관에서 그의 가정주위 환경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바로 잡아 주도록 하는 크나큰 정치적사랑을 안겨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작가 최명익은 력사소설가로서 우리 문학사에 더욱 풍만하게 하여 주고 있는 그의 작품들과 함께 당의 품속에서 영생의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김혁, 차광수가 되고 김책형의 충신이 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중에서

회고평론

조국결사수호정신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

김정철

전승의 축포가 오르던 그날부터 선돌기의 자랑찬 년륜을 새기며 찾아 온 7월, 승리의 7월이 왔다.

오늘도 우리 가슴을 영광과 긍지로 더더욱 후덥게 하여주는 그날의 승리!

전대미문의 가렬처절한 싸움과 이름못할 시련과 고난들이 겹쌓였던 그 나날 어떻게 지켜내고 안아온 승리였던가.

불뽕은 적화구를 한몸으로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은 애어린 전사의 붉은피가 그대로 승리의 불씨가 되고 불사신마냥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달려드는 적땅크밀로 맞받아 들어간 이 나라 무명전사들의 넋이 그대로 안아온 우리의 승리.

그래서 7월은 그날의 승리를 안아온 이 나라 영웅전사들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뜨겁게 안겨오는 것이다.

조국의 운명과 미래가 좌우되는 판가리싸움의 그 나날 과연 우리의 영웅전사들이 무엇때문에 자기의 귀중한 청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 싸웠던가, 정녕 그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 이땅우에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게 하였던가.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단편소설 《불타는 섬》(황건 작)의 주인공들의 영웅적투쟁모습에서 찾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월미도해안포병들이 참말로 잘 싸웠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그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여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월미도해안포병들! 이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여 한개중대의 인원과 단 4문의 포로 수백대의 함선, 수천대의 비행기로 달려드는 5만명의 미제침략자들을 막아 3일간이나 견결히 싸웠다.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대로 한몸이 포탄이 되고 수류탄이 되어 불사신마냥 과감히 맞서 싸운 이들의 조국수호정신은 그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는가!

단편소설 《불타는 섬》은 바로 이런 월미도해안포병전사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담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이 나라 영웅전사들의 투쟁과 위훈을 보여주는 수많은 전쟁물작품들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단편소설 《불타는 섬》은 우리의 기억속에 특별히 인상깊게 남아있다.

단편소설이 나온지 반세기가 넘은 오늘까지도 짙은 여운속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며 남아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월미도용사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이 그토록 크고 놀라운데도 있지만 그것을 단편소설다운 기교와 형상으로 제기한 문제를 깊이있게 해명하고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단편소설 《불타는 섬》에 대하여 작품에 나오는 월미도의 해안포중대원들은 모두 희생되었지만 조국에 바친 그들의 생은 영원하며 그들의 고귀한 넋은 조국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는 여기에 이 소설의 핵이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여기로부터 작품은 수령은 곧 조국이며 수령결사옹위는 최고의 조국수호이라는 주제사상적과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작품에 반영된 조국결사수호정신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로부터 오늘도 매우 절실하고 의의있는 형상과제이다.

소설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체현한 주인공 리대훈의 형상속에서 이러한 사상주제적과제를 감동깊이 해명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은 수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충신의 품도를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주인공 리대훈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혁명적량심과 의리로 간직 한 인민군대지휘관이다.

새벽부터 시작된 함포들과 까맣게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오는 적비행기들의 포격과 폭격속에 열번, 스무번 더 불에 지지우고 할퀴우며 뒤집혀지는 말그대로 불타고 있는 섬, 이 자그마한 섬에서 중대장 리대훈은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할 일념으로 중대를 이끌며 싸우고 또 싸운다. 함포사격이 그칠사이없는 속에서도 포가 있는 전호와 전호사이를 뛰어 넘으며 전투지휘를 하고 조준경에 달라붙었다가는 무너진 전호를 파올리고 그리고는 부상당한 대원들을 안아일으키며...

이러한 리대훈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것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도 지도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고 계실 겁니다.… 원썌들이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조국 땅 어디에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그중에도 미더운 당원들이 총칼을 들고 서있는 모습을 모든 정을 기울여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운명의 구성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성심은 수령결사옹위의 위훈을 낳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 있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위대한 수령님앞에 자신을 세워보는 중대장 리대훈, 이러한 리대훈이었기에 마지막포탄마저 떨어지고 수천수만의 원썌들이 개무리처럼 섬으로 상륙하자 살아남은 전사들과 함께 수류탄과 따발총을 비껴들고 주저없이 원썌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 량심과 도덕으로 간직한 전사는 이렇듯 자신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며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할수 있는것이다.

작품은 리대훈의 성격속에 자리잡고있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형상하면서 그밀바탕에 흐르고있는 신념의 세계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몸은 비록 죽어도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의 조국이 있고 우리 조국과 더불어 우리는 영생한다는것이 곧 주인공 리대훈의 충성의 세계가 안고있는 의지이며 신념인것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갖은 고생과 멸시속에 잔뼈가 굵고 철이 든 리대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인간답게 살게 되었다. 그러한 리대훈이었기에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이 그토록 소중했고 그래서 일을 해도 욕심꾸러기처럼 더 많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한것 같지 않아 성차지 않았고 그래서 그토록 소중한 조국을 찾아주시고 삶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마움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원썌들과 무자비하게 싸웠던것이다.

작품에서는 리대훈의 이러한 충성의 세계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조국은 곧 수령이며 수령결사옹위는 최고의 조국수호로 된다는것을 뜨겁게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불타는 섬》이 우리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감명을 안겨주는것은 또한 우리인민군전사들이 안고 있는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대중적영웅주의를 깊이있는 형상으로 보여준데 있다.

작품에서는 월미도용사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할수 있는것은 혁명적동지애에 있다는것을 진실한 형상으로 펼쳐보이고 있다.

전우들의 식사를 근심하던 취사병이 폭격에 얼맞은 물고기를 건지려 바다물에 들어갔다가 쓰러

지자 길길이 물기둥을 일으키며 포탄이 날아와 터지는 속으로 리대훈은 주저없이 뛰어들어 그의 시체를 안아 내온다. 묵묵히 피눈물을 삼키며 전우의 시체를 묻는 리대훈… 아마도 이런 지휘관을 전사들은 자신처럼 믿고 자신처럼 사랑하며 자기의 생명으로 지키려할것이다.

우리는 소설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월미도영웅전사들이 간직한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뜨겁게 느끼며 그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의 높은 정신적기초를 형상적으로 감득하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는 전사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게 한다.

웃도리는 폭풍에 찢기우고 너덜이 낀데 그사이로 모래가 박히고 진한 피가 빨갛게 내배여나온 살들이 드러났으나 포격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포를 쏘기에, 무너진 전호를 파올리고 위장을 하기에, 부상당한 동무들을 나르기에 모두가 여념들이 없는 해안포병들, 무전수들은 전부 들어오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으나 싸우는 전우들과 함께 섬을 사수하는 안정희의 형상은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안고있는 혁명동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느끼게 해주고 있는것이다.

지휘관과 전사들이 사랑과 의리의 숨결로 고통치는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는 수령을 중심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운명공동체에 기초한 사랑의 세계라는것을 뜨겁게 보여주고 있다. 동지를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참다운 사랑은 운명을 같이하는 혼연일체속에서만만이 산생될수 있는것이며 이 사랑의 불길이 인민군대의 대중적영웅주의로 승화되었음을 작품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12일 깊은밤으로부터 시작하여 14일까지 3일간의 생활이 펼쳐지는 작품은 무전수 안정희의 시야에 비친 해안포병전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수법을 쓰고있다. 작품에서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치열한 격전의 생활이 펼쳐지지만 그속에서는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신심과 락관에 찬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노래가 뜨겁게 울려나오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지향과 념원이 세차게 굽이치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월미도해안포중대원들은 모두 희생되었지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조국결사수호에 바친 그들의 생은 영원하며 그들의 고귀한 념은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 있다는것을 감동깊이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 바로 단편소설 《불타는 섬》의 인간학적품위와 철학적깊이가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불타는 섬》은 공화국창건 55돐에 즈음하여 제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를 심장에 받아 안은 우리 작가들이 선군문학의 자랑스러운 탐구의 길을 열어나가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도록 하는데 고무적인 시사를 주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불리는 충성의 열정과 창조적 재능을 높이 발휘하여 선군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중에서

회고평론

더 높이 내려치라, 1950년대 총대서정이어!

-전시가요의 가사들을 더듬어-

김학

정의의 총칼로써 원쑤를 무찔러
공화국은 영원히 부강하게 살리라
(《조국보위의 노래》 중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시가요 〈전호속의 나의 노래〉나 〈아무도 몰라〉, 〈샘물터에서〉와 같은 노래들은 조국해방 전쟁시기 인민군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담고 있습니다. 그 노래들에는 현란한 시어도 없고 심오한 철학적인 구절도 없지만 사랑하는 조국과 생활에 대한 심오한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오, 공화국과 더불어 50년세월 년대와 년대를 이어
즐기차게 불리워온 총대명곡이어, 너의 영원한 생명력은 과연 어드메 있느뇨!

1

오늘도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전시가요를 들으며
우리는 명작의 생명력은 역시 시대와 생활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해명에 있음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전시가요들은 무엇보다 최대의 애국은 조국결사수호에 있음을 소리높이 노래하고 있다.

조국에처럼 신성하고 숭고한 사상감정은 없다.
인간생활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랑의 절정에 조국애가 있다. 조국은 어머니란 말이고 고향이란 말이며 자기자신의 운명이란 말이다. 어머니와 고향을 떠난 자신의 운명이 없는것처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떠난 인간의 참다운 삶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나 조국애는 말이나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도 없는 목숨을 바치는것으로써 완성되고 빛난다.

조국결사수호정신, 여기에 최대의 애국이 있고
공민의 신성한 의무와 인간의 깨끗한 양심과 가장 아름다운 삶이 있다.

전시가요는 바로 조국결사수호정신이 애국심의 최고발현임을 깊이있게 깨우침으로써 시대의 명곡으로 영생할수 있었다.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난다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이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조국보위의 노래》 1절)

진격이다 진격이다 앞으로 진격 또 진격
남녘땅을 해방하러 질풍같이 나아간다
조국의 통일 위해 번영을 위해
이 땅에서 원쑤 미제 쓸어버리자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결사전에 나아간다
(《진군 또 진군》 2절)

조국해방전쟁의 첫해에 울리던 군가들이다.
얼마나 심각한 총대철학을 파헤치고 있는가.

《가슴에 끓는 피》는 생명 그자체이며 인생의 전부이다. 《피》로 상징되는 개념처럼 숭고한것은 없다. 《피》를 바치는 사람이라면 그 이상의 고귀한것이 또 있으랴.

그렇다, 조국은 피를 바쳐 사랑해야만 하는 더없이 신성하고 귀중한것이다. 하기에 《조국보위의 노래》는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나 자면 조국을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하고 있다. 목숨으로!

조국의 절반땅을 타고 앓은 원쑤는 전쟁과 략탈로 살이 썩 가장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미제국주의이다. 조국을 통일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면 바로 《이 땅에서 원쑤미제 쓸어》버려야 하며 그것은 오직 총대로만 이룩할수 있기에 《진군 또 진군》은 죽음을 각오한 《결사전》을 피 타게 웨치고 있다.

조국결사수호정신은 전시가요에 관통되어 있는 주도적인 사상적기백이며 정서적씨앗이다. 격렬한 전투환경이나 영웅적사변을 정면에서 취급한 작품은 물론 전선과 후방의 세태적인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에서도 조국애는 다양한 사상감정으로 조국결사수호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 가라

조국땅을 보위하러 총을 멘지 삼년석달
적탄알이 비발치는 격렬한 싸움에도
공 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네
공 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노라
(《전호숙의 나의 노래》 1절)

전투의 실참 전호가에 앉아 포연 서린 하늘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는 병사의 절절한 내면세계
를 반영한 그 가사의 주되는 사상감정은 두말할
것 없이 애국심이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화되어 생활적인 형상을 펼치
고 있으며 거기에서 조국결사수호정신의 심오한
진리를 뽑아 내고 있다.

《조국땅을 보위하》는네는 무엇보다 《총》이
필요하며 《공 세우라 하신 말씀》을 지키는 길은
《적탄알이 비발치는 격렬한 싸움》에 뛰어 드는
데 있는것이다.

총대를 들고 결전장에 뛰어 드는것만큼 고향과
부모처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어디에 있으며
그처럼 숭고한 애국주의감정이 또 어디에 있겠는
가. 고향과 총, 목숨은 곧 애국이라고 《전호숙의
나의 노래》는 오늘도 웨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결사수호정신으로 충만된 조국
애의 사상감정은 《원췌의 불구멍 몸으로 막은 전
우의 죽음을 헛되게 말》기를 원하며 《탄우를 뚫
고 섬멸의 길로》(《결전의 길로》) 돌진하는 비상
한 전투정황에서 환기되기도 하고 《원췌를 물리
친 인민군부대의 군량을 만드느 도리께》(《풍년
맞이도리께》)절에 성수단 후방의 평화적환경에서
도 우리 나온다.

지어 《미국놈 백놈이나 쓸어 눕히고 불탄 고지
지키》여 《나라의 자랑인 우리의 영웅을 그대로
야 점직해 어이 만》날가며 《춘기와종 먼저 하》
고 《원췌의 포탄자리》배우(《우리 님 영웅되셨
네》)는 후방녀인의 소박한 심정에서도 《정 들은
동무들이 전선으로》 떠나는 날 《허둥지둥 샘물
터의 진달래꽃 꺾어주며》 《승리의 날 또 오》라
고 《거듭하여 부탁》(《샘물터에서》)하는 처녀의
숫저은 마음에서도 그리고 《나어린 어깨에 복수
의 총을 메고》 《조국을 위하여》 승리의 길에
나선 (《소년빨찌산의 노래》)소년들의 장한 모습
에서도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가
정도 다 바치는데 참다운 애국이 있다는 사상을
가슴뜨거이 감득하게 된다.

하다면 어떤 조국이 결사수호의 대상으로 되고
우리 조국이 어떤 조국이기애 청춘도 생명도 가
정도 다 바쳐 결사적으로 지키는가.

전시가요들은 바로 시대와 력사의 이 물음에
가장 옳바른 형상적대답을 준것으로 하여 우리의
애국의 의미를 더욱 심오히 하고 자기의 생명력

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사랑하는 내 고향엔 정든 집이 있었네
사랑하는 내 고향은 살기 좋은 곳이었네
수령님이 주신 땅에 봄이 오면 씨뿌리고
단풍드는 가을이면 오곡백과 거두었네
아 그러나 정든 고향은 불타버리고
젊은이는 총을 메고 결전에 나섰네
돌도 없는 청춘을 조국에 바쳐 싸우리
기다리라 나의 고향 나서 자란 산천이여
원췌치고 돌아가면 너를 안아일으키리
온 세상이 부럽도록 락원을 세우리라
수령님의 품속에서 길이길이 살리라

(《내 고향의 정든 집》 전문)

그렇다. 《정든 집》이 있고 《살기 좋은 곳》
인 《사랑하는 내 고향》, 《봄이 오면 씨뿌리고
단풍드는 가을이면 오곡백과 거두》는 그 땅은
《수령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주신 땅!

지구가 생겨 수수천년 내려 온 조상의 땅이었
다. 그러나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했던 해방전에
는 나서 자란곳이여도 《고향》은 아니였고 씨뿌
리고 열매를 거두어도 제땅은 아니였다.

언제부터였던가. 고향의 그 모든것이 그토록
사랑스럽고 정답기 시작한것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빼앗긴 조국을 찾아 주시고 주인의
존엄과 권리를 안겨 주신 그 때부터가 아니였던
가. 《수령님이 주신 땅》, 진정 그것은 존엄이었
고 권리였고 고향이였고 조국이였고 운명이였다.

아, 우리 수령님의 품이였다!

하기에 정든 고향이 불 타자 《젊은이는 총을
메고 결전에》 나서며 《돌도 없는 청춘을 조국에
바쳐 싸우리》라 맹세한다. 《원췌 치고 돌아 가
면 너를 안아 일으》켜 《온 세상이 부럽도록 락
원을 세우》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길이길이 살》
애국의 불 타는 결의애 충만되어 있다.

작품은 바로 이러한 서정적형상을 통하여 조국
은 단순히 나서 자란 조상의 땅으로만 되어서는
참다운것으로 될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이 담보되
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기약될 때라야 진
정한 조국으로 되고 피와 땀을 다 바쳐 가꾸고
지켜갈 신성한 보금자리로 된다는것, 우리의 조
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기에 우리의 애국
은 그토록 희생적이고 결사적이라는것을 심오히
깨우치고 있다.

우리의 조국과 조국애에 대한 철학적해명은 가
요 《봄노래》에서와 같이 《빨찌산의 이야기 담
겨진 이 샘물》을 마시며 자란 《이 마을의 젊은
이들》이 《장군님의 전사로 용감하게 싸웠》다는

서정적형상을 통해서도 깊이있게 주어 지고 있으며 가요 《문경고개》에서처럼 《이 나라의 행복을 자유를 부르며 쓰러지면서 피 흘리면서 높은 령 험한 길을 단숨에 넘었》다는 주정토로와 가요 《전호숙의 나의 노래》에서와 같이 우리 행복 삼키려는 원쑤 미제 쳐부시고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 팔로써 안기리라는 절절한 내면세계의 개방을 통해서도 폭 넓게 밝혀 지고 있다.

《빨찌산이야기가 담겨 진 샘물》, 《이 나라의 행복과 자유》, 《우리 행복》 등은 곧 백두의 혁명전통을 이은 우리 공화국, 어버이수령님의 조국의 상징이다. 하기에 우리의 애국은 《장군님의 전사로 용감하게 싸우》는데 있으며 《쓰러지면서 피 흘리면서 높은 령 험한 길을 단숨에 넘》고 《원쑤 미제 쳐부시고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있는것이다.

전선용사들과 후방인민들의 영웅적희생정신, 조국결사수호정신의 바탕에는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한 신념으로 깔려 있었다.

전시가요들은 정당하게도 여기에 응당한 형상적관심을 돌려 총대서정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가요 《우리의 최고사령관》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용맹을 부르》고 《승리를 부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의 부름에 원쑤를 부시고 그이를 모시고 승리를 노래》할 한없는 수령숭배의 사상감정을 펼치고 있다.

참으로 심오한 형상적해명이다.

《수령께 맹세한 붉은 맘으로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를 부르짖는 가사 《결전의 길로》가 그러하며 《수령님 품에서 영웅된 그 사연 처녀가 받은 줄 아무도》 모른다고 속삭이는 가사 《아무도 몰라》 역시 그렇다.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의지, 령도와 덕망을 떠나서 승리도 영광도 행복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생활과 밀착시켜 진실하게 깨우친데도 전시가요들의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시가요들은 조국결사수호의 노래인 동시에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수령을 위해, 조국을 위해 바쳐 진 노래는 영생하는 법이다!

2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것처럼 전시가요에는 현란한 시어도 없고 심오한 철학적인 구절도 없지만 사랑하는 조국과 생활에 대한 심

오한 철학이 담겨 저 있다. 때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의 포연이 가서 진지 5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노래들을 잊지 않고 즐겨 부르며 거기에서 삶에 대한 희열과 투쟁에 대한 신심을 얻고 있는것이라.

철과 철이 부딪치고 불과 불이 다투는 가렬한 전시환경에서는 의례 청높은 웨침이나 요란한 구호가 시어를 대신할것 같다. 그러나 전시가요들은 너무도 《조용》하고 《평범》한 목소리로 력사의 진리를 《속삭이》고 있다. 생활의 진실은 생활 그 자체의 형상적반영에 있는것이지 결코 추상적인 구호에 있는것이 아니다.

때문에 전시가요들은 전선용사들과 후방인민들의 생활감정을 그 어떤 수식이나 가미도 없이 있는 그대로 확 드러내 보이는데로 지향함으로써 복잡한 《삼단론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이해하며 또 어렵지 않게 입에 오르게 된다.

군대와 인민이 뼈속깊이 체험하는 생활을 그들이 늘 쓰는 말로 정답고 소박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심장이 불타 오르지 않으랴.

샘물터에 물을 길러 동이 이고 나갔더니
빨래하던 군인동무 슬금슬금 돌아 앉네
살그머니 바라보니 그 솜씨가 서투르지
부끄러워도 말했지요 제가 빨아 드릴가요
제가 빨아 드릴가요 제가 빨아 드릴가요

(《샘물터에서》 1절)

샘물터의 정경이 얼마나 방불하게 안겨 오는가, 《슬금슬금 돌아 앉》는 《군인동무》의 당황한 표정과 행동거지, 《살그머니 바라보》다가 《부끄러움》을 애써 참으며 자꾸만 떨려지는 목소리로 《제가 빨아 드릴가요》하고 묻는 처녀의 애모쁜 눈빛과 밧기우리 물든 얼굴색까지 눈앞에 선하다. 이성의 정과 어우러진 군민의 정에서 풍기는 질은 정서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익숙된 우리 말의 자연스러운 쓰임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4개의 절로 이루어 진 이 가요의 가사에서 요란스럽거나 난해하며 귀에 선 표현이란 단 하나도 찾아볼수 없다. 《슬금슬금》, 《살그머니》, 《허둥지둥》과 같은 형용어들은 대상의 움직임

을 얼마나 생동하게 부각시켜 주며 《샘물터》, 《동이》, 《노들강변 봄노래》, 《진달래꽃》과 같은 표현들에서는 진한 민족적정서의 향기까지 풍겨 사람들의 가슴을 한없이 설레이게 한다.

역시 문학예술은 민족고유의 생활을 민족고유의 언어로 소박하게 그려보일 때 커다란 감화력을 가질수 있는 법이다. 이러한 경험은 《샘물터에서》뿐아니라 《아무도 몰라》, 《우리 님 영웅

되셨네》, 《압록강2천리》, 《풍년맞이 도리깨》, 《얼룩소야 어서 가자》, 《어서 보내자》, 《몰레야 동무야》 등 후방인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한 작품들에서도 능히 확인할 수 있으며 지어 격렬한 전투정황을 취급한 전시가요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결전의 길로》, 《자동차운전사의 노래》, 《해안포병의 노래》, 《저격수의 노래》, 《정찰병의 노래》, 《비행기사냥 군조의 노래》 등에서는 긴박하고 격렬한 전투정황속에서 군사임무를 수행하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을 매우 생동하게 그리면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전투적열정을 뽐아 내고 있다.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리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득 세우고
치치...여기가 어데인가 물었더니
대사: 《여기는 전선원호사업에서 소문난 순천이
 웨다.》 《예, 고맙습니다.》
량식을 장만하고 모조리 잡아내자 열빠진 양키
달리자 달리자 나의 자동차
구슬땀 흘리면서 정성껏 지은 쌀을 전선으로
 (《자동차운전사의 노래》 1절)

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어둠을 헤치며 길 아닌 길을
위험한 수십리길 적정 살피면
아하아 알 수 있다 넘려없이
너무도 대담하고 당돌하여서
우리의 부대장은 감격의 악수
원췌의 심장을 들어내오는
슬기롭고 용감한 정찰병이요 정찰병이요
 (《정찰병의 노래》 1절)

보는 것처럼 가사들은 전투정황속의 군사행동을 극명하게 펼쳐 보이는데 초점을 돌리면서 그 자체로 작품의 사상정서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눈으로 보는 듯 귀로 듣는 듯 손으로 만지는 듯한 생동한 장면은 알기 쉬운 언어구사를 떠나서 얻기 힘들다. 실지 작품들에서는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후방의 로인과 이야기까지 나누는 자동차운전사의 모습과 량식을 장만하고 열빠진 양키를 모조리 잡아내기 위해 전선으로 차를 흥겹게 몰아 가는 그의 내면세계가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그 전개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어둠을 헤치고 은밀하게 적정을 탐지해 오고 부대장의 감사를 받는 정찰병의 용감하고 담찬 모습이 정서적인 고유어와 보편적인 입말투로 형상되고 있다.

가장 심오한 진리는 가장 평이한 표현속에 있다는 말이 있다. 전시가요들은 인민적인 통속성

속에 철학적인 심오성이 있는 것으로 특징적이다. 전시가요에 고유한 전투적인 호소성도 혁명적인 량만성도 모두 표현성이 높은 민족고유어와 그 다양한 활용방식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조국보위의 노래》에서)

쏘라 쏘아라 분노에 찬 우리들의 포아
쏘라 쏘아라 바로 쏘아라
 (《해안포병의 노래》에서)

달리자 달리자 나의 자동차
 (《자동차운전사의 노래》에서)

몰레야 동무야 도리돌돌 술술 돌아라
 (《몰레야 동무야》에서)

여기서만 보더라도 《나가자》, 《쏘라》, 《달리자》, 《돌아라》 등의 어휘들은 그자체가 호소적 의미를 가진 고유어들인데다가 그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어순이 전도되면서 더더욱 강한 호소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실례는 《결전의 노래》, 《전호속의 나의 노래》, 《진군 또 진군》, 《내 고향의 정든 집》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볼 수 있다.

물론 전투적호소성은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이 규정한다. 하지만 그 내용의 물질적표현형식인 언어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시가요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적량만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혁명적량만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참다운 삶에 대한 심오한 인식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혁명적량만은 죽음도 맞받아 나아가게 하는 결사의 무기이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할 줄 모르게 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전시가요들은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승리의 신심을 안고 원췌격멸에 떨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를 전형적인 생활세부의 선택과 효과적인 언어형상으로 잘 보여주었다.

특히 각이한 주제적정황과 결부시킨 다양한 형태의 조흥구들은 가요들의 혁명적량만성을 부각시키는데 참으로 커다란 역할을 놀고 있다.

에헤야 에헤야 데헤야 에헤야 데헤야
에헤야 데헤야 좋구나
도리깨바람에 불벼락이라네
도리깨 치던 힘 수류탄 던지니

미국놈팡크가 공중에 뿔뿔히
 에헤야 에헤야 데헤야 에헤야 데야
 에헤야 데헤야 에헤야 데헤야
 얼씨구 좋구나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구나 얼씨구 좋다
 에헤야 데야 도리깨로세

(《풍년맞이도리깨》 후렴)

보다싶이 《에헤야》, 《데헤야》, 《얼씨구》와 같은 조흥구들이 도리깨장단에 맞게 조화롭게 엮어져 미국놈들을 《도리깨질》하는 심정으로 전선에 보낼 식량을 마련하는 후방인민들의 량만적인 사상감정을 훌륭하게 드러냈다.

원래 조흥구는 우리 민족시가의 전통적인 표현 형식이다. 그것은 흔히 인간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색깔의 감정정서를 더욱 강하게 분출시키는 미학적기능을 수행하여왔다.

동서방을 막론하고 조흥구는 우리 시가에서밖에 찾아볼수 없다. 그만큼 조흥구는 우리 민족의 생활감정과 매우 친숙해진 시어이다. 이런 언어 형식이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우리 인민의 강毅한 민족적기질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커다란 작용을 하겠는가 하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압록강2천리》의 《어야 더허야》, 《어여차 지여차》가 그러하며 《매봉산의 노래》에서의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하아 어허어허》가 그렇고 《정찰병의 노래》의 《아하아》, 《저격수의 노래》의 《아하하 하하하》 등이 바로 그렇다.

각이한 형태의 이런 조흥구들은 작품의 구체적 내용들에 맞게 다양한 표현형식을 띠면서 제나름

의 흥취를 돋우고 있다.

전시가요들은 바로 이러한 흥취로 필승의 신심에 넘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추동하였으며 원썩들의 머리우에 가장 위력한 포탄을 들썩울수 있었다.

×

선군혁명문학의 봉우리에서 우리는 아득히 먼 전시문학의 고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천재적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은 최고사령부작전대에서 전승의 백과전서만 구상하신것 아니거니, 민족의 최고리익, 지향과 요구가 민족의 감정과 정서, 취미와 기호에 담겨질 때 그런 문학예술만이 영생한다는 진리도 밝혀주시지 않았던가.

세월의 언덕너머 영원할 전시가요여, 감사를 드리라. 금수산기념궁전에는 너를 탄생시키고 너의 영원을 지켜주시는 위대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

그리고 종군작가들에게 경례를 드린다. 그렇게도 빨리 5년전의 때 묻은 붓을 꺾어버리고 총창같은 펜을 바꾸어잡은 총대서정의 개척자들에게 선군혁명문학의 창조자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수령결사옹위, 조국결사수호의 펜을 총대로 틀어 쥐고 선군령장, 천출명장의 전선길을 함께 달리는 선군시대 최고사령부의 종군작가들이여, 당중앙위원회구호를 높이 받들고 1950년대의 정신으로 선군의 위력으로 공화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는데 이바지할 《제2의 전시가요》를 더 많이 창작하자!